

2009. 12
정책연구 2009-01(수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방안 연구

2009. 12

황기형 · 박광서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황 기 형 : 제1장, 제2장, 제5장, 제6장, 제7장

- 연구진

- 박 광 서 :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박 복 재 (전남대학교 교수)

- 김 재 철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과장)

- 목 정 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주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임 진 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단장)

머 리 말

인류에게 해양은 항상 번영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場)이 되어 왔지만, 환경문제, 자원문제, 경제부진 등 인류 공통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만큼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된 적은 없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의 경제대국들이 해양의 개발과 보호에 관한 국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의 방안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해양에서 찾을 수 있다는 오늘날 인류사회의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는 국가가 주최하고 국가가 참가하는 글로벌 이벤트로서, 공중의 교육을 목적으로 인류문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과 인류문명의 성과, 그리고 미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인류문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양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수단들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방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박람회장 건설과 운영에 2조 원이 넘는 직접투자비가 소요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간접투자비까지 포함하면 그 투자 규모는 실로 방대해진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은 단지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벤트의 성공만을 위해 추진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국가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관련 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도시재생과 지역산업의 진흥 등과 같은 다면적인 목적에 따라 개최된다.

세계박람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

여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남기게 된다. ‘성공한 박람회’라면 사회에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실패한 박람회’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박람회는 국제교류의 확대와 각종 매체의 등장에 의해 개최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주최국의 입장에서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본 연구는 글로벌 이벤트로서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갖는 개최 목적과 기대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황기형 연구위원과 박광서 책임연구원이 수행하였지만 연구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실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김재철 과장은 총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유익한 자문을 해주었고 연구와 관련된 자료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전남대학교의 박복재 교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과제와 여망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주었다. 이외에도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강 종 희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세계박람회의 성격과 성공조건	9
---------------------	---

1. 세계박람회의 역사	9
1) 세계박람회의 기원	9
2) 19세기의 세계박람회	10
3) 20세기 전반기의 세계박람회	11
4) 국제박람회기구의 설립	12
5) 20세기 후반기 세계박람회	14
6) 21세기의 세계박람회	17
7) 세계박람회의 주제별 분류	18
2. 세계박람회의 목적과 개최 효과	20
1) 세계박람회의 위상 변화	20
2) 세계박람회의 성격	24
3) 세계박람회의 개최 목적	26
4) 세계박람회의 효과	27

3. 세계박람회의 성공 조건	29
-----------------------	----

제3장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및 여건 분석 ————— 36

1.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35
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경과	38
3. 개최지 여건 분석	40
1) 지리적 여건	40
2) 자연적 여건	41
3) 사회경제적 여건	43
4) 관광자원 현황	46
4. 개최지 발전전략	50
1) 상위 발전계획	50
2) 여수시 발전계획	52
5. 개최지 SWOT 분석	55

제4장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 58

1. 분석대상 세계박람회	58
2. 최근 개최된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60
1) 하노버 세계박람회	60
2) 아이치 세계박람회	65
3) 시라고사 세계박람회	73
4) 상하이 세계박람회	79
3. ‘해양’ 주제의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84
1) 오키나와 세계박람회	84
2) 세비아 세계박람회	89
3) 제노바 세계박람회	95

4) 리스본 세계박람회	98
4. 대전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102
1) 일반 현황	102
2) 개최 목적	104
3) 우수한 점	104
4) 미흡한 점	105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107
1) 종합평가	107
2) 시사점	108

제5장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상황 검토 114

1. 전반적 추진상황	114
2. 박람회 기본계획의 내용 검토	115
1) 주제 및 전시연출 구상	116
2) 박람회장 조성	119
3) 교통·숙박 대책	121
4) 홍보·마케팅	122
5) 사후활용	124
3.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25
4. 준비상황 종합평가	129

제6장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방안 131

1. 여수 세계박람회의 강점과 약점 분석	131
1) 이벤트로서의 성공조건	132
2) 정책으로서의 성공조건	138
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	140

1)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콘텐츠 구축	142
2) 박람회장 지역의 사후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수행	143
3) 국민의 참여동기 유발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146
4) 관람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 기획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146
5) 광역 교통망의 적기 확충	148
6) 주요 선진국의 조기 참가 확정을 위한 유치활동 강화	148
7) 수익사업 및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150
3. 해양기반 경제의 미래상, ‘Blue Economy’ 개념 정립	152
1) Blue Economy 용어의 사용 사례	152
2)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 동향	157
3) Blue Economy의 정의, 배경 및 조건	166
 제7장 결 론	 173
 참 고 문 헌	 176

표 차례

표 1-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5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1.	BIE 협약의 박람회에 대한 규정(제1조)	13
표 2-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BIE가 승인한 종합(등록) 박람회	16
표 2-3.	주제별 세계박람회 주요 개최 현황	20
표 2-4.	세계박람회의 성격	25
표 2-5.	세계박람회 개최의 일반적 목적	27
표 2-6.	세계박람회의 효과	28
표 2-7.	아이치 박람회의 성과지표 체계	32
표 3-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37
표 3-2.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	39
표 3-3.	연평균 기상 개황(1997~2007)	42
표 3-4.	월평균 기상 개황(1997~2007)	43
표 3-5.	태풍발생 현황(1971~2008)	43
표 3-6.	여수시 입지계수 현황(2007년)	45
표 3-7.	여수시 도로시설 현황(2007년)	46
표 3-8.	여수시 주요 관광자원 현황	47
표 3-9.	여수시 기후보호도시 추진 방안	54
표 3-10.	개최지 SWOT 분석결과	57
표 4-1.	분석대상 박람회 현황	59
표 4-2.	하노버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60
표 4-3.	아이치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66
표 4-4.	아이치 세계박람회 주제개발 매트릭스	70
표 4-5.	시라고사 세계사박람회 개최 현황	74

표 4-6.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79
표 4-7. 오키나와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85
표 4-8. 오키나와 및 류라우미 수족관 관광객 추이	88
표 4-9. 세비아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90
표 4-10. 제노바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95
표 4-11. 리스본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99
표 4-12.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103
표 4-13. 대전과학공원 사후활용 실패 원인	106
표 4-14. 분석대상 세계박람회의 성과 평가	107
표 4-15. 세계박람회의 성공요인	113
표 5-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및 의미	116
표 5-2. 전시관별 전시테마	117
표 5-3. 고급숙박시설 공급계획	122
표 5-4. 관람객 수요 예측 결과	123
표 5-5. 매체별 국내 홍보전략	123
표 5-6. 주요 시설별 사후활용 계획(예시)	125
표 5-7. 박람회장 조성계획 주요 보완 및 변경 계획(안)	128
표 5-8.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확정 국가 및 국제기구 현황(2009년 10월 말 현재) ·	128
표 6-1.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의 인구 비교	133
표 6-2.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소규모 도시의 인구	134
표 6-3. 내국인의 순수관광 목적지별 점유율(2008)	137
표 6-4. 외국인의 순수관광 목적지별 점유율(2008)	137
표 6-5.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 여건, 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141
표 6-6.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사례	144
표 6-7. 여수 세계박람회 재원조달계획	151
표 6-8.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Blue Economy에 대한 견해	155
표 6-9. Blue Economy에 대한 인식의 특징	156
표 6-10. 미국 Ocean Blueprint의 비전과 주요 내용	158

표 6-11. 오바마 정부 해양정책 태스크포스의 일정별 임무	159
표 6-12. 미국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20대 우선연구과제	160
표 6-13. EU Green Paper의 부문별 추진방향	161
표 6-14. EU 통합해양정책의 5대 원칙	161
표 6-15. 중국 11·5 계획에 나타난 해양산업 발전방향과 주요 내용	162
표 6-16. 중국 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 추진방향 및 목표	163
표 6-17. 일본 해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64
표 6-18. 4대 해양대국 해양정책의 공통 주제 및 과제	165
표 6-19.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 강화 동인(動因)	167
표 6-20. Blue Economy의 개념, 배경 및 조건	172

그림 차례

그림 2-1. BIE 협약에 따른 세계박람회 분류체계의 변화	14
그림 2-2. 세계박람회의 변천 과정	19
그림 2-3. 이벤트의 매체적 특성	23
그림 2-4.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	35
그림 3-1. 여수 세계박람회를 관람하지 않겠다는 이유	41
그림 3-2. 여수시 인구 및 세대 수 변화 (1995~2009.7)	44
그림 3-3. 여수시 주요 관광지 현황	48
그림 3-4. 여수시 방문 연간 관광객 수 (1997~2007)	49
그림 3-5. 여수시 방문 월평균 관광객 수 (1997~2006)	50
그림 3-6. 상위계획에 나타난 남해중부권 발전 방안	52
그림 3-7. 여수시 도시발전계획에 나타난 여수시 발전 방안	53
그림 4-1. 하노이의 위치	61
그림 4-2. 네덜란드관의 과거와 현재 모습	65
그림 4-3. 아이치의 위치	67
그림 4-4. 아이치 세계박람회장 개념도	71
그림 4-5. 사라고사의 위치	75
그림 4-6. 상하이의 두 얼굴	81
그림 4-7. 오키나와 세계박람회의 상징인 아쿠아폴리스	87
그림 4-8. 세비아의 위치	91
그림 4-9. 세비아 세계박람회장의 모습	93
그림 4-10. 제노바의 위치	96
그림 4-11. 제노바 세계박람회의 상징인 비고(Bigo)	98
그림 4-12. 리스본의 위치	100
그림 5-1.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진행상황	114
그림 5-2. 전시연출을 위한 주제군의 도출	117

그림 5-3. 전시연출 개념도	118
그림 5-4. 박람회장 주요 공간배치 구상	120
그림 5-5. 박람회장의 주요 공간배치 구상	120
그림 5-6. 박람회장 사후활용 구상(안)	124
그림 5-7. 여수 세계박람회 전시연출의 지향점	126
그림 6-1. 국가별 세계박람회 개최 횟수	135
그림 6-2.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제안	143
그림 6-3. 사업타당성 분석의 과정	145
그림 6-4. Green Economy와 Blue Economy의 의미	166
그림 6-5. Blue Economy에서의 해양자원 수급모형(공세적 측면)	168
그림 6-6. Blue Economy에서의 해양 기인 위협의 대응 과정(수세적 측면)	169

Executive Summary

Requirements and Measures for a Successful 2012 Yeosu International EXPO

- The impact of an international exposition worth billions of dollars reaches every corner of the hosting society. For example, a successful expo brings about lasting rippl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enhanced national status, invigorated local economy,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and accelerated advancement of cutting-edge technology. However, a failed expo doesn't generate expected benefits, while post management of facilities incurred huge costs.
- Therefore, the success of the 2012 Yeosu Expo is imperative, not an option. Since its theme is "Living Ocean and Coast," a big responsibility falls o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requirements and measures for a successful Yeosu expo.
- Compared to decades ago, competition to host international expositions has become quite fierce. And the rationale to use that as a medium to achieve certain purposes hasn't changed at all. An international expo is a global event where two way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 between information holders and receivers are done person-to-person on the spot. For this reason, it is called "the 5th medium," along with digital media and satellite broadcasting. Current changes i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expositions are mainly due to the requirements and models presented by the 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 rather than their limitations as media.

- Under the BIE guidelines, international expositions are unique and different from other commercial events. They are one of a few global events organized by nations where each nation partakes under the great theme, “co-prosperity of the humanity.” Thus, a global exposition of this magnitude is undoubtedly huge in their size. Billions of dollars are directly spent on them. The success of this national project lasts three to six months, long after the event. Although each nation has its own goals, global expositions are usually held for the following reasons: to enhance national status or image, to address local imbalances, to develop relevant industries and to invigorate cities and local economies.
- For this reason, success for international expos is imperative. Investments are poured in efficiently according to their policy objectives and goals. This study outlines two sets of requirements needed to host a successful expo: as a successful event and as successful policies. A successful national event requires active public and local support, enough visitors, enough participating nations, a fruitful realization of theme and tourist attractions. On the other hand, successful policies call for clear and shared goals, effective operation and business environment.
- Based on these requirements,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for the Yeosu Expo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reparations. The result shows the following:
 - First, a survey has it that Korean people are mostly positive about the Yeosu Expo. However, more marketing and PR efforts are necessary to encourage them to actually participate in the event.
 - Second, the early decisions of major nations to join the expo are critical to attract more participants. N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need addi-

tional attention because their participation affects others.

- Third, contents with logical coherence are essential to realize the theme to the fullest. Based on these contents, the overhaul spatial structure should be corrected and complemented. The function of expo facilities should be designated accordingly as well.
- Fourth, events which can attract large crowds and other tourist products should be developed for greater satisfaction of visitors to the Yeosu Expo. New profit models need to be devised based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 Fifth, for better policy effects of the Yeosu Expo, a comprehensive afterwards plan for the expo site should be prepared in line with the long term development plans for Yeosu. The overhaul spatial structure and design of exhibition halls need to be modified within the permissible limits after the event to boost the usage of facilities and the site.
- Last, nations around the world recent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ocean for their long term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is international mood will help to realize political and social goals of the expo, such as magnified significance of the 2012 Yeosu Expo, raised national statu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enhanced public awareness about the ocean.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박람회의 역사적 기원을 찾자면 고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 사회의 물질문명과 기술의 발전상을 배경으로 하는 근대적 의미의 세계박람회는 1851년 개최된 런던박람회가 그 효시이다. 런던박람회의 대성공으로 세계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도 2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체제의 형성 및 해체 등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흔히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린다.¹⁾ 참가국의 범위나 투자 규모로 봤을 때 이러한 평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세계박람회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매체(media)가 다양해지면서 세계박람회의 모형은 과거처럼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회의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3대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만큼 세계박람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지 않다.²⁾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상업적 목적의 이벤트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세계박람회의 고유한 특성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박람회는 인류공영을 위한 보편적 주제 하에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유일한 글로벌 이벤트이다.³⁾ 즉 세계박람회의 주최자나 참가자에게는

1) 세계박람회에 관해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이나 저서가 세계박람회를 세계 3대 이벤트로 소개하고 있다.

2) 대중매체 노출 정도에 있어서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매우 낮다.

국가 브랜드가 걸린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는 필연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개최된 세계박람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람회 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한 직접투자비만 수조 원에 달하고 박람회장 면적은 수십만 평방미터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은 단지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벤트의 성공만을 위해 추진되지는 않는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국가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관련 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도시재생과 지역산업의 진흥 등과 같은 다면적인 목적에 따라 개최된다.

세계박람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여 개최되므로,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남기게 된다. 즉 ‘성공한 박람회’라면 사회에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을 가져오겠지만, ‘실패한 박람회’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담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⁴⁾ 따라서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그야말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과 전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때에만 가능하다.

3) 세계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 BIE)는 회원국이 BIE가 인정하는 이벤트 외에 국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세계박람회는 인류 공통의 문제와 관련된 명시적 주제를 갖는다는 점에서(세계박람회기구 협약 제1조), 상업적 목적의 이벤트나 스포츠 관련 이벤트와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4) 세계박람회의 성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세계박람회가 다면적인 목적에 따라 개최되고, 그 성과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박람회의 효과나 영향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특정 박람회의 성공 여부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형성되기도 한다.

오늘날 국제교류의 확대와 각종 매체의 등장으로 세계박람회의 개최 환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고, 세계박람회의 위상과 효과에 관한 인식 변화와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박람회 개최국들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계박람회 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⁵⁾ 이러한 노력은 2010년의 상하이 박람회와 2012년의 여수 박람회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해양정책 분야의 종합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가적 과제인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국가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박람회의 위상과 개최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주최국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개최되는지, 그리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다시 말해 여수 박람회가 ‘성공한 세계박람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글로벌 이벤트로서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갖는 개최 목적

5) 2000년 하노버 박람회와 2005년 아이치 박람회에서는 21세기에 적합한 세계박람회의 정체성 구현이 주최측이 설정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본 보고서 제4장 참조).

과 기대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을 구체화한다.

둘째, 역대 박람회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가 갖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후,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접근한다.

셋째, 여수 세계박람회의 핵심 모티브로서 해양을 바탕으로 한 인류文明 발전의 조건과 배경 등을 정리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세계박람회기구(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s : BIE) 협약에 따른 인정 박람회로서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개최된다. 개최 장소는 여수시의 여수신항을 중심으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이며, 총 174만㎡에 걸쳐 전시시설과 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여수 박람회는 총 100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장 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고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조 389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표 1-1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구분	내용
명칭	(국문)2012여수세계박람회 (영문)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Korea 2012 Expo 2012 Yeosu Korea(단문명칭)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Living Ocean and Coast)
기간	• 2012.5.12~8.12(91일간)
위치 및 면적	• 전남 여수시 여수신항 및 덕충동 일원 174만 5,000m ²
유치 목표	100개 국가, 5개 국제기구, 관람객 800만 명(외국인 55만 명)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역사를 개관(概觀)하여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갖는 국제 이벤트로서의 위상과 목적, 기대효과 등을 고찰하고,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을 설정하였다.

제3장은 여수 세계박람회의 개최 목적과 기대효과, 추진 경과 등을 정리하고 개최지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에 개최된 세계박람회와 해양과 관련된 주제로 개최된 역대 세계박람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실패 요인을 정리하고,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기본계획과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개최 여건과 사업추진상의 강점과 약점을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 제시한 성공조건의 각 요인별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조사와 인터넷 정보검색, 전문가 자문 등과

같은 정성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박람회가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며 세계박람회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대효과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이를 지표화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초에는 여수 박람회의 성공조건을 가중치에 따라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AHP(Analytic Hierachy Process)와 같은 의사결정기법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예비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전문가의 전공 및 종사 분야별로 요인별 중요도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박람회에 대한 집단 간의 이해의 차이를 의미할 뿐 객관적인 성공요인의 도출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문헌조사와 인터넷 정보검색,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역대 세계박람회의 성과 및 시설의 사후활용 실태를 조사하였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각계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요인과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이나 성공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박람회의 유치나 전시연출, 홍보·마케팅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는 다수 찾아 볼 수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방안에 대해 접근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박람회의 위상 변화를 기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세계박람회의 성과를 평가한 사례는 일본에서 발간된 연구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名古屋

屋學院大學總合研究所(2005)와 中村利雄(2007)의 연구는 아이치(愛知) 박람회와 관련하여 개최 전과 후에 발간된 자료로서, 세계박람회의 역사와 사례 분석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아이치 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을 뿐, 세계박람회 성공조건에 구체적인 제시나 성공전략에 대해서는 제시하는 바가 없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관한 두 편의 연구는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각 부문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핵심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연구와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구별된다.

| 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2012년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 연구 ○연구자(연도) : 산업연구원 (2004) ○연구목적 : 2012세계박람회의 유치 타당성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주제 설정, 개최지 여건 분석, 교통망확충계획, 전국의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 ○연구자(연도)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08)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한 기본방향 도출	○여수 세계박람회의 의의, 주제, 관람객 예측, 전시 연출계획, 박람회장 조성 계획, 문화예술행사 계획, 교통숙박대책 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國際博覽會を考える:メガ・イベントの定策學 ○名古屋學院大學 総合研究所(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대 박람회 사례조사 ○이벤트 효과 측정에 관한 계량적 기법 	○세계박람회의 개최 효과 평가기법, 세계박람회의 역사 및 사례 분석, 아이치 박람회 준비 방안 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2005年日本國際博覽會, 愛・地球博回顧録 ○中村利雄(2007) 	○아이치 세계박람회의 준비 과정과 운영 결과를 분야 별로 나눠 기술하고, 교훈 및 시사점 등을 제시	○세계박람회의 의의와 변화, 아이치 세계박람회의 준비과정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등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연구는 세계박람회 유치의 타당성 분석과 공간 계획, 인프라구축 중심의 기본계획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본 연구는 기개최된 해외 박람회의 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제약과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하여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 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개최된 국내외 박람회의 사례 분석 ○기존자료 분석 및 관계자 면담 조사 ○SWOT 분석 등 전략개발 관련 분석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계획 검토 ○기개최된 해외박람회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분석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차별화 전략 ○우리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 ○성공적 개최 방안 도출

제 2 장 세계박람회의 성격과 성공조건

20세기 들어 국제교류의 확대와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등장으로 세계 박람회의 개최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그 개최 의의 및 기대효과에 있어서도 인식의 변화와 많은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놓인 시대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와 효과, 지향점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역사와 개최 사례를 개관해보고, 변화한 시대적 환경에서 오늘날의 세계박람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며 무엇을 지향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세계박람회의 역사 6)

1) 세계박람회의 기원

다중이 모여 문물을 전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칭 하에서 이루어졌던 인류문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BC 5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를 초청하여 잔치를 열고 상품을 전시하였다고 한다. 이는 주최자의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고 6개월에 걸친 문물의 대규모 전시와 국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 박람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1절 세계박람회의 역사는 국제사무국기구 홈페이지(www.bie-paris.org),名古屋學院大學 総合研究所(2005), 中村利雄(2007), 이민식(2004) 등과 기타 역대 세계박람회 사례에 관한 국내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국제무역이 발달하면서 몇몇 상업도시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곳에 각국의 상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물의 전시와 정보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 다양한 사상과 지식, 견해가 표출되고 평가되었으며, 각종 제조기술이 소개되고 비교되었다. 대규모 만남과 문물 교환이 인위적으로 기획되고 조직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연대감을 갖게 되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상업적 목적에서 시작된 집단적 만남이 세계박람회의 출현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9세기의 세계박람회

주최자의 의도에 의해 기획·조직된 근대적인 의미의 국제박람회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영국예술가협회 주관 하에 하이드파크에서 동년 5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94일간 계속된 이 박람회에는 25개 국, 604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였다. 당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영국은 방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제국 내 식민지 국가와 자유무역을 누리고 있었다. 1851년 런던 박람회의 대성공은 산업 발전, 자유무역의 추진, 국가 간 경쟁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후 서구 열강들이 앞 다투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1853년의 더블린(Dublin) 산업박람회와 뉴욕 박람회, 나폴레옹 3세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국력 과시의 장으로서 개최된 1955년 파리 박람회, 1862년의 제2회 런던 박람회, 세계박람회를 산업·기술·무역을 위한 견본시 성격에서 세계적 이벤트로서 정착시킨 1867년 제2회 파리 박람회, 그리고 대규모 도시 재개발과 연동하는 세계박람회의 최초의 모델이 된 빈 박람회 등이 잇달아 개최되었다.

1893년 콜럼버스 미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시카고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한 세계박람회로 미시간(Michigan) 호수 주변의

미개발 지역에 조성된 박람회장 ‘화이트시티’는 기존 도시 이미지를 일신하는 도시재개발 계획의 전본이 되었다.

3) 20세기 전반기의 세계박람회

1900년 개최된 파리 박람회는 ‘세계박람회 중의 세계박람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의 박람회장을 조성하여 19세기의 산업·기술·예술을 집대성하고 20세기의 눈부신 진보를 예감할만한 전시가 이루어져 무려 5,000만 명의 관람객이 모여 들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의 도시’ 파리를 과시할 수 있었는데 열강의 대립이 격렬해지고 세계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이 무렵의 세계박람회는 점차 개최국과 참가국에게 국력 과시의 장이 되어 갔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에서 루이지애나주(Louisiana) 매수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세계박람회는 전시가능한 모든 품목을 받아들여 박람회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으로써 관람객이 모든 전시물을 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규모가 되었다. 국력 과시의 수단으로 서구 열강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온 19세기형 세계박람회는 세인트루이스 박람회를 정점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였던 20세기 전반기에는 관람객 1,000만~2,000만 명 수준의 비교적 작은 규모 박람회가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세계박람회가 확장 일로의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준비가 부실한 박람회가 난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세기 중반 이후 팽창을 거듭해 온 세계박람회의 무분별한 개최와 부실한 준비를 규제하고 참가국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4) 국제박람회기구의 설립

세계박람회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20세기 초부터 이어져오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1928년에 가서야 결실을 보게 된다.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의해 파리에서 정부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31개국이 서명한 「세계박람회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었다. 협약 제정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세계박람회를 상업적 전시회나 기타 국제적 이벤트와 구별하는 문제와, 세계박람회의 목적과 규모, 개최 규칙, 그리고 개최국과 참가국, 전시자의 의무 등 박람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것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1928년 협약 당시 세계박람회는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로 분류되었으며 개최 방법과 규모, 빈도, 각 주체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또 협약에 따라 국제박람회기구가 파리에 설립되어 이후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BIE 협약 제1조에 따르면 박람회는 ‘공중의 교육을 위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며, 전시의 내용은 문명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수단이나 인류가 이룩한 진보의 업적, 그리고 미래 발전상 등이다. 또 동 협약 제2조에서 상업적 성격을 갖는 전시회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BIE 협약은 공익적 목적을 갖는 박람회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BIE 협약은 세계박람회를 규모와 개최 주기 등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1928년에 최초로 마련된 의정서에서는 세계박람회를 종합박람회(universal exhibition)와 전문박람회(specialized exhibition)로 구별하고, 종합박람회는 다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별하였다.⁷⁾ 그러나 1972년에 협약이

7) 1928년에 채택된 의정서에 따르면 종합박람회는 2개 분야 이상의 인간활동의 산물이나 특정 분야의 발전과정 전체를 전시하며 보편적인 주제를 갖는다. 종합박람회의 개최국은 국가관을 위해 할당된 면적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다. 종합박람회는 참가국이 자국의 파빌리온을 건축할 의무를 지닌 제1종과 참가국이 파빌리온을 건축할 의무가 없고 주최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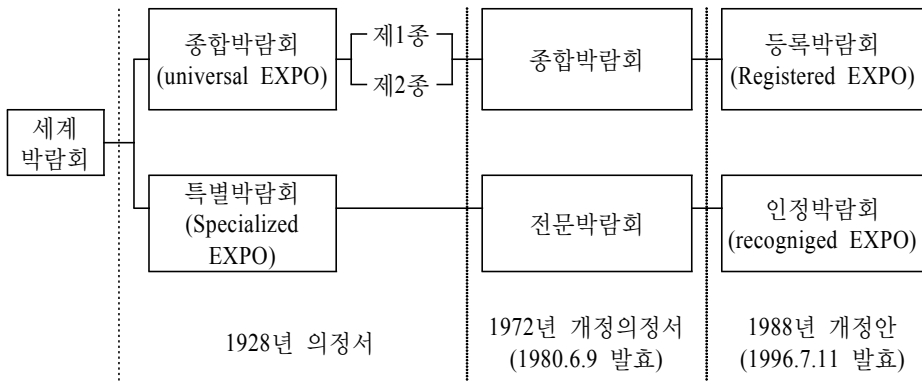
개정되면서 제1종과 제2종의 구별이 없어지고, 종합박람회와 전문박람회로만 분류되었다. 1988년에 협약이 다시 개정되면서 종합박람회는 등록 박람회로, 전문박람회는 인정박람회로 바뀌었다. 등록박람회는 5년마다 ‘0’과 ‘5’로 끝나는 연도에 개최되고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가 개최되는 중간 기간에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

| 표 2-1 | BIE 협약의 박람회에 대한 규정(제1조)

목적	- 공중의 교육을 위한 전시 (a display which, whatever its title, has as its principal purpose the education of the public)
내용	- 문명의 발전을 위해 인류에 의해 개발된 수단의 전시 (display the means at man's disposal for meeting the needs of civilisation)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서 인류가 이룩한 업적의 구현 (demonstrate the progress achieved in one or more branches of human endeavour) - 미래 발전상의 제시 (show prospects for the future)

제공하는 제2종으로 나뉜다. 1958년 브뤼셀 박람회,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 1970년 오사카 박람회는 제1종 종합박람회이고, 1962년 시애틀 박람회는 제2종 종합박람회였다. 전문박람회는 하나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다. 개최국은 파빌리온 건축비용과 전시부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참가국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 8) 1988년에 개정된 의정서에 따르면 등록박람회는 매 5년에 1회 개최되며 개최지의 부지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개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종합박람회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비로 자국 파빌리온을 건설해야 한다.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사이에 1회 개최되며, 박람회장 부지면적은 25ha 미만, 개최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제한된다. 인정박람회의 개최국은 국가관을 건설하고 참가국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 그림 2-1 | BIE 협약에 따른 세계박람회 분류체계의 변화

5) 20세기 후반기 세계박람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뤼셀(Brussels)에서 제1종 종합박람회가 개최된 1958년까지 소규모 전문박람회 외에는 세계박람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 브뤼셀 박람회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14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전후의 고도성장과 미국의 번영을 배경으로 1962년 시애틀 박람회(제2종 종합박람회), 1967년 몬트리올(Montreal) 박람회(제1종 종합박람회), 1970년 오사카 박람회(제1종 종합박람회) 등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1976년 필라델피아, 1981년 로스앤젤레스, 1989년 파리, 1992년 시카고 박람회 등 BIE의 승인을 받은 종합박람회가 잇달아 취소되었다. 대신 규모가 작은 전문박람회가 1972년의 암스텔담, 1973년 함부르크, 1975년 미국의 스포캔(Spokane)과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다. 스포캔 박람회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개최된 세계박람회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박람회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세계박람회의 위상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몇 개의 전문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982년 미국 녹스빌(Knoxville)

박람회는 개최 도시의 규모가 작아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1,10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여 흥행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하천’을 주제로 한 1984년의 미국 뉴올리언스(New Orleans) 박람회는 루이지애나주의 관광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730만 명의 관람객과 주최 조직의 파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1985년에 일본 쓰쿠바(筑波) 박람회는 쓰쿠바 연구원도시의 조성 and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약 2,000만 명의 관람객을 모아 비교적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되고 있다. 1986년 캐나다 밴쿠버 박람회와 1988년 호주 브리즈번(Brisbane) 국제레저박람회는 개최지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재개발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람회로서도 성공하고 지역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70년 오사카 박람회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박람회인 세비야(Sevilla) 박람회가 스페인에서 1992년에 개최되었다.

「발견의 시대」를 주제로 한 세비야 박람회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1986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스페인의 국위 선양과 새로운 발전을 기약한 것으로, 남부 안달루시아(Andalucia) 지역의 재개발도 박람회를 개최한 동기 중의 하나였다. 같은 해, 이탈리아 제노바(Genova)에서 ‘콜럼버스 : 배와 바다’란 주제로 전문박람회가 개최되었지만, 세비야 박람회와 주제 및 개최 기간이 겹치고 이탈리아 정부 및 재계의 지원을 받지 못해 불과 170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 표 2-2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BIE가 승인한 종합(등록)박람회

개최(예정) 연도	개최(예정) 도시	주제	관람객 수
1958	브뤼셀	과학문명과 휴머니즘	4,145만 명
1967	모스크바	승인 후 중지	-
1967	몬트리올	인간과 그 세계	5,086만 명
1970	오사카	인류의 진보와 조화	6,420만 명
1976	필라델피아	승인 후 중지	승인 후 중지
1981	로스앤젤레스	승인 후 중지	승인 후 중지
1989	파리	자유로의 길/21세기를 향하여	승인 후 중지
1992	시카고	발견의 시대(승인 후 중지)	승인 후 중지
1992	세비야	발견의 시대	4,180만 명
2000	하노버	인간·자연·기술	1,810만 명
2005	아이치	자연의 예지	2,200만 명
2010	상하이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	목표 7,000만 명

자료 : 名古屋學院大學 総合研究所, 「國際博覽會を考える : メガ・イベントの定策學」, 晃洋書房, 2005. 2. p. 9

이어서 1993년에는 우리나라 대전에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전문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 성공의 분위기를 이어 가 고자 한 정부의 의욕에 따라 정·재계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개최되었으며 1,400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1998년에는 바스코 다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항로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바다, 미래 인류의 공동 유산」을 주제로 한 리스본(Lisbon)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전문박람회로서 당초 예상했던 1,400만 명보다 적은 1,000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데 그쳤지만, 리스본 박람회는 지역 재개발과 연계하여 박람회 부지와 시설의 사후활용에 성공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6) 21세기의 세계박람회

1990년대에 들어 줄곧 BIE 탈퇴 의사를 밝혀오던 미국 정부는 상원 의회가 세계박람회 참가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2001년에 공식적으로 BIE를 탈퇴하였다. 이로써 세계박람회의 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때 고조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 BIE 등록 박람회가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외형적으로는 세계박람회의 위상이 오히려 안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는 세비아 박람회에 이어 8년 만에 등록박람회인 하노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하노버 박람회는 당초 목표로 했던 4,000만 명에 크게 못미치고 BIE가 승인한 종합박람회로서는 최소 규모인 1,800만 명의 관람객 밖에는 모이지 못해 주최 조직에 큰 적자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박람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한 대규모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정비가 하노버 시에 커다란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박람회 자체로는 실패한 대표적 사례이지만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하기도 한다.

1988년의 BIE 협약 개정으로 BIE 공인 박람회 개최 주기가 확립됨에 따라 등록박람회인 하노버 박람회와 2005년 일본 아이치 박람회 중간에 인정 박람회인 프랑스 파리 박람회가 2004년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람회 개최에 대한 프랑스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취소되고 말았다.

2005년 일본 아이치 박람회도 1997년 BIE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8년 만에 걸친 개최 준비 중 지역의 반대 여론과 환경보호단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당초 계획된 박람회 개최의 장소를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아이치 박람회는, 그러나 2,200만 명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람객 동원과 주제성을 부각시킨 전시

연출로 세계박람회의 새로운 모형 정립을 시도한 박람회로 기억되고 있다.

2008년에는 스페인 사라고사(Zara goza)에서 ‘물’을 주제로 한 인정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사라고사 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목표치 600만 명에 못 미치는 565만 명의 관람객 동원에 그쳤고 주제 구현을 위한 전시연출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어 박람회 자체로서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박람회 시설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가 일부 성공하고 있어서 박람회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더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2010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도시’를 주제로 한 등록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상하이 박람회는 아마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시의 낙후지역인 황푸강(黃浦江) 주변의 난푸(南浦) 다리와 루푸(盧浦)다리 사이에 조성될 박람회장은 그 면적이 무려 528 ha에 이른다. 2009년 10월 말 현재 190개국과 48개 국제기구의 참가가 확정되었으며, 2001년에 BIE를 탈퇴하였던 미국 정부도 상하이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 박람회의 예상 관람객 수는 7,000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국가관 건설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관 건설에 130억 엔(한화 약 1,7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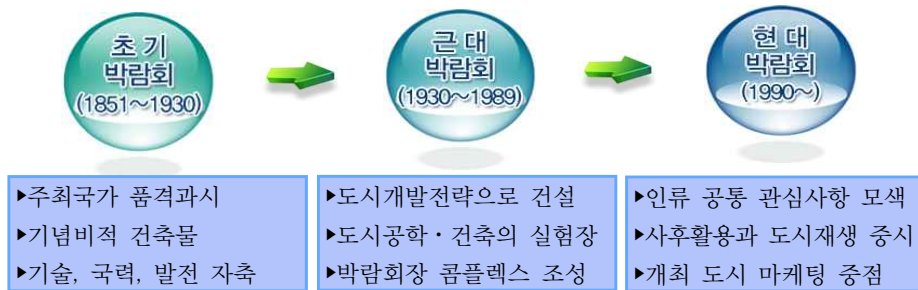
2012년 여수 박람회 이후 2015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음식’을 주제로 한 등록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7) 세계박람회의 주제별 분류

1928년 BIE 협약이 제정되기 전에는 박람회의 주제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1900년 파리박람회에서 ‘한 세기의 평가’라는 주제를 부여하긴 했지만 대부분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박람회였다.

세계박람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제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33년 시카고박람회부터이다.

세계박람회에서 다룬 주제는 인간, 미래, 과학, 환경, 해양, 우주, 농촌, 도시, 평화, 물, 에너지, 교통 등 매우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과학기술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는 해양, 에너지, 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주제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미래는 주제와 관계없이 모든 박람회를 연결하는 메시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루는 대상은 달라도 그 안에 인간과 미래를 담아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인 해양은 1975년 오키나와 박람회 이후 1990년대에만 3회에 걸쳐 주제로 선정되었다.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20

| 그림 2-2 | 세계박람회의 변천 과정

한편 박람회는 공통적으로 인류 문명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시 주제가 변하고 있다. 1930년 이전의 초기 박람회는 기술·문명개발의 시대로 국가의 과학 및 산업기술을 과시하였다. 1930~1990년대는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평화와 번영, 도시개발 전략으로 다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항을 모색하고 사후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과시’에서 ‘실용’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 표 2-3 | 주제별 세계박람회 주요 개최 현황

주제	해당 박람회
미래	1933 시카고(미국), 1939 뉴욕(미국)
과학기술	1985 플로브디프(불가리아), 1985 쓰쿠바(일본), 1988 브리즈번(오스트레일리아), 1993 대전(한국)
교통	1965 뮌헨(독일), 1986 밴쿠버(캐나다)
농업·농촌	1949 리옹(프랑스), 1953 예루살렘(이스라엘), 1953 로마(이탈리아)
도시	1947 파리(프랑스), 1956 베이트다곤(이스라엘), 1957 베를린(독일)
물	1939 리에주(벨기에), 1984 뉴올리언스(미국), 2008 사라고사(스페인)
해양	1975 오키나와(일본), 1992 제노바(이탈리아), 1992 세비야(스페인), 1998 리스본(포르투갈)
스포츠	1949 스톡홀름(스웨덴), 1955 토리노(이탈리아)
에너지	1982 녹스빌(미국)
예술	1937 파리(프랑스)
우주·항공	1936 스톡홀름(스웨덴), 1938 헬싱키(핀란드), 1962 시애틀(미국)
인간	1958 브뤼셀(벨기에), 1967 몬트리올(캐나다), 1968 샌안토니오(미국), 1970 오사카(일본), 1971 부다페스트(헝가리), 1981 플로브디프(불가리아)
직물	1951 릴(프랑스)
직업	1955 헬싱보리(스웨덴)
평화	1935 브뤼셀(벨기에), 1991 플로브디프(불가리아)
환경	1974 스포캔(미국), 2000 하노버(독일), 2005 아이치(일본)

2. 세계박람회의 목적과 개최 효과

1) 세계박람회의 위상 변화

세계박람회의 기원을 2,500년 전의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다면 세계박람회는 문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사상을 교환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이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박람회를 흔히 ‘세계 3대 이벤트’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박람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BIE가 공

인한 국제 박람회만을 가리킨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BIE의 공인 여부와 상관없이 박람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이벤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보를 전파하고자 하는 측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측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람회는 집단적 만남을 통해 대규모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효율적인 매체(media) 기능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물질문명 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변한 대중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초기 발전단계에 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새로운 기술문명과 산업의 성과를 한 자리에 집결시킨 세계박람회가 문물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매체 기능의 이벤트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했다. BIE 체제가 성립되기 전까지 세계 열강이 앞 다투어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점에서도 세계박람회가 누리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신문, TV 등 대중매체가 자리 잡으면서 세계박람회의 개최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세계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벤트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중시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박람회의 위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마침내 미국이 BIE 탈퇴 의사를 밝히게 되고, 2001년에는 미국 상원의회가 세계박람회 참가를 위한 정부의 예산 배정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은 공식적으로 BIE를 탈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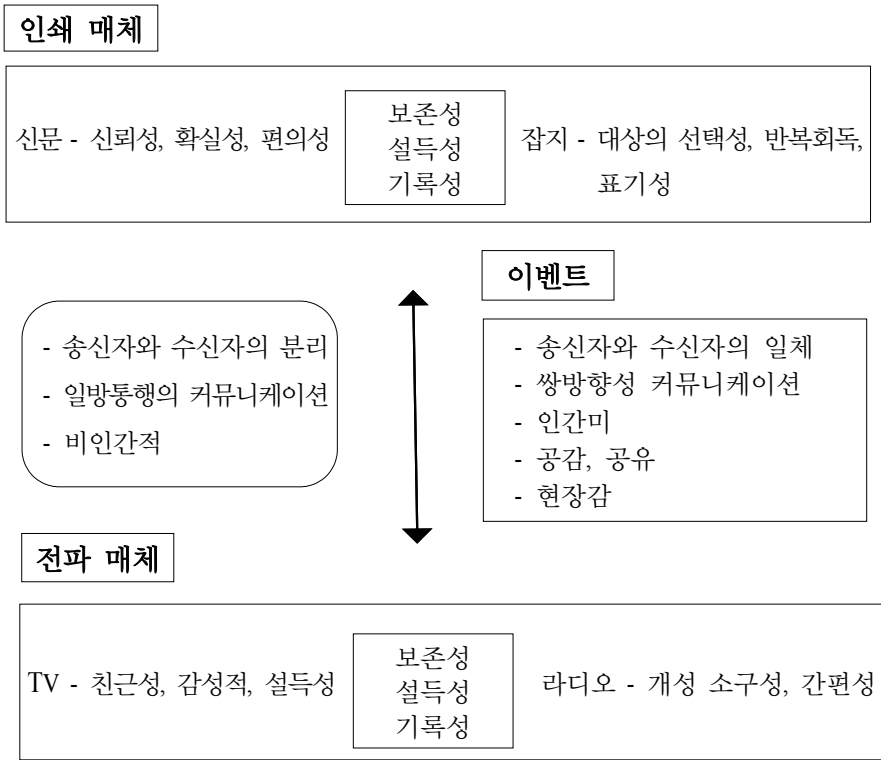
세계박람회가 치러지는 환경은 분명히 크게 변화하였다. 위성통신, 인터넷의 등장 등으로 대중매체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범위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정보교환 기능을 갖는 매체로서 세계박람회는 불과 수십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한 매체 간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박람회가 갖는 매체로서의 특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박람회는 매체로서 갖는 특성상 이벤트⁹⁾의 일종이며, 이는 현장성, 직접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송수신자 간의 일체감 등을 특징으로 하여 디지털 매체, 위성방송과 함께 오늘날 제5의 미디어로 불리고 있다.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현대인들은 개별적 자극이 가능한 매체의 특성을 찾게 되는데, 이벤트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 현장에서의 자극과 감동,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구별된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場)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직접적인 정보 전달과 체험, 반응 등을 통해 참가자에게 특정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하고 이것이 감동의 원천이 되는 ‘총체적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벤트 개최는 급증하고 있고 관련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meeting), 포상여행(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event) 등과 관련된 MICE 산업은 미국의 경우 GDP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이 되었으며, 이벤트의 일종인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1997년 이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46%나 증가하였다.¹⁰⁾

9) 이벤트의 사전적 정의는 ‘사건, 소동, 시합, 사람을 모으는 행사, 경기’를 뜻하며, 학문의 대상으로서 보다 세분화된 개념으로는 “뚜렷한 목적 하에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어떠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매체의 일종”으로 정의된다.

10) 지식경제부 외,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2009. 5. p. 221.



자료 : 김희진, 「신 이벤트의 마케팅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 42

| 그림 2-3 | 이벤트의 매체적 특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세계박람회의 위상 변화는 매체 간 경쟁 심화나 박람회가 갖는 매체로서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BIE가 규정하는 세계박람회의 모형 혹은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일반적으로 박람회는 이벤트의 일종으로 여전히 각광받는 매체의 하나로서 존재하지만, BIE 규정에 따른 세계박람회는 그 유효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박람회의 성격

세계박람회를 의미하는 ‘EXPO’는 ‘Exposition’의 준말로써 1967년 몬트리올 세계박람회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 리스본 세계박람회부터는 BIE 공인 박람회를 의미하는 공식용어가 되었다. 즉 세계박람회 혹은 EXPO는 BIE에 의해 공인된 박람회만을 의미한다.

BIE는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나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Federation of Football Association)와 달리 정부 간 기구이다. 즉 BIE는 각국의 임의단체가 아닌 정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BIE 공인의 세계박람회는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가하게 된다. BIE는 협약 제9조에 의해 비공인 박람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서, 세계박람회는 정치적 목적의 국제회의를 제외하면 국가 자격으로 개최하고 국가 자격으로 참가하는 거의 유일한 글로벌 이벤트이다. 즉 세계박람회는 주최자나 참가자가 필연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걸어야 하는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의 또 다른 특징은 공익적 목적의 이벤트라는 점이다. 세계박람회는 BIE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의 교육’을 위한 것이며, 인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인류가 개발하고 성취한 수단이나 업적,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세계박람회는 오늘날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상업적 목적의 산업박람회나 순수하게 위락을 위한 행사,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박람회와는 구별되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 세계박람회가 글로벌 이벤트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되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수용하여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의 한 모형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는 필연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개최된 세계박람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람회 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한 직접투자비만 수조 원에 달하고 박람회장 면적은 수십만 평방미터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에 이르게 된다. 또 그 방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관람객 수는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방대한 투자 규모와 관람객 수를 생각하면 세계박람회를 세계 3대 이벤트 중의 하나로 치부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대규모 투자와 건설이 박람회가 개최되는 한 지역에 집중되므로, 세계 박람회는 개최 지역의 사회경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다준다. 사실 단지 3개월 혹은 6개월간 지속되는 이벤트만을 위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최신 문물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그 독보적 위상을 상실한 20세기에 들어서는 세계박람회가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지역개발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쓰쿠바, 리스본, 하노버 박람회 등 최근에 개최된 세계박람회의 사례를 보면 박람회장이 위치하는 지역의 개발 방향이나 용도를 먼저 설정한 후 그에 부합하는 사후활용을 전제로 박람회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 표 2-4 | 세계박람회의 성격

매체로서의 성격	이벤트
기본 요건	BIE 공인 → 국가 차원의 개최 및 국가 차원의 참가
목적	대중의 교육을 위한 공익적 목적
개최 규모	직접투자비만 수조 원 달하는 메가 이벤트
성공 요건	이벤트 자체로서의 성공과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목적 실현

이와 같이 세계박람회는 근본적으로는 이벤트로서 매체적 특성을 가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고려된다. 즉 오늘날의 세계박람회는 이벤트이자 정책으로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면적 성격 때문에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벤트 자체로서의 성공 여부와 세계박람회 개최에 의한 지역개발 효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3) 세계박람회의 개최 목적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계박람회의 개최 준비에서 운영,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 직접적인 투자비만 수조 원에 이르는 국가 사업이 단지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벤트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구체적 목적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측면과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고자 함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개최국은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증진하고 대외 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이 세계박람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한 데에는 자국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국가주의적 발상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당시에는 세계박람회가 새로운 산업 기술과 상품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산업박람회의 성격도 가졌으므로 개최국은 자국 산업의 우수한 기술과 성과를 대외에 알림으로써 수출을 증진하고자 의도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개최국은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간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여 국민 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와, 박람회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재생 및 지명도 제고, 지역산업의 진흥 및 고도화를 박람회를 통해 실현하기를 바라는 목표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복합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자체의 성공과 대규모 공공 투자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정책적인 성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 표 2-5 | 세계박람회 개최의 일반적 목적

대외적 측면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외교 증진, 수출 진흥, 국력 과시 등
국가적 측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교류 확대, 국민 통합, 국민 정체성 확립, 투자 촉진 및 경기 활성화, 주제에 관한 국민 의식 고취
지역적 측면	지역 재생 및 지명도 제고, 지역산업의 진흥 및 고도화

4) 세계박람회의 효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세계박람회는 비록 그 개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국가, 심지어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남기게 된다.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박람회가 개최 전과 개최 중, 그리고 개최 후에 지역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계박람회를 비롯하여 세계적 규모의 이벤트에 대하여 그 효과를 사후에 공식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즉 이벤트의 유치단계나 준비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이 여러 가지 대의 명분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이벤트 개최의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 당초 내세운 명분과 기대효과가 실현되었는지에 관한 사후 검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이벤트 종료 후에 주최자 측은 관람

객 수와 사업수지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이것으로는 이벤트의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사실 세계박람회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의 효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수익성과 같이 지표가 명확한 요소는 쉽게 측정될 수 있지만, 박람회의 효과로는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박람회의 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효과의 종류도 지역별로 다르고, 또 그것이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다.

따라서 여러 문헌자료에서 제시되는 세계박람회를 포함한 이벤트의 효과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후 관찰에 의해 인지되거나 이벤트 추진과정에서 유추된 기대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러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세계박람회의 효과를 주최 측의 입장에서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 표 2-6 | 세계박람회의 효과

경제적 효과	지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고용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정비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이미지 및 지명도 제고, 교류 촉진, 인재 육성, 문화예술 진흥, 주제에 관한 의식 고취, 생활환경 개선
정치적 효과	국민통합, 국가적 정체성 확립, 외교 증가, 국가위상 제고 등

세계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존재한다.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며 박람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도 다르다. 정부나 정치권에 속한 이해관계자라면 정치적 효과를 중시할 수도 있으나, 지역 주민, 특히 개최 지역의 상공업 종사자라면 박람회 준비 기간 중 투자 증가에 따른 경제적 실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개최지의 일반 주민은 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국력과시의 장으로서 세계박람회가 난립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세계박람회가 지역개발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20세기 전반기부터는 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효과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사회간접자본이 축적되면서 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효용은 체감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한 측면에서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¹⁾

3.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

세계박람회가 성공했다는 것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얻고자 했던 바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박람회 개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존재하고 집단에 따라 세계박람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르므로, 세계박람회가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자체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벤트 자체의 성공은 세계박람회 성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의 성패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 이벤트 시설과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시설과 부지의 유지·보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벤트의 성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세계박람회가 오랫동안 성공한 이벤트로

11) 名古屋學院大學 総合研究所, 「國際博覽會を考える: メガ・イベントの定策學」, 晃洋書房, 2005. 2.

기억되기 위해서는 이벤트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위한 투자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은 이벤트로서의 성공과 함께 대규모 공공투자를 수반하는 정책으로서도 성공했음을 의미한다.¹²⁾ 이벤트와 정책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서만 성공한다면, 그 박람회는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억되지는 못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세계박람회의 기대효과 중에 정치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의 대부분은 이벤트로서의 성공에 의해 실현되며, 경제적 효과의 대부분은 정책으로서의 성공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세계박람회 개최에 관한 국민과 개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박람회는 국가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BIE 공인 과정을 거쳐 시설을 조성하고 박람회를 개최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이다. 이 기간 중의 경제 여건이나 정치적 상황, 사회 분위기 등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모든 여건의 변화에도 세계박람회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 주민의 지지와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¹³⁾

세계박람회의 이벤트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외형적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관람객 수이다. 그러나 관람객 수는 박람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6개월 동안 개최되는 등록박람회와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에 개최되는 인정박람회의 관람객 수의 단순 비교가 곤란하듯이, 관람객의 절대적 수치가 이벤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12) 세계박람회의 효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박람회의 성과에 대한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13) BIE 공인을 받은 후에 국민과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취소된 세계박람회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민과 주민의 부정적 여론에 따라 개최가 취소된 2004년 파리 박람회를 들 수 있다. 또 2005년 아이치 박람회도 환경 파괴를 우려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박람회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될 수는 없다. 세계박람회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수용능력이나 투자 규모 등에 따라서도 관람객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벤트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당초 주최 측이 설정한 목표 관람객 수와 실제 관람객 수의 차이이다. 등록박람회인 하노버 박람회와 아이치 박람회는 관람객 수가 약 1,800만 명과 2,200만 명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노버 박람회는 이벤트로서는 실패한 박람회로 기억되며, 아이치 박람회는 이벤트로서도 무난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하노버 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수 4,000만 명에 크게 미달한 반면 아이치 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1,800만 명을 상회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박람회의 이벤트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외형적 지표로서 참가국 수도 흔히 언급된다. 이는 국제적인 이벤트로서의 국제 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박람회 참가국 중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개최국의 지원에 의지하여 빈약한 전시내용으로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참가국 중 강대국들의 참가 정도가 국제적 이벤트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BIE에서 탈퇴한 미국의 참가 여부가 박람회의 국제적 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박람회의 국제적인 호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외국인 관람객 비율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최근에 개최된 세계박람회는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모두 5% 미만으로서 실제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세계박람회의 수익성, 즉 재정적 수지도 이벤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외형적 지표로서 자주 언급된다.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를 위한 지출은 박람회 부지 조성 및 시설 건설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투자비와 운영을 위한 경상비만 포함되며,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지출된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박람회 수입은 입장 수입과 부대사업에 의한 수

입, 사후 박람회 시설 매각 수입 등을 포함한다. 2000년에 개최된 하노버 박람회는 재정 수지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실패한 이벤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세계박람회의 이벤트로서의 성공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외형적 지표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박람회가 갖는 의미를 고려한다면 전시연출의 내용적인 면이 이벤트로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람회의 전시연출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2005년 아이치 박람회 주최 측은 박람회의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박람회 개최 기간 중과 개최 후에 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표 2-7>). 평가지표는 크게 프로젝트로서의 박람회 성과, BIE의 비전 달성 모델로서의 지속성, 새로운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 주제 개발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는데, 목표 관람객 달성도, 수익성, 해외 호응도 등을 제외하면 주로 정성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 아이치 박람회의 성과지표 체계

성과지표	측정자료
가) 프로젝트로서의 박람회 성과	-
① 편의성 및 안전성	미아 및 분실물 건수, 환자 신속지원 등
② 관람객 만족도	인터뷰
③ 목표 관람객 달성도	티켓판매량 등
④ 수익성	미측정(철거비용, 사후활용 고려 필요)
나) BIE 비전달성 모델로서의 지속성	-
① 광범위한 영향력 유지	참여국가·기구 등
② 해외 호응도	해외 VIP방문자, 해외 언론 파견 등
③ 주제 중심의 세계박람회	전시·행사, 학술행사, 심포지엄, 메달시스템 등

| 표 2-7 | 아이치 박람회의 성과지표 체계(계속)

성과지표	측정자료
다) 새로운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 주제 개발	-
① 주제선정	정성평가
② 주제 표현	첨단기술, 사회적 행동, 시민참여 등
③ 주제의 명확성 및 영향력	설문조사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내부자료, 2009. 7

내용적인 면에서 박람회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관람객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관람객 만족도는 세계박람회 주제와 연관된 전시연출의 충실성, 박람회의 분위기, 관람 편의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최근에 개최된 세계박람회에서는 전시연출에 있어서 주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노버 박람회의 경우에는 주제에 충실한 전시연출이 세계박람회의 고유성을 구현하고 관람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즉 “세계박람회는 산업전시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디즈니랜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 전시연출과 박람회 관련 이벤트를 기획함에 있어서 주제와 관련된 관람객들의 체험과 공감의 강조되었다. 이벤트로의 성공요인으로서 주제 구현의 중요성은 이후 아이치 박람회에서 강조되었고,¹⁴⁾ 상하이 박람회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박람회 분위기도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박람회 기간 중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고 집객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서 1992년에 개최된 세비야 박람회를 들 수 있다. 세비야 박람회 주최 측은 활달한 밤 문화를 가진 안달루시아 지방의 지역 풍토를 적절히 활용하여 박람회의 공식적인 관람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박람회장에

14) 아이치 박람회에서는 참가국이 주제에 충실한 전시연출을 하도록 참가국에 대한 전시연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참가국 파빌리온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하였다.

‘Night EXPO’를 개최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박람회의 축제 분위기는 관람객의 비일상적 체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박람회 참가를 위한 관람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람회 관람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박람회 참가를 위한 관람객의 전체 여행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박람회의 집객효과를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¹⁵⁾

세계박람회가 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박람회를 위한 공공 투자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바를 달성해야 한다. 한 국가가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게 되는데,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투자를 통해 그 목적의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목적의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도 찾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박람회 개최를 위한 공공 투자를 계획함에 있어서 박람회를 개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목표와 지역적 차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를 박람회 준비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한다면,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모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박람회의 정책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박람회 부지 및 시설의 사후활용 방향이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박람회장 건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어도 기술적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 가지 요건은 명확해진다. 이와 같이 세계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정책적 요인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그 요인들과 관련된 각 부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논란과 불확실성, 혼선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박람회의 운영 효율과

15) 2008년 사라고사 박람회의 경우 연계 관광상품의 부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투자의 정책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박람회 준비단계에서의 운영효율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책임성과 성공의지, 확신 등이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원활한 공조도 필요하다. 이밖에 외적 요인으로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정치사회적 여건도 박람회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을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2-4 |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

제 3 장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및 여건 분석

1.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은 1996년에 전라남도가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해양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도로 당시 해양수산부에 등록박람회인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즉 당초 여수 세계박람회는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계기로서 제안된 것이지만, 오늘날의 세계박람회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벤트이자 하나의 정책으로서 대외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목적을 갖게 된다.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국제적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세계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이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

국가적으로는 국토의 서남권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해양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류문명에 공헌하는 세계박람회의 개최국으로서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한 대칭축으로서 남해안권, 특히 서남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여수시를 중심으로 개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타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6) 해양수산부·전라남도, 「2010 해양EXPO 기본계획」, 1998. 12. p. 16.

| 표 3-1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

구분	세부 내용
국제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에 기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 역할 • 중소도시에게 박람회 개최 희망 메시지 전달
국가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균형발전 • 해양국가로서 국가적 위상 정립 • 중소도시 및 지방의 문화적 긍지 고양 • 국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
지역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안권, 특히 서남권의 발전 도모 • 새로운 물류 및 경제활동 중심지로 도약 • 관광개발 측면의 새로운 지역개발 사례 제시

여수 세계박람회는 지역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구체적인 개발 지역이나 방향이 사전에 전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이후 정부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해당 자치단체가 제시한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사전에 전제하고 그 수단으로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최근의 경향과는 다른 것으로서,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다소 막연한 기대감이 사업 추진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는 박람회 개최 준비와 함께 박람회 시설 및 부지의 사후활용 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이는 박람회의 장기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경과

1996년에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의 건의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라남도 내 개최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 용역기관은 당시 전라남도의 각 시·군이 제시한 12개 지역 중에서 여수시 소라면 일대를 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1999년 6월에는 국무회의에서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년 11월에 2010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수행된 2010 여수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가 여수신항 일대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소라면 일대가 수산법상 수산자원보전구역으로, 또 인근 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박람회장을 조성할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라면 지역이 도시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132차 BIE 총회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중국의 상하이가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등록박람회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망에 따라 2010년 등록박람회 이후에 개최되는 인정박람회로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국무회의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1월에 전라남도과 여수시가 각각 ‘지방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유치기획단을 설치하여 유치기반 조성과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2006년 3월에는 국회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지원하였다. 2006년 5월에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동원그룹회장)가 공식 출범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개최 후보지에 대한 BIE의 실사가 지역 주민의 열렬한 성원 아래 실시되어 BIE 심사단의 호평을 얻었다. 그리고 민·관이 합작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11월 27일에 개최된 제142차 BIE 총회에서 경쟁국인 모로코를 제치고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되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여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후 2008년 3월에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 여수 박람회 개최 준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표 3-2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

일정	세부 내용
1996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부에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 유치 건의
1999. 6	국무회의에서 2010 세계박람회(등록)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
1999. 3	201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일대 선정
2000	유치후보지를 소라면 일대에서 여수신항 지역으로 변경
2002. 12	제132차 BIE 총회에서 201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2004. 12	국무회의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인정) 재추진 결의
2006. 5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출범
2006. 5	유치신청서 제출
2007. 4	BIE 현지실사
2007. 11. 27	제142차 BIE 총회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2008. 3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

여수 세계박람회는 제안부터 개최까지 무려 16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박람회 유치가 제안되었던 1996년 이후 두 번의 국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그동안 산업과 문화, 소득수준 등 각 방면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당초 의도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의 개최 취지가 크게 희석되지 않

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여수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세계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따른 자국 내 반대 여론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중단된 사례가 외국에서 적지 않게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후변화, 자원위기, 경제침체 등으로 해양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선진국들의 해양정책 강화로 오히려 그 개최 의미가 부각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3. 개최지 여건 분석

1) 지리적 여건

여수시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중앙지점에 입지하여 가까이는 동쪽으로 경남 남해군과 서쪽으로 고흥반도, 그리고 북쪽으로 순천시와 접하고 있다. 바다를 건너 서남쪽으로는 제주도, 중국, 동남쪽으로는 일본이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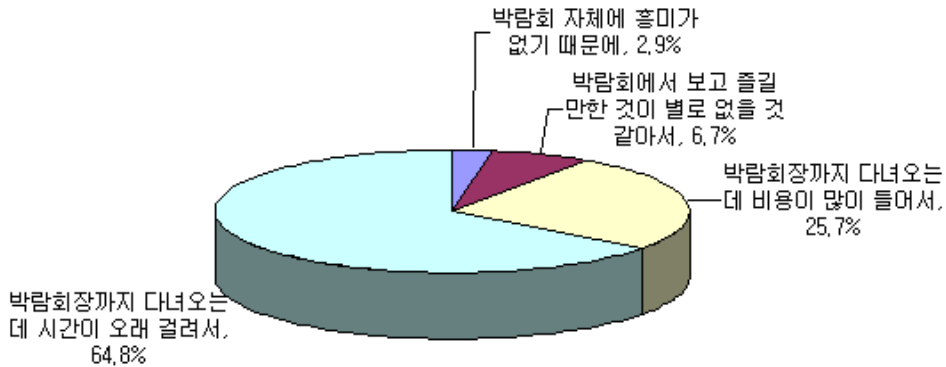
서울과 직선거리는 약 320km 거리이며, 대전 180km, 부산 140km, 광주 9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 약 30km 이내에 순천, 광양, 남해 등이 있고, 100km 내에는 광주, 진주, 마산 등이 위치해 있다.

한편 여수신항에 조성될 박람회장은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덕양리, 주삼동, 호명동, 돌산읍 일원에 걸쳐 있으며, 전시시설 면적은 25ha, 총면적은 174.5ha에 달한다. 여수공항으로부터 17km, 시청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람의사를 조사한 결과¹⁷⁾에

17) 설문조사 기간은 2009년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 15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관람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박람회장까지 다녀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8%에 달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당시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일이 3년 가량 남아있는 시점에서 홍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망 확충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3-1 | 여수 세계박람회를 관람하지 않겠다는 이유

2) 자연적 여건

여수시는 온난 다습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은 14.6℃로 우리나라 도시 평균기온(10~16℃)¹⁸⁾보다 높은 편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552mm이지만 최대(2,176mm)와 최소(1,023mm)의 차가 1,000mm 이상으로 연도별 편차가 크다. 연평균 습도는 64.9%로 다습한 편이고, 연평균 일조시간은 2,199시간으로 연중 25%에 해당한다. 연평균 풍속은 4.3㎧이다.

18) 전계서, p. 23.

| 표 3-3 | 연평균 기상 개황(1997~2007)

연도	기온 (℃)	강수량 (mm)	습도 (%)	일조시간 (시간)	풍속 (m/s)
1997	14.6	1,524.9	68	2,438.5	4.0
1998	15.4	1,695.9	69	2,163.6	4.3
1999	14.6	2,078.2	69	2,322.8	4.2
2000	14.3	1,237.7	61	2,320.7	4.5
2001	14.8	1,023.3	58	2,243.8	4.6
2002	14.9	1,610.3	67	1,986.7	4.6
2003	14.5	2,176.4	65	1,934.4	4.6
2004	15.0	1,433.5	61	2,241.2	4.4
2005	13.7	1,220.0	65	2,258.4	4.6
2006	14.3	1,561.7	66	2,124.7	4.0
2007	14.6	1,512.4	65	2,153.7	4.0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

한편 개최 기간이 포함된 5월부터 8월까지를 중심으로 월평균 기상 개황을 살펴보면, 먼저 월평균 기온은 5월부터 8월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이 25.7℃로 가장 높고 최고기온은 32℃를 웃돌고 있다.

5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강수량은 연중 강수량의 64%를 차지하는 가운데, 7월이 가장 많은 331.8mm를 기록하였다. 5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습도는 70%를 넘고 있으며, 월평균 일조시간과 월평균 풍속은 다른 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수 박람회 개최 기간 중 관람객 집객과 재해대책 수립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태풍을 들 수 있다. 지난 38년간(1971~2008년) 발생한 태풍은 연평균 26.1개였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연평균 3.3개였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태풍이 75.8%(연평균 2.5개)를 차지하고 있어, 전시관 건축, 조정, 배수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특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표 3-4 | 월평균 기상 개황(1997~2007)

월	기온 (℃)	강수량 (mm)	습도 (%)	일조시간 (시간)	풍속 (m/s)
1	3.0	22.2	53	182.5	5.5
2	4.6	40.3	53	183.5	5.0
3	8.4	69.2	56	203.0	4.8
4	13.6	129.4	63	201.0	4.4
5	18.0	157.0	70	200.8	3.9
6	21.0	229.1	76	164.2	3.5
7	24.1	331.8	84	140.5	3.8
8	25.7	281.6	80	173.1	3.8
9	22.5	165.2	72	169.0	4.9
10	17.6	55.5	61	203.4	4.4
11	11.5	47.0	58	185.8	4.4
12	5.5	22.4	53	193.0	4.9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

| 표 3-5 | 태풍 발생 현황(197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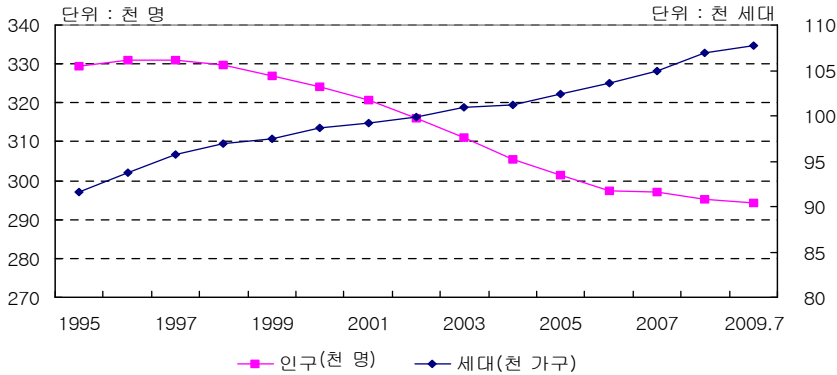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태풍 발생	수 (개)	17	5	12	28	43	66	149	209	180	142	93	47	991	26.1
	비중 (%)	1.7	0.5	1.2	2.8	4.3	6.7	15.0	21.1	18.2	14.3	9.4	4.7	100	-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수 (개)	0	0	0	0	1	10	37	46	27	3	0	0	124	3.3
	비중 (%)	0	0	0	0	0.8	8.1	29.8	37.1	21.8	2.4	0	0	100	-

자료 : 기상청 홈페이지(web.kma.go.kr)

3) 사회경제적 여건

여수시는 전남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그러나 1996년 33만 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7월 말 기준 29만 4,41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근의 순천, 광양을 합친 3개 시의 인구는 7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에 여수시의 세대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9년 7월 말

기준으로 10만 7,753세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가구당 인구수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

| 그림 3-2 | 여수시 인구 및 세대 수 변화(1995~2009. 7)

한편 여수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에 대해 입지계수를 계산해 보았다.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s : LQ)¹⁹⁾는 국가 전체적인 총고용에서 특정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어떤 지역의 총 고용에서 그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경우 그 지역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고, 1보다 작을 경우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2007년 산업별 취업자 수를 바탕으로 여수시의 입지계수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입지계수가 21.3으로 특화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

19) $LQ_{ir} = \left(\frac{E_{ir}}{E_r} \right) / \left(\frac{E_{in}}{E_n} \right)$

(단, E_r 은 지역 r 의 총고용, E_{ir} 은 지역 r 의 산업 부문 i 에 대한 고용,
 E_n 은 국가 전체적 총고용, E_{in} 은 국가 전체적인 산업 부문 i 에 대한 고용)

경복원업'(4.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6), '건설업'(3.4)도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 반면에 '전산업'(0.0), '광업'(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9)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 | 여수시 입지계수 현황(2007년)

산업 분류	입지계수
전산업	0.0
농업, 임업 및 어업	21.3
광업	0.5
제조업	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4
건설업	3.4
도매 및 소매업	2.0
운수업	2.2
숙박 및 음식점업	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7
금융 및 보험업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
교육 서비스업	2.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07), 여수시 통계연보(2007)

결론적으로 여수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정보화와 R&D같은 첨단 분야는 발달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의 유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시는 교통수단은 다양한 데 비해 접근성은 취약한 편이다. 2007년 기준 여수시의 도로 연장 총길이는 904.7km이고, 그 중 시·군 도로

가 727.8km로 80.4%를 차지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로 포장률은 62%로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박람회를 대비해 국가 간선도로망과 3개의 연계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표 3-7 | 여수시 도로시설 현황(2007년)

구분	계 (m)	포장 (m)	포장률 (%)	미포장 (m)	미개통 (m)
합계	904,700	558,703	62	92,760	253,237
고속도로	-	-	-	-	-
일반국도	109,700	88,980	81	-	20,720
지방도	67,200	37,800	56	12,300	17,100
시·군도	727,800	431,923	59	80,460	215,417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2007)

철도교통은 전라선, 여천선, 경전선이 있는데, 박람회 개최 전까지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순천)와 경전선 복선화가 계획되어 있다. 항공교통은 서울, 제주 2개 노선이 운항 중이며, 여수공항 확장공사로 중형항공기 취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상교통은 여객선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안도서, 부산, 통영, 거문도, 제주 구간이 운항 중이다.

4) 관광자원 현황

여수시는 수려한 해안과 도서 등을 비롯해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비롯해 역사문화 관광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먼저 자연자원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펼쳐져 있어 다양한 유람선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으며, 13개에 이르는 해수욕장과 317개의 도서 등 경관 우수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 표 3-8 | 여수시 주요 관광자원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자연자원	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수욕장	만성리검은모래해변, 방죽포해수욕장, 거문도(유립)해수욕장, 사도해수욕장, 안도해수욕장, 서도(이금포)해수욕장, 장등해수욕장, 나진해수욕장, 모사금해수욕장, 신덕해수욕장, 손죽해수욕장, 대동해수욕장, 정강해수욕장
	산	영취산, 구봉산, 금오산 등
	섬	오동도, 초도, 돌산, 금오도, 사도, 낭도, 거문도, 백도, 손죽도, 백야도, 경도, 거문도 등
	기념물	은적암 난대림, 방풍림, 동백림, 죽도 백로 도래지 등
사회문화자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15개, 지방지정문화재 11개, 문화재자료 11개,
	사찰	흥국사, 향일암, 한산사, 은적암, 용문사, 석전사 등
	공원	진남체육공원, 종포해양공원, 자산공원, 선사유적공원, 돌산공원, 거북선공원 등
	박물관/유적지	전남해양수산과학관, 임난유물전시관, 충무공자당기거지, 장군도수중성, 무술목 전적지,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단지, 손양원목사 순교기념관, 반잠수정전시관, 하멜등대 등
	문화공간	여수시민문예회관, 여수시공예품전시판매장 등
	레저	소호요트장, 디오션리스트
	축제	영취산 진달래축제(4월), 국제범선축제(5월), 거북선 대축제(5월), 국제청소년축제(7월), 서문도 백도 은빛바다축제(8월), 여자만 갯벌노을축제(9월), 세계불꽃경연대회(11월), 향일암 일출제(12월)
	먹거리 골목	국동 잠수기 장어탕 거리, 덕양 곱창 거리, 사곡 차와 노을 거리
	특산품	돌산갯김치, 금풍쟁이, 서대회, 갯장어회(하모), 굴구이, 한정식 등
	체험마을	소울어촌체험마을
산업자원	해상관광	다양한 유람선 관광노선 운행
	항구 등	국동항, 여수신항, 여수구항, 여수여객선터미널 등
	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자료 : 여수시 홈페이지(yeosu.go.kr), 단 문화재는 여수시 통계연보(2007)

사회문화자원으로는 국보 304호인 진남관을 비롯해 37개의 문화재가 있고, 흥국사, 향일암 등 사찰도 풍부하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 대축제(진남제)를 비롯해 7개의 축제가 계절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돌산갯김치, 금풍쟁이, 갯장어회(하모) 등은 특산품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

다. 산업자원으로는 유람선 관광과 함께 국동항, 여수 신·구항, 여객선터미널,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다음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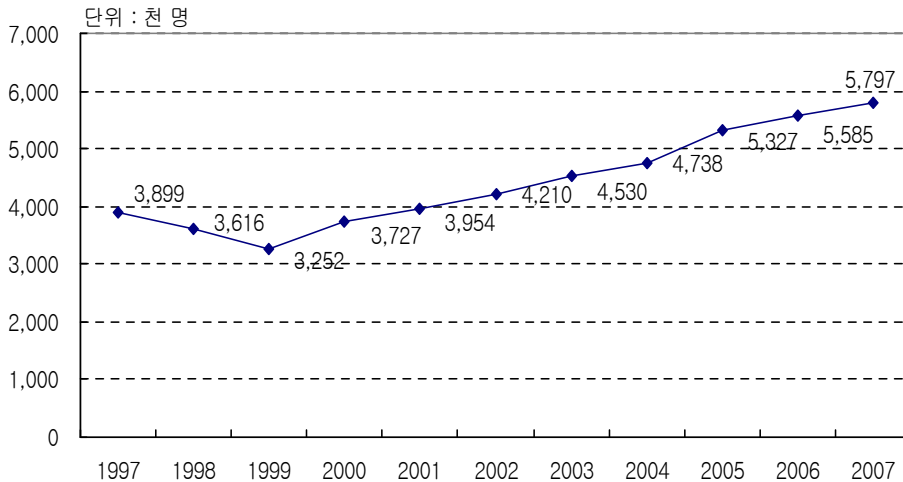


자료 : 여수시 홈페이지(yeosu.go.kr)

| 그림 3-3 | 여수시 주요 관광지 현황

한편 여수의 우수한 관광자원은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2007년에 여수시를 방문한 연간 관광객 수는 580만 명 수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9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여수시의 관광객 수는 2012년경에는 세계 박람회 관람객을 제외하고도 연간 70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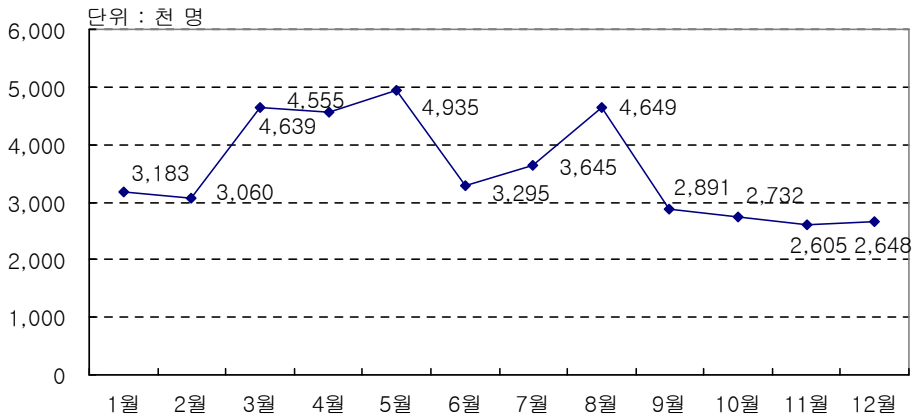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

| 그림 3-4 | 여수시 방문 연간 관광객 수(1997~2007)

과거 10년간 월평균 관람객 수(1996~2006년 기준)는 가장 많은 달이 5월로 4,935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1월로 2,605명이었다. 박람회 개최 기간 인 5월부터 8월까지 관람객은 연중 관람객의 38.6%를 차지하고 있는데, 5월과 8월은 4,500명 이상이 방문하지만 6월, 7월은 이보다 1,000명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6~7월에 관람객이 적은 이유는 장마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기에 대비한 편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입장료 차별화 등과 같은 관람객 유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Big-O 장기발전구상」, 2009. 4. 30. pp. 236~237.



자료 : 여수시 통계연보

| 그림 3-5 | 여수시 방문 월평균 관광객 수(1997~2006)

4. 개최지 발전전략

1) 상위 발전계획

여수시를 포함한 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남해안 선벨트 구상」,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수정계획(2008~2020)」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서는 우리나라를 7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호남권에 대해서는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추진방향은 세계수준의 해양문화·관광 레저벨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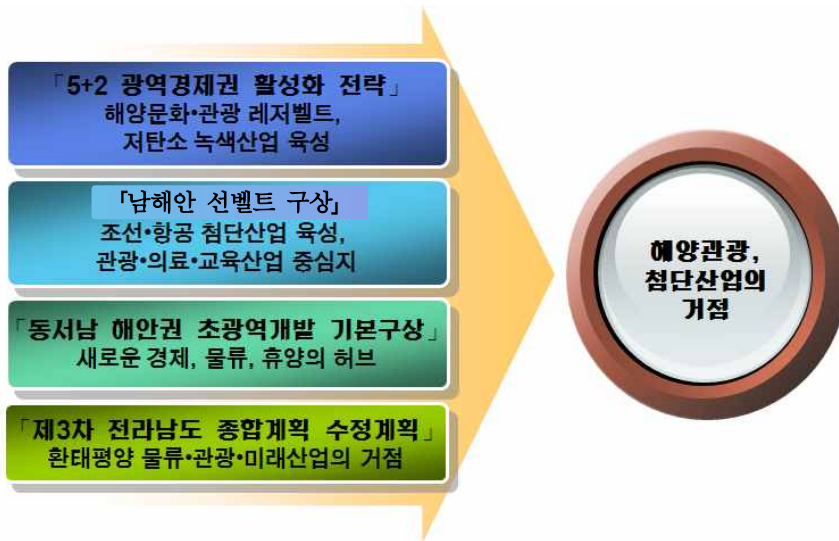
「남해안 선벨트 구상」에서는 남해안 지역을 남충권, 부산권, 목포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등 6개 시·군을 포함하는 남충권에 대해 조선·항공 등 첨단산업과 관광·의료·교육

산업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동·서·남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서는 부산, 경남, 전남과 제주를 포함하는 남해안 해안권을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로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화,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화, 통합 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동서통합 상징지역으로의 남중권 개발 등이 있다. 여수에 대해서는 국제관광위락단지 개발, 해상영웅벨트 조성, 거점 마리나 조성 등 문화와 관광, 첨단기술·연구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에서는 전라남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을 포함하는 동부권에 대해 환태평양 물류, 관광,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여수에 대해서는 남해안 해양관광·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중해형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설, 역사·문화자원과 해양휴양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관광문화도시 건설, 균형적인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선진 도시기반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보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방안의 핵심은 여수를 비롯한 남해중부권을 해양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6 | 상위계획에 나타난 남해중부권 발전 방안

2) 여수시 발전계획

그동안 여수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수립·추진해 온 계획은 「2025 여수도시기본계획(2006~2025)」,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1~2020)」, 「2020 비전과 전략계획」,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대비 여수시 도시발전 종합계획(2008~2012)」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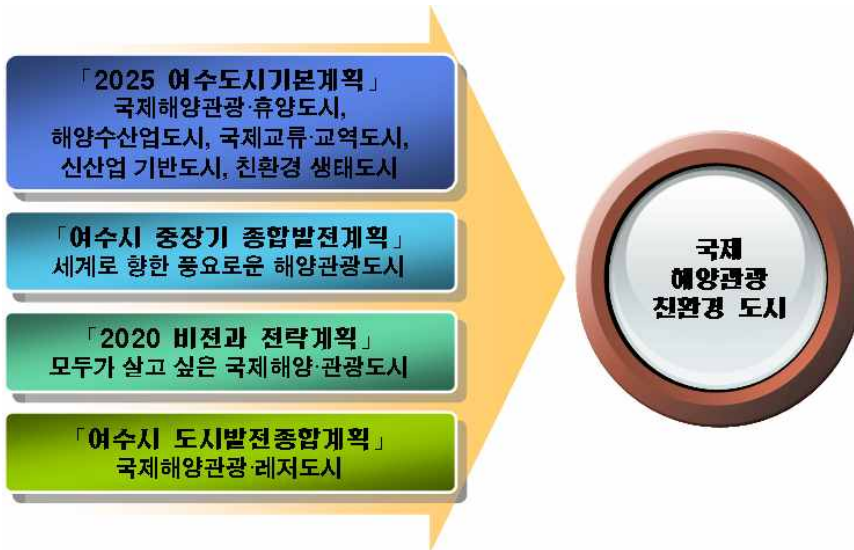
「2025 여수도시기본계획(2006~2025)」에 의하면 여수의 미래상을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해양수산업도시, 국제교류·교역도시, 신산업 기반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제시하고 있다.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1~2020)」에서는 여수의 미래 비전을 ‘세계로 향한 풍요로운 해양관광도시 여수’로 설정하였으며, 2007년에 수립한 「2020 비전과 전략계획」에서는 ‘모두가 살고 싶은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2008년에 수립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대비 여수시 도시발전종합계획

획(2008~2012)」에서는 도시발전 비전을 ‘국제해양관광·레저도시’로 정하고, 국제해양관광·레저도시, 환태평양 경제권 중심도시, 블루레코시티, 친환경적 녹색도시, 해양연구 거점도시라는 5개의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수시의 주요 발전계획에 따르면 여수시의 미래상을 대표하는 핵심은 국제, 해양, 관광, 친환경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7 | 여수시 도시발전계획에 나타난 여수시 발전 방안

한편 여수시는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이 리우선언 20년째가 되고, 교토의정서 채택 15년째가 되는 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수 박람회가 인류에게 남길 유산인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후보호는 기후변화대응보다 발전적, 적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기후를 보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비하겠다는 개념이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2008년 5월 31일 환

정부, 전라남도과 함께 2012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6대 실천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9 | 여수시 기후보호도시 추진 방안

구분		세부 내용
미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비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실현 및 친환경도시 건설
6대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 친환경도시 기반 구축 • 친환경에너지 도시 조성 • 탄소흡수원 확충 •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충 • 기후변화대응 홍보 및 지원
중장기 로드맵	1단계 (도입기) (2008년 7월 ~2009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과·소 과제 발굴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 2009년 여수선언의 비전수립 예산 반영 - 기후변화 관련 주민 및 공직자 교육·홍보 - 기후보호 관련 조례제정 -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등
	2단계 (발전기) (2009년 7월 ~2010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델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연안구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장 개설·운영 - 탄소시장 개설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활성화 - 기후변화대응 시범마을 조성 - 2012세계지구정상회의 또는 당사국 총회 유치계획 수립
	3단계 (완성기) (2011년 1월 ~2012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후보호 대응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친환경적 개최 여건을 완벽하게 구축 -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 기후보호 관련 유엔 국제세미나를 유치하고 여수프로젝트 및 여수선언과 연계해 기후보호사업 테스트베드(Test Bed) 추진 - 국내외 환경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모델로서 2012세계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계획

자료 : 여수시 홈페이지(yeosu.go.kr)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수시는 2008년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박람회 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모델 구축과 박람회 개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후보호 국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여수비전」을 선포하였다.

5. 개최지 SWOT 분석

지금까지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목적과 추진과정, 개최지의 입지여건, 관광자원 현황, 개최지 발전전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점(Strength)으로는 여수시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남해안 도시들 중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들 수 있다. 여수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약점(Weakness)은 국토 최남단에 위치해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먼데다 도로망이 부족해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수시 인구가 30만이 안 되고 주변에 대도시가 없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한편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과 함께 중국,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그리고 해양관광·레저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SOC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과 동시에 여수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지역개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이다. 반면 위협(Threat)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박람회 개최 기간 중 더위, 장마 등 관람회피 요인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 의미의 퇴색, 축제, 이벤트 등 박람회 대체행사의 범람 등도 관람객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점과 기회는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은 보완하는 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강점-기회 활용 전략으로는 성공적인 주제 구현,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 여수 도시발전계획의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약점-위협 보완 전략으로는 교통망 확충, 홍보 강화,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개발, 재해방지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10>과 같다.

| 표 3-10 | 개최지 SWOT 분석결과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 •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 보유 • 남해안 중심부 위치 • 국가 산단 입지로 도시경쟁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최남단 위치 • 배후에 대도시 부재 • 인구 29만의 중소도시 • 간선 및 연계 도로망 부족 • 해양성 재해에 취약한 부지 	
기회(O)	기회와 강점 활용 전략(OS)	위협과 약점 보완 전략(TW)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는 주제 선정 • 중국, 일본의 중간에 위치 • 해양관광 · 레저 수요 증가 • SOC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 도시개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적인 주제 구현 • 시민, 기업 참여 프로그램 발굴 • 박람회 개최 성과의 지역민 소외 방지 • 한류문화 활용,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 도시개발 전략과 사후활용계획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 쌍방향 홍보매체 발굴 및 홍보 강화 •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스타 프로젝트 발굴 • 재해방지 및 편의 시설 확충 • Outdoor 프로그램을 인근지역으로 까지 확대 • 여수만의 특화된 도시발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 박람회 개최 환경 변화 • 박람회 경쟁대상 (축제, 이벤트 등) 증가 • 더위, 장마 등 관람회피 요인 • 남해안 지자체 간 도시발전방향 차별화 미흡

제 4 장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제3장에서는 21세기에 들어 개최되었던 세계박람회와 과거 ‘해양’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세계박람회의 사례를 조사하여 각 박람회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였다. 비록 과거에 개최되었던 세계박람회가 개최 목적과 여건에 있어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큰 차이가 있겠지만, BIE가 규정하고 있는 세계박람회의 공통적 요건에 따른 이벤트라는 점에서 과거에 개최된 세계박람회의 사례 분석은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세계박람회의 평가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박람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박람회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보도자료나 기록물 작성자의 견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또 각 박람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는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박람회 종료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세계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여론과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 성공요인과 실패 요인으로 대별하여 필요한 교훈만을 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1. 분석대상 세계박람회

세계박람회는 1851년 런던 박람회를 시초로 2008년 사라고사 박람회까지 총 106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모든 박람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의미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크게 i) 20세기 이후에 개최한(할) 박람회, ii) 해양을 주제로 한 박람회, iii)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박람회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박람회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분석은 편의상 <표 4-1>에 정리된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 표 4-1 | 분석대상 박람회 현황

구분	개최지	성격	개최 기간	주제
20세기 이후의 박람회	하노버(독일)	등록	2000. 6. 1 ~ 10. 31	인간과 자연과 기술
	아이치(일본)	등록	2005. 3. 25 ~ 9. 25	자연의 예지
	사라고사(스페인)	인정	2008. 6. 14 ~ 9. 14	물, 지속가능한 발전
	상하이(중국)	등록	2010. 5. 1 ~ 10. 31	더 나은 삶, 더 나은 도시
해양이 주제인 박람회	오키나와(일본)	전문	1975. 7. 17 ~ 1976. 1. 18	우리가 보고 싶은 바다
	세비아(스페인)	종합	1992. 4. 20 ~ 10. 12	발견의 시대
	제노바(이탈리아)	전문	1992. 5. 15 ~ 8. 15	배와 바다
	리스본(포르투갈)	인정	1998. 5. 22 ~ 9. 30	바다 : 미래를 위한 유산
우리나라 박람회	대전(한국)	인정	1993. 8. 7 ~ 11. 7	새로운 도약의 길

자료 : 세계박람회기구(BIE) 홈페이지(www.bie-paris.org)에서 요약 정리

과거 세계박람회의 사례는 이벤트 측면과 정책 측면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이벤트 측면에서는 관람객 및 참가국 수, 홍보, 전시연출, 회장 조성, 운영실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측면에서는 주로 개최 목적과 연계하여 사후활용, 이미지 제고, 지역개발 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박람회 사례 분석은 박람회에 대한 공식 평가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각종 문헌, 언론매체 등 간접적인 자료를 많이 참조하였다.

2. 최근 개최된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1) 하노버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하노버 세계박람회는 등록박람회로서 2000년 6월 1일부터 153일간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160개국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으나, 관람객은 1,800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인간-자연-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일, 교통, 지식, 건강, 에너지, 환경, 인류의 기본적 욕구, 영양, 인류, 21세기, 지구의 비전 등 11개의 하위주제를 선정하였다. 종합박람회지만 통상 환경박람회로 분류되고 있다.

표 4-2 | 하노버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sitions)
	명칭	Universal Exhibition Hannover 2000
	기간(일자)	2000. 6. 1 ~ 10. 31(153일)
규모	회장면적	160ha
	관람객	1,800만명(1일 평균 1만 1,647명)
	참가국	국가 : 160개, 국제기구 : 22개
주제	상위주제	인간, 자연, 기술(Mankind, Nature, Technology)
	하위주제	일, 교통, 지식, 건강, 에너지, 환경, 인류의 기본적 욕구, 영양, 인류, 21세기, 지구의 비전
주요 특징		통독 10주년 기념, 새천년 최초의 박람회, 독일 최초의 박람회

하노버 박람회는 통독 10주년²¹⁾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독일 최초의 박람회라는 의미가 있다. 독일은 국제적 규모의 일반 박람회를 연 간 130여 회 개최하는 박람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박람회는 개최한 적이 없었다. 영국, 프랑스가 산업혁명 때부터 경쟁적으로 세계박람회를 개

21) 통독 기념일 : 1990년 10월 3일.

최해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하노버 박람회가 시드니 올림픽과 함께 새천년 메가 이벤트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2) 개최 목적

하노버는 지리적으로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하노버는 독일 근대 공업기술의 발상지이자 이 지방의 언어가 현대 독일어의 표준어가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세계 최대의 IT견본시인 CeBIT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비즈니스 도시로도 유명하다.



| 그림 4-1 | 하노버의 위치

세계박람회는 런던 박람회와 파리 박람회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의 진보와 세계의 문물을 과시하는 박물관적인 기능과 국력을 과시하는 정책적 기능의 이미지가 있어 전통적으로 메세(Messe)를 중시하는 독일에는 수용되지 못했었다.²²⁾ 그러나 통독이 되면서 하노버가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메세 도시의 구상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계획이 활기를 띄게

22) 名古屋學院大學 綜合研究所 編, 「國際博覽會を考える」, p. 146.

된 데다, 스페인 세비아 박람회(1992), 이탈리아 제노바 박람회(1992), 포르투갈 리스본 박람회(1998)의 개최로 오랜만에 유럽에서 박람회가 활기를 회복하면서 독일이 박람회 개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하노버로 결정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동서로 갈라지자 하노버가 서독의 번두리에 위치함에 따라 개발이 뒤떨어지게 된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독일 및 EU 내에서 증폭되어가는 도시 간 경쟁 속에서 최대 규모의 건본시 회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메세 또는 메가이벤트 도시로서 하노버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²³⁾ 이미 하노버에는 건본시로서 많은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었지만, 지역개발과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우수한 점

하노버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 44개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48개국, 아메리카 28개국, 아시아 33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등 총 160개국이 참가하였으며, 국제기구도 UN을 비롯하여 22개가 참가했다.

한편 하노버 박람회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건축물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건물 자체를 통해서도 주제를 구현하고 이벤트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주최국인 독일관이나 일본관, 네덜란드관은 박람회의 유명전시관이 되었다. 독일관은 최초로 유리 자재를 건축물의 기둥으로 사용하였는데, 최신기술을 이용한 건축물로 자연과 기술의 혼합체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일본관은 목재 프레임과 재생용지를 사용해 건물 전체를 종이로 건립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데 주력하였다. 네덜란드관은 건물 안에

23) 상계서, p. 148.

살아있는 나무를 끌어들이어 각 층을 꿰뚫는 구조로 지었으며, 각 층에는 강이나 숲, 모래언덕, 농지, 혼합림, 바다 등 네덜란드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관람객은 물론 건축가들까지 열광시켰다.

하노버 박람회는 기존의 하노버 무역전시장을 리모델링한 박람회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다. 즉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최소한도로 하고 가능한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하노버는 환경이 잘 보전된 녹색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하노버 박람회는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주제와 연계함으로써 개최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1974년 미국 스포캔 박람회에서 환경이 처음 주제로 선택된 이후 21세기 전환기로 들어서면서 그 목소리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다.²⁴⁾ 하노버 박람회는 30여년 만에 다시 환경을 주제로 채택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가 걸린 환경에 대해 세계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미흡한 점

하노버 박람회는 대체로 실패한 박람회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하노버 박람회는 이벤트로서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람회 주최 측은 당초 4,000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관람객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미국의 참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흥행 실패로 입장권 판매가 부진하자 적자액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0억 달러(약 1조 1,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노버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입장객 수를 잘못 예상했고, 해외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구 약 54만 명의 중소도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나, 입장권 가격을 너무 비싼 28달러(약 2만 7,000

24) 전계서, p. 168.

원)로 책정한 것도 관람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²⁵⁾

이렇듯 하노버 박람회가 부진했던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지역사회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하노버 무역전시장을 개조해 주 전시장으로 사용했지만 박람회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신규 건축물 축조가 불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환경을 주된 주제로 설정했으면서도 과도한 투자와 반환경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등하면서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막식 당일까지 박람회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주제 구현 실패도 중요한 원인이다. ‘인간-자연-기술’이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었던 데다, 11개에 이르는 하위주제들은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박람회 주제를 모호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주제와 전시의 연계성 부족도 흥행 부진으로 이어졌다.

박람회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개막식 당일까지 상징탑이나 일부 전시관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베네수엘라관의 경우 내부장치 지연으로 박람회 개장 후인 6월 19일에야 개관했다. 교통수단, 휴게공간 등 각종 관람편의시설도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하노버 박람회는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50여 개의 전시관이 남아있는데, 박람회가 끝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사후활용이 안된 채 방치된 건물이 60%에 이르고 있다. 가령 중국관의 상징물인 용(龍) 조형물은 한 상점의 아이스크림 거치대로 쓰이고 있고, 하노버 박람회의 유명전시관이었던 네덜란드관도 쓰레기, 낙서가 뒤범벅되어 방치되고 있다. 전시관이 노숙자 숙소로 쓰이거나, 곳곳에 위험물이 노출된 채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 우범지대로 변해가는 실정이다.²⁶⁾

25) “개최 도에서 배운다-흥행실패 ‘반면교사 하노버’”, 광주일보, 2008. 3. 10.

26) KBS, EXPO 성공신화의 해법, 2008. 9. 25.



2000년 박람회 당시



2009년 현재

| 그림 4-2 | 네덜란드관의 과거와 현재 모습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미흡한 주된 원인은 기존의 전시장을 재활용하기는 했으나 이벤트로서 규모에 집착한 나머지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제 구현과 지역사회의 호응도 결집에 실패함에 따라 박람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사후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2) 아이치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일본은 아이치 박람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1970년부터 20년간 4회의 세계박람회를 개최하였다.²⁷⁾ 아이치 박람회는 일본에서 열리는 다섯 번째 세계박람회로 1997년 6월 유치에 성공, 2005년 개최까지 8년의 준비기간이 걸렸다.

27) 오사카 박람회(1970), 오키나와 박람회(1975), 쓰쿠바 박람회(1985), 오사카 박람회(1990).

아이치 박람회는 등록박람회로서 2005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185일간 나고야시(名古屋)의 나가쿠테(長久手)와 세토(瀬戸), 두 구역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당초에는 세토섬 전체를 개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축소하고, 환경피해가 적은 나가쿠테 지역을 중심으로 173ha의 박람회장을 조성하였다.

121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으며, 관람객은 2,200여만 명으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자연의 예지’를 주제로 한 아이치 박람회는 21세기 지구촌의 화두인 환경을 주제로 하면서 훼손되어가는 지구환경과 인류문명의 조화를 강조했다.²⁸⁾

한편 아이치가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1988 서울올림픽과도 인연이 있다. 아이치현의 나고야는 1988올림픽 개최 경쟁에서 서울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세계박람회 유치로 돌아서서 2005년 박람회 개최권을 획득했다.

표 4-3 | 아이치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sitions)
	명칭	International Exhibition of 2005 Aichi
	기간(일자)	2005. 3. 25 ~ 9. 25(185일)
규모	회장면적	173ha
	관람객	2,204만 9,544명(1일 평균 11만 9,187명)
	참가국	국가 : 121개국, 국제기구 : 5개
주제	상위주제	자연의 예지(Nature's Wisdom)
	하위주제	우주 - 생명과 정보, 삶의 기술과 지혜, 순환형 사회
주요 특징		일본의 다섯 번째 세계박람회, 1988 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대안적 박람회

28) “아이치 엑스포-21세기 첫 박람회”, 광주일보, 2008. 1. 21.

(2) 개최 목적

인구 730만 명의 아이치현은 일본 4대 공업지대의 하나로 자동차 공업을 핵심으로 방직기계, 모직물, 화학섬유, 도자기, 철공, 정력, 목재가공 등의 공업지대이다. 아이치현의 나고야는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에 이어 일본의 4대 도시이다. 그러나 나고야는 도쿄와 오사카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인력과 물자가 거쳐가는 ‘통과도시’로 전락해 1980년대에는 위상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²⁹⁾



| 그림 4-3 | 아이치의 위치

일본은 패전국의 명예를 벗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세계박람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아이치 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한 마디로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중부지역의 도약이었다. 1980년대 일본 중앙정부는 ‘제4차 전국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아이치현이 위치한 중부권을 세계적 산업기술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나고야의 동부 고원지

29)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경제회복의 발판-아이치(상)”, 광주일보, 2008. 1. 21.

대를 아이치 학술연구개발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중부권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산업기반이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³⁰⁾ 이에 아이치현 스즈키 지사는 1988년 10월 박람회 개최가 지역 진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함께 작용했다.

(3) 우수한 점

아이치 박람회는 이벤트로서나 정책으로서 매우 성공한 박람회로 손꼽히고 있다. 우선 이벤트 측면에서 관람객 수는 당초 예상치인 1,500만 명을 훨씬 넘긴 2,200여만 명을 기록했으며, 입장료 수입도 당초 425억 엔보다 150억 엔이 많은 575억 엔에 달했다.³¹⁾ 또한 관람객 만족도 측면에서도 ‘좋았다’는 응답이 약 80%였으며,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경우도 약 7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²⁾

아이치 박람회가 이벤트로서 성공하게 된 주요 원인은 시민들의 호응도와 수준 높은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다. 아이치 박람회도 개최지 결정 후 개최 준비 초기단계까지는 박람회 개최 자체와 박람회장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시민 간에 갈등이 심한 편이었다. 그러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간참여의 길이 확대되고 부지가 옮겨지면서 점차 신뢰를 쌓아갔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박람회를 믿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고, 이

30) 요시미 순야, 「표류하는 만국박람회」, pp. 2~3.

31) KOTRA, 「2005 아이치EXPO 한국관중합보고서」, 2005. 12. 30. p. 96.

32) Japan Association for the 2005 World Exposition, *Results and Evaluation of EXPO 2005*, Aichi, Japan(Appendix I), 2005. 9. 24. p. 18.

에 따라 아이치 박람회는 민간주도형 박람회로 특징지어진다. 시민이 참가를 요구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민이 일부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등 박람회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³³⁾

한편 개최 2년 전부터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박람회 기간 중 활동했던 자원봉사자가 3만 명에 달하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의견을 모으는데 1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교육받는데 1년이 걸렸다. 이들은 아이치 박람회의 성공을 견인하고, 그 중 2,500명은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아이치지구 자원봉사센터 활동멤버가 되었다.

아이치 박람회는 주제 구현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연의 예지’를 주제로 ‘우주 - 생명의 정보’, ‘삶의 기술과 지혜’, ‘순환형 사회’라는 부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람회장은 나카쿠테 158ha, 세토 15ha에 총 173ha인데, 기존의 부지에 손을 대지 않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회장을 계획했다. 전시관뿐만 아니라 대형 녹화벽인 바이오링(Bio Lung)에 환경친화적인 첨단기술 적용, 환경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자연과의 공생을 강조하기 위해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고수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한 주제에 맞게 박람회장 내에는 공해를 줄인 자기부상식 리니어 모터카가 운행됐고, 두 곳의 박람회장은 곤돌라와 모노레일로 연결돼 관람객을 수송했다. 그리고 박람회장 안에는 연료전지버스와 배기가스 없는 무인 주행기차가 운행되었다. 또한 박람회 이후 도시 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인공시설은 모두 철거하기로 해 임시건축물로 지었다.

아이치 박람회는 역대 박람회와 다른 시도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먼저 참가국들에게 주제개발 가이드라인, 디자인 매뉴얼, 건축비 산출 가이드

33)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성공박람회”, 남해안신문, 2008. 4. 21.

드라인, 보험 가이드라인, 이벤트 가이드라인, 세금환급 가이드라인 등 참가국이 실질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점들을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주제개발 가이드라인의 경우 3차원 좌표시스템(X, Y, Z)으로 구성하여 64개의 예시를 만들었다. 또 개도국, 선진국, 기업 등 3개 영역을 구분하여 총 192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³⁴⁾

표 4-4 | 아이치 세계박람회 주제개발 매트릭스

구분	X(과제)	Y(크기)	Z(시간)
1	자연과 생명	인간	공통
2	사회와 문화	공동체	과거
3	과학기술과 생활양식	지구	현재
4	이동과 상호작용	우주	미래

자료 : 아이치 박람회 주제개발 가이드라인

이를 토대로 아이치 박람회는 박람회 사상 처음으로 참가국 전시관을 평가하여 ‘자연의 예지상’을 시상하였다. 전시관 규모별로 참가 국가를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하였는데, 한국관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과 함께 규모가 가장 큰 국가관 그룹에서 경쟁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³⁵⁾

아이치 박람회는 등록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18m×18m의 면적에 천정의 높이가 9m인 모듈을 한 단위로 하여 각국의 전시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참가국이 전시관을 자유롭게 설계하던 이전의 박람회와 비교해 건축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참가국이 일정한 기준 하에서 공통성과 독자성을 갖춘 전시관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실험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아이치 박람회 회장구성의 기본구조는 6개의 글로벌 코몬과 그것

34) KOTRA, 「2005 아이치EXPO 한국관종합보고서」, 2005. 12. 30. p. 95.

35) 상계서, p. 95.

들을 하나로 잇는 글로벌 루프이다. 관람객들은 2.6km에 이르는 글로벌 루프를 따라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료 : 아이치 세계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05.or.jp)

| 그림 4-4 | 아이치 세계박람회장 개념도

아이치 박람회의 또 다른 특징은 외형적 지표, 박람회의 영향력, 주제 의식의 관철 등 3가지 평가지표를 원칙으로 수립하고, 사전에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박람회 초기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박람회 평가에도 공을 들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가이드라인 제시, 시상제도 도입, 전시관의 모듈화, 글로벌 코몬 조성, 사전 평가지표 개발 등은 박람회에서 새롭게 시도된 것들로 박람회 모형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아이치 박람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지역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⁶⁾ 아이치 박람회는 유치 및 준비, 사후관리

36) “개최 도시에서 배우다 : 자치단체와 주민참여 - 아이치(하)”, 광주일보, 2008. 1. 28.

등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다.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참가국 유치 등 외교활동과 SOC 확충에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행사계획과 운영, 회장조성, 사후관리를 주도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4) 미흡한 점

아이치 박람회도 개최 준비 초반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특히 박람회장 선정을 둘러싼 아이치현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BIE의 개입이 있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당초 아이치 박람회는 올림픽 유치 실패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아이치 박람회가 중부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합의가 없었고, 이는 박람회 유치 반대운동단체를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부권 경제발전이라는 지방정부의 목적과 상반되는 주제 및 박람회장을 선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역 사회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처음 계획된 박람회는 세토 남동부 언덕의 250ha에 달하는 삼림지역을 세 공간으로 나눠 산촌관, 전원관, 도시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개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삼림지역의 절반 가량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헤이안시대나 가마쿠라 시대에 지어진 고대 가마를 포함하여 역사적, 자연적 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³⁷⁾

이에 대해 아이치현 지방정부는 미래교류도시 개발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그러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세토

37) 전계서, pp. 3~6.

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BIE 필립스 회장의 지적이었다. 필립스 회장이 ‘환경박람회 장소에 개발을 위해 언덕을 밀고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위선적이다. 아이치현의 개발계획은 20세기 대규모 개발계획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박람회 전체 주제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결국 아이치현 지사와 관료들은 신주거도시 개발과 도로건설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숲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사실 가이쇼(海上) 숲이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 박람회 반대 운동을 진행해 가면서 참매 등 희귀종의 서식이 밝혀지면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힘으로 숲을 지키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원활한 해결보다는 BIE의 개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3)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사라고사 세계박람회는 가장 최근에 개최한 박람회로 여수 박람회와 같은 인정박람회에 속한다. 1908년 스페인-프랑스 박람회가 이곳 사라고사에서 열렸는데, 2008년 사라고사 박람회는 이 박람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³⁸⁾

2000년 7월에 사라고사 박람회 유치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으며, 2004년 12월에 개최지로 결정되어 4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2008년 6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93일간 개최되었는데, 당초 600만 명을 예상하였으

38) EXPO ZARAGOZA 2008, *All the questions, all the answers*, 2004. 2. p. 30.

나 이보다 다소 적은 560만 명이 관람하였다. 105개의 국가, 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규모 면에서는 보통 수준이었다.

사라고사 박람회는 인간 생명의 원천인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능동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시, 세미나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 물 부족 등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막식 직전 그 결과를 담은 ‘사라고사 선언’을 채택하였다.

표 4-5 |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sitions)
	명칭	2008 Zaragoza - Spain
	기간(일자)	2008 .6. 14 ~ 9. 14(93일)
규모	회장면적	25ha
	관람객	560만 명(6만 215명)
	참가국	국가 : 105개, 국제기구 : 3개
주제	상위주제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 (Wat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하위주제	물·유한자원, 생명을 위한 물, 물이 있는 정치, 물·사람들을 모으는 요소
주요 특징		스페인·프랑스 박람회 100주년 기념, ‘사라고사 선언’ 채택

(2) 개최 목적

사라고사 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스페인-프랑스 박람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박람회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라고사 외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라고사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북동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다. 인구 70만 명의 도시로 아라곤(Aragon) 지방정부의 주도이자, 마드리드

와 바르셀로나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초고속열차 AVE 덕택에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로부터 1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³⁹⁾



| 그림 4-5 | 사라고사의 위치

그러나 사라고사가 속한 아라곤 지방은 스페인 전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속했다. 특히 박람회가 열리는 사라고사 서쪽, 에브로강(江) 유역은 박람회 개최 전에는 황량한 농지였는데, 스페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박람회 개최 계획과 에브로계획(Plan del Ebro)을 수립했다.

(3) 우수한 점

사라고사 박람회는 환경박람회답게 박람회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주제 구현이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공기질, 소음, 교통 및 이동수단, 에너지 등 11개 분야에 대한 개발목표를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회사와 계약을 통해 단계별 환경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박람회 개최 전·후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였다.

39) 상계서, pp. 48~49.

박람회장 운영에 있어서도 빗물 재활용,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컵, 안내책자, 식기류 등을 재활용 제품만 사용, 친환경 자재 및 교통 수단 도입,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시민 참여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사라고사 시민을 대상으로 플루비 카드(Fluvi Card)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에너지를 일정기준 이하로 절약하였을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축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기념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 친화적인 노력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한 것이다.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등 전문가 17명 초청 강연, 물 관련 책 100권 출판 등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할만한 이벤트를 도입했다. 또한 유명가수의 공연 등으로 주말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관람객과의 피드백을 중시하여 관람객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하고 곧바로 개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준비는 부족했으나 행사를 진행해 가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은 좋게 평가되었다.

그밖에 Water Tower 옥상에 야외정원을 만들고, 아라곤관 옥상을 테라스로 활용하여 박람회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거나,⁴⁰⁾ 아이치 박람회를 모방하여 전시관 규모별로 디자인 분야와 콘텐츠 분야에 시상제도를 도입한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하공간을 활용한 운영자의 차량 주차, 물품의 반출입, 쓰레기 배출 등은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사라고사 박람회는 민간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열악한 정부지원과 재정을 고려해 민간투자에 초점을 맞춘 사라고사 박람회는 총 87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 가운데 22억 유로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40) KOTRA, 「2008 사라고사엑스포 한국관 결과보고서」, 2008. 12, p. 10.

지원했고, 나머지 65억 유로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⁴¹⁾

한편 사라고사 박람회는 사후활용에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라고사 박람회는 준비단계부터 파트너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후활용방안을 박람회 개최 이전에 확정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경관 및 도시계획 구체화, 경쟁입찰 시행 등을 통해 전시관의 90% 이상을 영구시설물로 계획하였다. 전시관은 2층 건물로 짓고, 박람회 이후 4m, 4층 높이의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기업에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을 적절하게 분산배치하여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박람회 후 전시관 시설의 민간분양으로 투자금액의 75%를 회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박람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시관의 50% 이상 임대계약을 완료했다.

그밖에 ‘사라고사 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은 사라고사 박람회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4) 미흡한 점

사라고사 박람회는 이벤트로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먼저 당초 목표로 삼았던 관람객 수 600만 명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16년 전 개최된 세비야 박람회에 비해서도 1일 평균관람객이 1/4 수준에 불과했다. 교통망 확충으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가 1시간 거리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참가국 수도 105개국에 달해 목표치를 넘어서긴 했으나,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 국가들의 참가는 많았던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불참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라고사 박람회가 이벤트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너무 지역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이벤트로서의 박람회 준비는 소홀했기 때

41) “여수엑스포 - 외국사례 벤치마킹해야”, 아시아경제, 2008. 6. 23.

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령 개막 하루 전날까지도 박람회장 인근의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교통 혼잡을 유발했고, 중국,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관은 개관이 지연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5만여 명에 달했으나 통역원이 부족해 국내용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가 부족해 단지 박람회만 관람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박람회장 운영에 있어서도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는데, 우선 나무, 그늘막 등 대기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대기시간 중 관람객 불편이 증대되었으며, 사후활용을 전제로 국가관이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람객이 국가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주차장에서 National Day 행사를 개최한 나라가 있는 등 준비상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보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는 물론이고 사라고사 내에서도조차 홍보 현수막이 적은 편이었고, 해외홍보가 미흡해 국제적인 관심과 외국인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게다가 조직위원회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국들의 원성이 높았고, 숙박비도 평소보다 4~5배 비싸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전시관 운영 측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가령 수족관은 세계 5대 강에서 수집한 물고기를 전시했다고 하나 대부분 작은 물고기로 스타급 해양동물이 없어 흥미를 유발하지 못했고 체험이나 생태 설명도 없어 관람객으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했다. 또한 건축미에서도 다른 수족관과 차별화를 시도하지 못했다.⁴²⁾

국가관의 경우 중국관,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 전시관들은 대부분 전통문화나 생활풍습들을 전시하고 주제인 물과 관련된 것은 영상으로만 표현하는 정도였다. 또한 박람회 주제와 무관하게 상품판매 위

42) 유럽박람회 현장보고서 - 사라고사 박람회, 남해안신문, 2008. 10. 22.

주로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고, 주제 구현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통합과 일관성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³⁾

4) 상하이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상하이 박람회는 등록박람회로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국 200개, 관람객 7,000만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람회장은 상하이 남쪽 황푸강 유역의 난푸교와 루푸교 사이에 들어서며 부지는 528ha에 이른다. 이 중 393ha는 푸둥(浦東)에 있고, 135ha는 푸시(浦西)에 위치한다.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 아래 5개의 하위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4-6 | 상하이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등록박람회(Registered Expositions)
	명칭	EXPO 2010 Shanghai China
	기간(일자)	2010. 5. 1 ~ 10. 31(184일)
규모	회장면적	528ha
	관람객(예상)	7,000만 명(1일 평균 38만 435명)
	참가국(예상)	200여 개
주제	상위주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 (Better City, Better Life)
	하위주제	다양한 도시문화의 통합, 도시의 경제적 변형, 도시의 기술적 혁신, 도시 커뮤니티의 재건,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상호작용
주요 특징		중국 최초의 박람회, 베이징올림픽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메가 이벤트, 역대 최대 규모 예상

43)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08사라고사 박람회 개관 및 참가보고서」, pp. 107~138.

상하이 박람회는 2010년 개최 여부를 놓고 여수와 유치경쟁에서 세 표 차이로 이겼다. 2002년에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8년간의 준비기간을 갖게 되었다. 상하이 박람회는 중국 최초의 박람회이면서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메가 이벤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개최 목적

상하이 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리고 중화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도시개발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먼저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0년 상하이 박람회,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세 개의 빅 이벤트를 통해 강대국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이다. 그동안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밀려 잠자는 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맞설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상하이 박람회를 통해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명실공히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상하이는 2005년 말 기준으로 면적은 6,340.5km², 상주인구는 1,778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중국 내에서도 가장 개방되고 세계화된 도시이다. 황푸강 건너편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동방명주 등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중국의 월스트리트라 불리며 중국 경제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박람회장으로 선정된 푸둥, 푸시 지역은 슬럼화된 공업지대로 상하이의 애물단지 노릇을 해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상하이의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 또한 상하이 박람회가 상하이 인근 양쯔강 삼각주 지역

의 경제, 관광, 문화 및 기타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⁴⁴⁾



중심가 전경



박람회장 전경

| 그림 4-6 | 상하이의 두 얼굴

(3) 우수한 점

상하이 박람회는 2010년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패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상하이 박람회의 준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하이 박람회는 이벤트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박람회는 참가국 200개를 목표치로 설정했는데, 올해 7월 1일부로 참가의사를 밝힌 국가가 190개, 국제기구 38개, NGO 10개 등 규모 면에서는 당초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박람회 개최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참여 국가를 모으고, 외교부는 교섭을 추진하였다. 후원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중앙정부가 앞장섰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참가국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Shanghai EXPO, *The Bureau of Shanghai World Expo Coordination*, p. 37.

사무협조국은 주제 구현을 위해서 주제 콘텐츠 개발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서는 주제 정의에서부터 개념 및 콘텐츠 개발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아이치 박람회와 비슷한 3차원(X, Y, Z) 방식의 매트릭스로, 첫 번째 차원은 5개의 부주제를 다룬 콘텐츠 차원, 두 번째 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시간적 차원, 세 번째 차원은 개인·가족, 집단, 도시·국가, 세계의 공간적 차원을 다루고 있다.

한편 상하이 박람회는 박람회 최초로 인터넷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박람회 전시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인터넷 박람회는 계속 운영함으로써 ‘끝나지 않은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하이 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박람회 부지 선정 그 자체에 있다. 현재의 부지는 당초 다섯 번째 후보지로, 부지를 바꾼 것은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박람회의 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황푸강 유역은 100년 전 중공업을 통해 상하이의 근대화를 견인했으나 지금은 애물단지 구공업지대이자 무허가 주택의 밀집지로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다. 2002년에 박람회 개최가 결정된 뒤 사무협조국은 2006년까지 이 일대의 공장을 모두 교외로 이전시키고, 1만 8,000 저소득가구도 보상금을 주거나 교외에 새 아파트 단지를 지어준 뒤 철거함으로써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불과 4년 만에 없애 버렸다.⁴⁵⁾ ‘재개발’을 ‘박람회 개발’로 대체하면서 박람회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 자체가 주제 구현에 해당하는 셈이다.

상하이 박람회는 주제 구현을 위해 건물을 짓는데도 미래도시에 적용될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풍속 및 바람의 방향 등을 측정하여 온도에 따라 특정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바람과 태양을 100% 활용,

45) “2010 상하이의 꿈(하)”, 광주일보, 2008. 3. 31.

에코시티 추구 역시 주제 구현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하이 박람회 총설계사인 우주찌양 인터뷰 발언은 상하이 박람회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박람회는 단기간의 행사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의 미래입니다. 박람회는 도시를 위해 치러지는 것입니다.”⁴⁶⁾

(4) 미흡한 점

중국은 상하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 황푸강 종합개발계획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박람회 직접 투자 금액도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이벤트 성공으로 중국의 위상을 과시할 수는 있어도 자칫 6개월간의 잔치로 끝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하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중심지구인 루이짜이 지역이 25%의 공실률을 보이는 등 오피스 공실률이 대폭 증가하였고 임대료는 크게 하락하였다.⁴⁷⁾ 신규오피스가 추가 건설예정이어서 공실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재정적자가 자칫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노버 박람회의 경우 독일 최초의 박람회이자 밀레니엄 이벤트라는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10억 달러의 적자를 냈고 하노버는 한동안 재정문제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6) KBS, EXPO 성공신화의 해법, 2008. 9. 25.

47) 삼성경제연구소, 「Global Real Estate」, 2009. 1. pp. 12~13.

3. ‘해양’ 주제의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1) 오키나와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오키나와 세계박람회는 일본의 두 번째 박람회로, 1971년 11월에 BIE의 승인을 받아 4년의 준비 끝에 열렸다. 1975년 7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우리가 보고 싶은 바다’를 주제로 186일간 열렸으며, 회장의 면적은 100ha였다. 전문박람회(지금의 인정박람회)에 속하는데, 36개의 국가와 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였고, 관람객도 350만 명이 채 안 돼 박람회치고는 작은 규모에 속했다.

오키나와 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해양박람회였다. 주제를 해양으로 정한 것은 오키나와의 지형적 특성 외에도 당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해양 붐이 일던 시기였다. 1960년대가 인류가 달을 정복한 ‘우주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해양의 시대’였다. 육지와 우주를 정복한 인류의 마지막 도전지는 바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진국에서는 해양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⁴⁸⁾

48) 최은순·정문수·하세봉, 「해향도시의 세계박람회」, 한국해양대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9. 1. 31. p. 54.

| 표 4-7 | 오키나와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전문박람회(Special Expositions)
	명칭	International Ocean Exposition Okinawa, Japan, 1975
	기간(일자)	1975. 7. 17 ~ 1976. 1. 18(186일)
규모	회장면적	100ha
	관람객	348만 5,750명(1일 평균 1만 8,741명)
	참가국	국가 : 37개, 국제기구 : 3개
주제	상위주제	우리가 보고 싶은 바다 (The Sea we would like to see)
	하위주제	-
주요 특징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기념, 세계 최초의 해양박람회

한편 역사적으로 오키나와는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에 미군에 점령돼 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기지로 이용되다가 1972년 일본에 복귀했다. 따라서 오키나와 박람회는 해양개발과 본토 복귀 기념이라는 두 개의 축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2) 개최 목적

역사적으로 오키나와는 1609년 일본에 복속된 이래 일본 땅이었지만, 미군정 하의 오키나와는 본토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이었다. 일본인이라도 오키나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했다. 일본은 오키나와의 반환을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했고, 일본 반환이 성공하자 이를 축하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필요했다.

오사카박람회를 크게 성공한 일본은 박람회를 국가 부흥의 전환점으로 여기고 해양박람회를 준비했다. 당초 해양박람회 개최지로 오사카, 나고야 등이 검토됐었는데⁴⁹⁾ 오키나와는 관람객 수송과 숙박대책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를 기념하고 낙후지역의 획

49)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엑스포로 환골탈퇴 - 오키나와(상)”, 광주일보, 2008. 1. 18.

기적인 발전을 위해 오키나와를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오키나와 지방정부는 해양박람회 자체보다 본토 기업의 유치나 관광객 증가, 인프라 정비, 박람회 장소의 활용 등을 바라고 있었다. 오키나와가 박람회 유치를 강력히 바란 이유는 ‘기지경제’를 탈피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델이 된 것이 올림픽을 개최했던 도쿄와 박람회를 개최했던 오사카였다. 즉 오키나와가 해양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도쿄와 오사카의 뒤를 잇는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다.⁵⁰⁾

(3) 우수한 점

우선 오키나와 박람회는 육지뿐만 아니라 회장 밖의 주변 섬들을 활용해 바다로까지 박람회 공간을 확장시켰다. 해양박람회이기 때문에 회장 안에서는 주제 구현이 완결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오키나와의 아열대 환경, 푸른 바다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처럼 파빌리온 중심의 전시에서 외부로까지 전시공간을 확장시킨 것은 오키나와 박람회가 시초였다.

또한 첨단장비와 기술을 선보이면서도 어디서든 오키나와의 바다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오키나와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키나와 박람회는 최첨단의 해양과학기술을 총동원했다. 그 중에서도 바다 위에 세워진 사방 100m, 높이 32m의 아쿠아폴리스는 바다에 떠있는 미래의 실험도시로,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해양구조물이었으며 오키나와 박람회의 상징물이 되었다.

50) 권선아, 「일본 내의 오키나와 그 이미지의 형성과 전개과정(해양박람회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2006. 8. 22. pp. 8~23.



| 그림 4-7 | 오키나와 세계박람회의 상징인 아쿠아폴리스

보통 참가국들의 그룹핑은 대륙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오키나와 박람회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즉 해양과학기술의 수준을 가늠하여 과학기술을 내세울 정도가 되지 않는 국가는 국제1호관에 배치하여 전통해양문화의 전시나 해양과 관련된 생활문화에 치중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앞서가는 국가는 국제2호관에 배치하여 서로 대비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당했다. 즉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의 역사나 과학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를 배치한 점이 돋보였다.⁵¹⁾

오키나와 박람회의 성공비결은 사후활용에 있다. 오키나와가 국제 해양관광 및 스포츠의 메카로 위상을 세우게 된 것은 박람회 덕분이었다. 오키나와에는 본래 별다른 산업이 없었다.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수산업이나 임업에 종사해 가난을 면치 못했으며,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생산의 70%를 차지했다. 박람회를 치른 후 오키나와는 연간 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류라우미수족관은 몸길이가 8~9m에 이르는 고래상어를 앞세워

51) 전계서, p. 69~70.

관람객 모집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오키나와를 찾은 590만 명의 절반이 넘는 302만 명이 수족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⁵²⁾

표 4-8 | 오키나와 및 슈라우미 수족관 관광객 추이

단위 : 만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오키나와	449	447	489	512	517	557	570	590
슈라우미 수족관	61	54	150	249	221	243	268	302

주 : 2002년 11월 신규 수족관 개관

오키나와는 박람회가 끝난 후 행사부지에 다양한 볼거리와 레포츠 시설을 갖춘 해양박공원(海洋博公園)을 조성해 중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 소유인 박람회 부지에다 공원을 만들고, 오키나와현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해양박람회 기념재단’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4) 미흡한 점

오키나와 박람회는 흥행 면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과 5년 전 개최한 오사카 박람회의 관람객은 역대 최고인 6,400만 명을 돌파한데 비해 오키나와 박람회의 관람객 숫자는 348만 명으로 다른 박람회에 비해 서도 떨어졌다. 본토에서 너무 멀다는 지리적 조건과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부지 면적의 1/3을 매립했는데, 박람회장 안에서는 환경 피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회장 밖의 주변부는 짧은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어 환경훼손에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도로공사, 골프장 조성 등 난개발로 해안선이 파괴되었고, 토사유출로 주변의 논이 망가지거나 바다에서는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52) 전계서, p. 187.

도 했다.

더욱 문제가 된 점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박람회가 오키나와 진흥의 기폭제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오키나와 노동조합협의회가 해양박람회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해양박람회 개최 결정이 건설 붐을 일으키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갔기 때문이다. 또한 본토 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본토자본에 의해 토지가 매점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이 늘었으며 농지는 레저용지로 바뀌게 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해양박람회인가’라는 의견이 속출하였다.

박람회 폐막 직후에는 관광객이 크게 줄고 공공투자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업이 도산하는 등 박람회 후유증이 생겨났다. 결국 개발의 열매는 지역경제와 무관한 본토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⁵³⁾

2) 세비야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세비야 박람회는 1983년 6월에 BIE의 승인을 받아 1992년 4월 20일부터 개최되었다. 오사카 박람회(1970) 이후 22년 만의 종합박람회에 해당한다. 세비야의 카르투자(Cartuja)라는 섬에서 176일간 열렸는데, 113개의 국가와 22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당초 목표보다 많은 4,200여만 명이 다녀갔다.

53) 전계서, pp. 71~74.

| 표 4-9 | 세비야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종합박람회(Universal Expositions)
	명칭	Universal Exhibition Sevilla 1992 - Expo 92
	기간(일자)	1992. 4. 20 ~ 10. 12(176일)
규모	회장면적	215ha
	관람객	4,181만 4,571명(1일 평균 23만 7,583명)
	참가국	국가 : 113개, 국제기구 : 22개
주제	상위주제	발견의 시대(Age of Discovery)
	하위주제	발견 이전의 시대, 발견의 영향, 미래
주요 특징		콜롬버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올림픽 ⁵⁴⁾ 을 동시에 개최

세비야 박람회는 콜롬버스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미대륙을 발견한지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실 콜롬버스 미대륙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박람회는 미국 시카고에서 먼저 신청했다. BIE는 출발지와 도착지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스페인과 미국의 공동개최를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사정으로 박람회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세비야 단독 개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박람회 부지도 당초보다 2배 정도 더 넓어졌다.⁵⁵⁾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콜롬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10월 12일을 박람회 폐막일로 맞추기 위해 개막일자도 변경하는 등 역사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주제는 ‘발견의 시대’였는데, 이는 5세기 전 대항해의 시대를 연 인류의 업적과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21세기를 또 다른 발견의 시대로 전망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한편 스페인은 박람회 개최 기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54) 바르셀로나에서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되었음.

55) 전계서, pp. 86~87.

(2) 개최 목적

세비야 박람회의 개최 목적은 크게 신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 스페인과 라틴계 국가의 대외 이미지 개선, 스페인 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로 요약할 수 있다.

세비야는 신대륙 발견의 출발지라는 역사성을 지닌 도시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도시이다. 아메리카 발견 이후 200년 동안 세비야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거점이었고, 유럽 교역의 중심지이자 스페인 제1의 도시였다.



| 그림 4-8 | 세비야의 위치

박람회 부지를 카르투자섬으로 선정했는데, 이 곳은 지리적, 역사적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장소였다. 카르투자섬은 200년 동안 인도를 향하는 관문이었다. 또한 15세기 수도사들이 세운 카르투지오 수도원과 많은 도자기 가마들이 있었는데, 콜롬버스는 이 수도원에 기거하며 신대륙 발견을 위한 항해를 출발하기 전에 배를 수리했다. 스페인의 국가 위상 제고에 콜롬버스는 매우 매력적인 존재였다.

스페인은 세비야 박람회를 통해 스페인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스페인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남부지역사회간접시설의 현대화였다. 안달루시아 지방은 민족갈등과 지역갈등이 매우 심한 곳이어서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국가발전의 기폭제로 삼으려 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세비야가 속한 안달루시아 지방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세비야는 1929년에 이베로-아메리카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는데, 더 이상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유럽의 도시로 다시 부각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로 세비야 박람회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3) 우수한 점

세비야 박람회는 당시로서는 참가국 규모 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관람객이 당초의 목표 3,600만 명보다 많은 4,200여만 명을 기록했는데, 33.5%는 해외관람객이었다.⁵⁶⁾

세비야 박람회만의 ‘Night EXPO’는 대성공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관 전시 및 이벤트는 BIE 규정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렸다. 그러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연일 Night EXPO를 개최했다. 음악, 무용, 연극 등이 실내공간, 야외무대, 박람회 회장의 모든 공간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는 박람회가 즐거운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스페인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대한 축제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⁵⁷⁾

56) 전계서, p. 68.

57) 전계서, p. 69.

한편 박람회장 디자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회장 전체의 디자인을 콜롬버스의 배 모양으로 설계하고, 개별 전시관은 각기 독창적으로 선박의 구성 부분들을 이미지화 하여 전체적으로는 선박 모양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비록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박람회의 중심 아이디어를 뚜렷하게 해주는 4개의 주제관⁵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그림 4-9 | 세비야 세계박람회장의 모습

세비야 박람회는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르투자섬에는 수도원과 많은 도자기 가마들이 있었으나 20세기 중반부터 황폐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비야 박람회를 계기로 한때 콜롬버스가 살았던 카르투지오 수도원이 부흥한 것은 박람회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결실이었다.⁵⁹⁾

58) 발견관, 미래공간관, 15세기관, 항해관.

59) 전계서, p. 142.

스페인 정부는 박람회를 계획할 당시부터 장기적인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카르투하(Cartuja)’93’이라는 사후활용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연방정부가 51%, 안달루시아 정부가 44%, 세비야 시가 5%의 출자금을 지원했다. 박람회 당시 사용된 전시관은 모두 31개 동이었는데, 박람회 이후 4개 동만 사용하고 27개 동은 모두 철거하여 재건축 등의 과정을 통해 호텔, 연구소,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사장 시설은 영구시설보다 임시시설(54.2%) 중심으로 운영했다.

한편 세비야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조선업에 기반한 물류운송업,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였지만, 박람회를 계기로 첨단산업으로 도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또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했다. 박람회 개최 이전만 해도 세비야 공항의 이용객은 연간 90만 명에 불과했으나 개최 후인 2004년에는 300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⁶⁰⁾ 아울러 남부와 북동부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여 국민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미흡한 점

세비야 박람회는 참가국 수가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였고 목표보다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지만, 수익은 2억 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⁶¹⁾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했는데, 준비 공사가 한창이던 1992년 2월 발견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전시시설이 모두 파괴되었고, 간신히 화재를 모면한 옴니맥스 영화관만 개관하였다. 4월에 또다시 남태평양 국가공동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제 구현 측면에서도 비판적인 평가가 주류였다. 세비야 박람회는 해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설정함

60) “선진국 문턱에선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해사경제신문, 2007. 11. 27.

61) 전국경제인연합회, 「지구촌리포트-중국」, 2005. 11. 30.

으로써 참가국들의 전시관이 ‘해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전시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양해졌다.⁶²⁾ 또한 역사성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제노바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제노바 박람회는 스페인의 세비야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콜롬버스의 신 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콜롬버스는 원래 이탈리아 제노바 출생인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1987년 BIE로부터 개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스페인의 세비야와 함께 콜롬버스를 기념하는 박람회가 두 곳에서 개최되었다.

제노바 박람회는 전문박람회로 ‘배와 바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1992년 5월 15일부터 93일간 제노바의 구항인 베치오항에서 개최되었다. 회장의 면적은 5ha로 매우 작았으나, 170여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박람회는 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10 | 제노바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전문박람회(Special Expositions)
	명칭	International Exhibition Genoa'92 Colombo'92
	기간(일자)	1992. 5. 15 ~ 8. 15(93일)
규모	회장면적	5ha
	관람객	169만 4,800명(1일 평균 1만 8,224명)
	참가국	국가 : 48개, 국제기구 : 6개
주제	상위주제	배와 바다(Christopher Columbus - The Ship and the Sea)
	하위주제	-
주요 특징		콜롬버스 출생국가의 박람회, 세비야 박람회와 개최 기간 중복

62) 전계서, p. 100.

(2) 개최 목적

제노바는 이탈리아 최대이자 지중해 두 번째의 항만도시이다. 또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관광도시로도 유명한데, 2001년에는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는 제노바 구시가지 거리와 롤리(Rolli) 궁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오늘날까지 콜롬버스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중세의 생가와 그가 세례를 받은 산토 스테파노(Santo Stefano) 성당이 명소로 남아있다.⁶³⁾



| 그림 4-10 | 제노바의 위치

조직위원회는 콜롬버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제노바의 해양사적 인식을 새롭게 하며, 유럽 내에서 제노바의 항구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제노바, 그 중에서도 낙후된 구항의 재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활기를 되찾고자 하였다. 박람회 개최 전의 항만은 오랫동안 낙후되고 버려진 구항으로 남게 된 반면, 도시는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화되면서 두 지역 간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둘 사이의 조화를 끌어낼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박람회 개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63) 전계서, p. 96~98.

(3) 우수한 점

제노바 박람회는 개최 당시 스페인에서 올림픽과 등록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었음에도 규모나 비용에 비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하고 뚜렷한 주제 선정에 있다. ‘배와 바다’라는 한정된 주제는 참가국들이 전시관의 주제와 내용에 있어 뚜렷한 가이드 역할을 했다. 특히 박람회 전에 세계 각국의 도시로부터 출항한 배가 제노바 항구로 내항하는 이벤트는 이러한 주제적 고찰에 부응하는 참가국들의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⁶⁴⁾ 이를 통해 제노바 박람회는 해양이라는 주제 안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 준 박람회로 호평을 받았다.

항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다와 배를 주제로 전시시설이 설치되어 기존 시설자체가 기념공원의 성격을 갖도록 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도시 내 기존시설을 행사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전시관 신축을 적게 함으로써 도시구조의 변형을 최소화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박람회 성공에는 유명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독특한 건축물의 효과도 컸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제노바 출신인 렌조 피아노가 맡은 비고(Bigo)는 제노바 박람회의 상징물로 기능했다. 비고는 제노바항에 정박 중인 거대한 화물선처럼 기획하여 주제를 부각시켰고, 현재도 제노바의 주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64) 전계서, p. 101.



| 그림 4-11 | 제노바 세계박람회의 상징인 비고(Bigo)

제노바 박람회는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사 당시 사용된 건물은 총 31개동으로, 그 중 27개동은 영구시설로 활용 중이다. 이탈리아관(주제관)은 수족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1993년 개장 이후 매년 140여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하여 사후활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고와 마찬가지로 렌조 피아노가 건설한 아쿠아리움은 유럽에서 두 번째 큰 수족관으로 제노바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제노바는 박람회 이후 효율적인 항만지역의 관리를 위한 개발계획을 계속 수립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 새로운 ‘제노바 항 마스터플랜’이 채택되면서 항만과 도시의 통합을 위한 워터프론트 개발을 본격화하였다.

4) 리스본 세계박람회

(1) 일반 현황

리스본 박람회는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로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된 박람회이다. 토론토와 경쟁을 했지만, 1994년 6월 BIE 총회에서 ‘21세기 자연과 인류의 균형으로서 해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채택한 리스본

이 개최지로 결정됐다.

리스본 박람회는 20세기 마지막 박람회로 1998년 5월 22일부터 132일간 개최되었는데, UN이 1998년을 ‘세계 해양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그 의미가 증대되었다. 145개의 국가와 15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인정박람회로서는 규모가 큰 편이었으며, 관람객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표 4-11 | 리스본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인정박람회(Recognized Expositions)
	명칭	Lisbon Expo '98
	기간(일자)	1998. 5. 22 ~ 9. 30(132일)
규모	회장면적	50ha
	관람객	1,012만 8,204명(1일 평균 7만 6,729명)
	참가국	국가 : 145개, 국제기구 : 15개
주제	상위주제	바다-미래의 유산(Oceans - A Heritage for the Future)
	하위주제	바다와 해양자원에 대한 이해, 바다와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 여가 장소로서의 해양,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바다
주요 특징		바스코 다가마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 기념, UN이 정한 세계 바다의 해(1998)에 개최, 20세기 마지막 박람회

(2) 개최 목적

이베리아반도(Iberia)의 테조(Tejo)강 하구에 위치한 리스본은 1497년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항로를 개척한 이후 식민지와의 교류를 통해 유럽 최대의 상업도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지진의 피해와 식민지 독립 등으로 점차 쇠락해 갔다. 특히 박람회장으로 결정된 올리비아스부두는 오래된 산업시설, 쓰레기하치장, 철거된 도살장, 폐유저장소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다.

리스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필요했는데, 세비야 박람회의 성공사례는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크게 자극했다. 이에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그림 4-12 | 리스본의 위치

(3) 우수한 점

리스본 박람회는 도시재개발과 박람회의 완벽한 조화라는 이중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리스본 박람회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이벤트 측면에서 리스본 박람회는 예상보다 많은 145개의 국가와 15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였으며,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 당초 박람회 부지는 50ha였지만 330ha에 달하는 올리비아스 지역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100개 이상의 국가와 기관을 참여시킬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국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였다.

한편 민간의 투자가 많았던 점도 눈길을 끈다. 리스본 박람회에 들어간 돈은 모두 18억 달러로, 이 가운데 84%를 민간자본 유치로 충당했다. EU로부터 9%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포르투갈 정부의 출연은 7%에 불과했다.⁶⁵⁾

65)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엑스포로 거듭난 리스본”, 광주일보, 2008. 3. 4.

리스본 박람회는 주제 구현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리스본 박람회는 이전의 박람회, 특히 항해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양박람회라는 점에서 주제가 유사한 세비야 박람회와 차별화가 필요했다. 또한 6년이라는 시간적 차이에서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세비야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수립했는데, 하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활용의 유용성 강조였다.⁶⁶⁾

리스본 박람회는 인류공영을 위한 해양자원의 적절한 개발과 인류의 미래를 지탱해줄 보고인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주제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⁶⁷⁾ 1990년대 들어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보다 인류공동의 미래 건설이라는 보편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해양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인류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리스본 박람회는 해양의 역사적 조명, 인도항로 발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축소하고 해양의 다양성과 무한한 잠재력에 초점을 두었다. 역사성 보다는 해양을 미래 자원의 보고로서 강조하고 환경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데 노력하였다.

리스본 박람회는 시설의 사후활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스본 박람회는 박람회 시설과 인프라의 영구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조성 단계부터 도시개발계획을 함께 진행시켰다. 시설물의 폐기 혹은 재건축의 낭비를 막기 위해 거의 모든 건물을 영구 건물로 짓고, 행사 종료 후에는 도시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구상 초기부터 건물의 사후용도를 결정하였다. 건물은 처음부터 용도변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그 결과 4개의 주제관은 정부 관공서, 실내 돔경기장,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바스코 다가마 타워는 전망대와 식당으로, 일반사무동은 호텔과

66) 전계서, p. 111.

67) 전계서.

전자회사,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해주고 있다. 박람회장 안에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서 있고, 박람회장 주변에는 카지노를 비롯한 대형상가가 들어서는 등 지역 핵심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리스본시는 2010년까지 박람회 주변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가 개최된 1998년을 원년으로 삼아 10개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조성, 바스코 다가마 타워와 브리지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고급주택가 건설을 통한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리스본시는 강변을 끼고 놀이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공원을 조성하고, 쇼핑센터와 공연장, 극장 등 문화시설, 호텔 등 도시생활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전시장, 박물관, 기존의 박람회 시설과 더불어 배치되도록 ‘박람회공원 신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갔다.⁶⁸⁾

박람회가 개최된 테조강 주변은 정유회사, 도살장, 쓰레기 하치장 등 소위 도시 생활환경의 혐오시설들이 가득한 기피지역이었다. 그랬던 곳이 박람회를 통해 리스본의 가장 변화한 신도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행사 후 지가는 상승했고, 상가를 찾는 인파와 박람회의 자취를 찾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오히려 리스본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4. 대전 세계박람회 사례 분석

1) 일반 현황

대전 박람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박람회이자 개발도상국 최초의 박람회

68) 이주연, 「도시 성장 동력의 ‘지속 가능성’ - 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공원」, 2009. 5. 17. pp. 1~2.

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박람회 참가국이 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박람회이기도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로써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박람회 개최국이 되었다.

대전 박람회는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개최된 전문 박람회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내걸었다. 108개 국가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였고, 1,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표 4-12 |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유형	전문박람회(Special Expositions)
	명칭	The Taejon International Exposition - Korea 1993
	기간(일자)	1993. 8. 7 ~ 11. 7(93일)
규모	회장면적	90.1ha
	관람객	1,400만 5,808명(1일 평균 15만 600명)
	참가국	국가 : 108개, 국제기구 : 33개
주제	상위주제	새로운 도약의 길(The challenge of a new road to development)
	하위주제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주요 특징		한국 세계박람회 참가 100주년 기념, 개발도상국 최초의 세계박람회

그러나 대전 박람회는 유치경쟁을 통해 승인받은 박람회가 아니었다. 이미 개최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BIE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BIE는 1987년 총회에서 2000년 하노버 박람회까지 이미 개최하기로 결정된 박람회 외에는 추가로 공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모든 개도국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0년 6월 14일 107차 파리총회에서 개최를 승인하였다.⁶⁹⁾

69) 산업연구원, 「대전엑스포 '93 개최 효과분석」, 1990. 12. p. 1.

2) 개최 목적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내면서 국민적 역량을 재결집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산업화 및 공업화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으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전통문화의 파괴,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박람회를 계기로 이를 인류의 공동과제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대전 박람회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국민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21C 초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⁷⁰⁾

3) 우수한 점

대전 박람회는 흥행 면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준비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08개의 국가를 유치했고, 관람인원도 1일 평균 15만 명, 총 인원 1,400여만 명 등 규모 면에서는 어느 박람회에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대전 박람회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우선 유사 이래 최대의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최초·최대·최장의 행사로서 그만큼 희소성이 컸고, 이는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업무 및 인력지원이 원활했던 점도 행사 준비에 큰 힘이 되었다. 대전이 국토 중앙에 위치해 있고 교통요충지였던 점도 관람객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참여, 자원봉사자 등 도우미들의 역할도 대전 박람회 성공

7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 EXPO '93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 1991. 2. p. 4.

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대전 박람회는 지방도시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로, 지방 도시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보임으로써 과학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4) 미흡한 점

반면에 대전 박람회는 주제 구현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대기업 전시관의 경우 주제나 영상매체, 홍보 내용 등이 중복된 경우가 많고 주제와 연계성도 부족했다. 주제에 적합한 대표적인 시설이나 이벤트가 부족했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전시내용이나 관련 활동이 저조했고, 국제관의 경우 전시수준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상징타워인 한빛탑은 위치, 높이, 활용도 등에서 부적절했다.⁷¹⁾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부진은 대전 박람회가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박람회장은 1994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재개장했다. 1999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대전 광역시로 양여되었다가 1999년 7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공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사후활용에 대한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민간이 참여해 보기도 했지만 결국 사후활용에 실패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야외설치 조형물이나 예술품은 관리없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과학공원보다는 놀이공원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 과학공원을 찾는 입장객 수가 연간 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엑스포과학공원 청산명령이 떨어졌다.

71)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의 경험 공유를 위한 제언”, 2008 .3. 6. pp. 20~21.

사후활용에 실패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3 | 대전과학공원 사후활용 실패 원인⁷²⁾

구분	세부 내용
정부지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활용 관련 법률인 ‘대전엑스포 기념재단법’에서 예산지원 근거 삭제로 인한 정부의 예산지원 소멸 • 정부 지원폐지로 운영인력이 급감하여 서비스 질 저하
대기업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기업관 9개를 대기업이 기증하고 철수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관리 곤란
유지관리비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비용의 첨단시설 유지관리비 • 수입제품, 시제품 등으로 품질로 인한 부품 구입 곤란
이벤트 급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이벤트 기획 및 운영 곤란(연간 절반 이하)
막대한 사후활용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시설 비중(64%)이 높아 사후활용 부담 증가
단지 배치의 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문에서 서문으로 중심이 전환되면서 동선, 시설이용 등에서 비효율적
민자시설 장기간 독점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시설에 대한 사업독점권 부여로 사후 수익사업 추진 애로 (꿈돌이랜드, 중앙대식당)
영상관 중복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14개 중 7개가 영상관으로 흥미 저하 • 영상관은 시설개조도 곤란
공익성과 수익성의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시스템으로 민간매각 무산 •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둘 다 부진

그밖에 첨단과학기술을 선보임으로써 과학한국의 위상은 높였지만, 개최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 제고는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연구기관들을 활용한 기술이전 및 산업활성화 측면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72) 이흥준, 「대전엑스포의 사후활용과 교훈」, 2009. 5. 20, pp. 4~9를 토대로 재정리.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각국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과거와 달리 인류의 공동관심사항을 모색하고 사후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박람회 개최 목적은 주제를 통해 구현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박람회를 계기로 한 지역개발이다. 다시 말해 ‘지역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박람회 개발’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박람회의 목적이 ‘보여주기’에서 ‘활용하기’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이벤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벤트 측면은 주로 박람회 준비 및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얼마나 흥행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치 박람회, 제노바 박람회, 세비아 박람회, 리스본 박람회, 대전 박람회는 성공한 사례에 속하며, 하노버 박람회, 사라고사 박람회, 오키나와 박람회는 실패한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14】 분석대상 세계박람회의 성과 평가

구분	성공	실패
이벤트 측면	아이치, 세비아, 제노바, 리스본, 대전	하노버, 사라고사, 오키나와
정책적 측면	아이치, 세비아, 제노바, 리스본, 오키나와, 사라고사	하노버, 대전

주 : 상하이 박람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정책적 측면은 박람회장의 사후활용과 지역발전, 지역의 이미지 제고가 핵심이다. 전반적으로 하노버 박람회와 대전 박람회는 사후활용에 실패했다는 평가이고, 아이치 박람회, 리스본 박람회 등은 성공사례에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공의 대표사례로는 아이치 박람회와 리스본 박람회를, 실패의 대표사례로는 하노버 박람회를 들 수 있다. 아이치 박람회와 리스본 박람회는 이벤트나 정책적인 측면 모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두 박람회는 주제 구현에 성공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특히 아이치 박람회는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전시관운영의 가이드라인 제시, 시상제도 운영, 전시관의 모듈화 등 박람회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박람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리스본 박람회는 박람회장 자체를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부지조성 단계부터 도시개발계획을 함께 진행시킴으로써 도시재개발에 성공했다.

반면에 하노버 박람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벤트 측면에서는 주민의 호응도 제고와 주제 구현에 실패하면서 참가국 수로는 역대 최대였으나 관람객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수익도 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사후활용에 실패하면서 박람회장 자체가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박람회는 이벤트 측면과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성공해야 비로소 성공한 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람회 준비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2) 시사점

(1) 이벤트 측면

박람회가 이벤트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주제 구현, 접근성 향상, 관객의 만족도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충실한 주제 구현을 위해서는 전시관별로 차별화하되 전체는 조화를 이루어 주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치 박람회의 사례와 같이 전시관별 핵심메시지 부각, 전시연출 및 콘

텐츠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 전시관 시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비야 박람회처럼 전체 박람회장 조성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리스본 박람회와 같이 역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참가국의 전시연출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주제 구현에 적합한지 심사 및 지도를 통해 주제의 통일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성 향상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교통, 숙박 등의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박람회장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간선도로망, 환승주차장, 대체교통수단 등 시내교통망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홍보 강화, 입장료 현실화,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여수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당일관람이 어렵기 때문에 관람의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입장료를 다소 낮게 책정하여 방문율을 높이거나, 재방문 시 입장료 할인, 시기별 입장료 차별화 등 다양한 형태의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는 흥행과 직결되므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즐거움과 관람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저명인사의 초청강연, 유명연예인 공연, 참가국의 다양한 문화공연, 직접체험공간의 확충, 첨단기술 활용, 스타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 특히 세비야 박람회가 Night EXPO를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여수 박람회는 일본, 중국 등 동남아 관람객 유치에 한류문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람객의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 대기공간에 나무 그늘, 차양막, 실외에어컨 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전시관 입장 전에 대기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지루함을 없애야 한다.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사라고사

박람회에서처럼 전시관 옥상도 테라스나 전망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우미는 해설사, 통역사, 고충해결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후활용 성공, 지역발전,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이 중요하다.

첫째, 사후활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활용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지역개발전략, 주민의사 등을 토대로 사후활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잠재 수요자 발굴과 함께 이들을 박람회 준비 단계부터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박람회 건물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수요도 함께 파악해 공간별, 건물별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간배치, 건축설계 등에 반영해야 한다. 영구시설과 임시시설의 비중은 사후활용 용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사후활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라고사 박람회가 처음부터 사후활용을 고려하여 층간 높이와 구조를 결정하였고, 아이치 박람회가 사후에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시건물 위주로 조성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박람회의 궁극적인 성과는 지역발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병행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는 리스본 박람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장기발전구상과 맞물려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용도가 결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오키나와 박람회의 경우 본토자본에 의한 자본유입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수익배분 구조에서 소외되자 박람회를 왜 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따

라서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로 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개최지의 이미지는 박람회 유산으로 남게 된다. 오키나와 박람회의 경우 해양박람회를 통해 전쟁에서 해양관광지로 이미지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의 성공은 여수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박람회의 새로운 모형 창출도 중요하다. 아이치 박람회가 시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시상제도 도입 등은 이전 박람회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새로운 모형이 되었다. 박람회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첨단과학기술, 대표 건축물 등 스타 프로젝트도 개최지의 강렬한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오키나와 박람회의 경우 해상에 지은 아쿠아폴리스로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해상도시의 모습을 구현하였고, 제노바 박람회의 비고(Bigo) 역시 제노바 박람회의 상징물로 기억되고 있다.

(3) 공통적 측면

한편 이벤트와 정책적 성공 모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박람회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인력, 예산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치 박람회의 경우 중앙정부는 참가국 유치 등 외교활동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방정부는 행사계획과 운영, 회장조성 사후관리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참여 없는 박람회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아이치 박람회는 주

민과 자원봉사자의 힘이 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라고사 박람회도 환경운동프로그램인 ‘플루비 카드제’를 시행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반면에 하노버 박람회는 개막식 날에도 박람회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오키나와 박람회 개발이익의 귀속여부를 둘러싸고 역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람회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이다. 공감대 형성 없이는 어려운 준비과정을 헤쳐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8 서울올림픽, 1993 대전세계박람회, 2002 한일월드컵을 훌륭히 치러낸 저력을 갖고 있다. 또한 박람회 유치에 한 번 실패했지만, 이를 딛고 재유치에 성공한 저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박람회 유치성공을 개최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4-15>와 같다.

| 표 4-15 | 세계박람회의 성공요인

구분		세부 내용
이벤트 측면	충실한 주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간 차별화와 전체의 조화 • 전시관별 핵심메시지 부각 • 전시연출 및 콘텐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우수 전시관 시상제도 도입 • 박람회장 전체에 대한 상징성 확보 • 미래지향적인 주제 구현 • 참가국 전시연출 사전심사제 시행 •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및 운영체계 도입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숙박 확충 • 홍보 강화 • 적정 수준의 입장료 및 요금 차별화 • 주변지역 관광상품과 연계
	관람편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명인사 초청 강연 • 유명연예인 공연 개최(한류문화 활용) •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 직접 체험공간 확충 • 첨단기술 및 스타 프로젝트 도출 • 관람편의시설 확충 • 건물 옥상, 지하까지 공간 활용 확대 • 자원봉사자 교육(해설사, 통역사, 해결사) • 재해방지대책 확충 • 안내시설 확충 • 미아방지대책 수립
정책적 측면	사후활용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여건 및 잠재력, 주민의사 등) • 사후활용의 기본방향 설정 • 건물 배치, 건축구조 등에 사후활용계획 반영 • 잠재 수요자 발굴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기회 확대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 • 사후활용계획과 연계 및 병행 시행 • 지역주민과의 소통 • 박람회 성과가 지역사회로 귀속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슈의 발굴과 해결책 제시 • 친환경적 조성 및 운영 • 지역의 유산과 연계
공통적 측면	정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예산, 인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주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 주민의 자발적 참여프로그램 개발
	성공예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확보

제 5 장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상황 검토

1. 전반적 추진상황

세계박람회 준비 과정은 <그림 5-1>과 같이 기본계획 단계, 실행계획 단계, 현장준비 단계, 운영 단계 등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2009년 11월에 박람회장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현장준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타 박람회의 사례와 비교할 때 개막일을 2년 반 정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사업 진척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림 5-1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진행상황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함)는 2008년 11월에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년 12월에 개최된 제144차 BIE 총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았는데,⁷³⁾ 이는

73)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에 비해서도 BIE 승인을 11개월 먼저 받음.

2008 사라고사 박람회, 2010 상하이 박람회 등 최근의 세계박람회와 비교하여 개최일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앞선 것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BIE 승인을 조기에 받음으로써 조직위는 참가국 유치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⁴⁾

하지만 각 세부사업별로는 진척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람회의 콘텐츠 정립과 관련된 작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박람회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들은 남은 준비기간 동안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수 박람회는 최근의 타 박람회와는 달리 개최지의 개발을 사전에 전제하고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및 부지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업무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의 경제 부진은 시설 및 부지의 사후활용계획 수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 박람회 기본계획의 내용 검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08년 5월에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략기획단을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자체 워크숍과 국제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을 거쳐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2008년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8년 11월에는 정부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동 계획에는 주제개발 및 전시연출, 박람회장 조성계획, 문화·학술행사 계획, 교통·숙박·관광·인접지역 활용계획, 박람회 운영계획, 홍보·마케팅계획, 재정운용계획, 사후활용계획 등 박람회 준비사항 전반에 걸친 기본

74) BIE 규정상 세계박람회 주최측은 기본계획에 대한 BIE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참가국 유치를 위한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다.

방향과 핵심적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이 바탕이 되어 분야별로 타당성 조사·검토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실행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은 계속 수정,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기본계획 중 핵심적인 분야인 주제 및 전시연출, 박람회장 조성, 홍보·마케팅, 사후활용 등을 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 주제 및 전시연출 구상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현명한 해양의 이용’,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인 만남’ 등 세 개의 하위주제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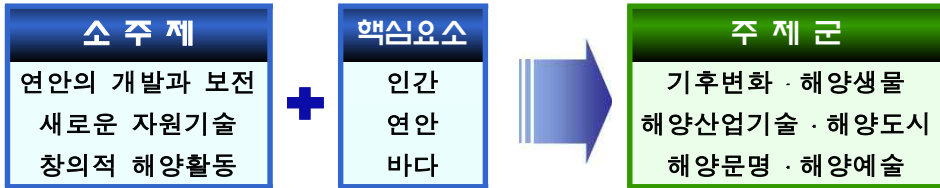
표 5-1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및 의미

구분		의미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연과 인간, 선진국과 개도국,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공존을 의미
하위 주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 내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제시
	현명한 해양의 이용	• 해양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인류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위상 제고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인 만남	• 바다와 인간의 교류 성과를 문화·예술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하고 새로운 해양시민상(sea-tizen) 및 해양문화(sea-vilization) 제시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p. 54-58

주제 구현을 위한 전시연출은 3개의 하위주제와 ‘인간’, ‘바다’, ‘연안’이라는 3개의 주제를 연관시켜서 도출한 6개의 주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6개의 주제군은 각각 별도의 부제관에서 다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주제 구현을 위한 전시관(thematic pavilions)은 주제관과 6개의 부제관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주제관과 부제관, 한국관 등 8개 전시관의 전시연출 테마는 <표 5-3>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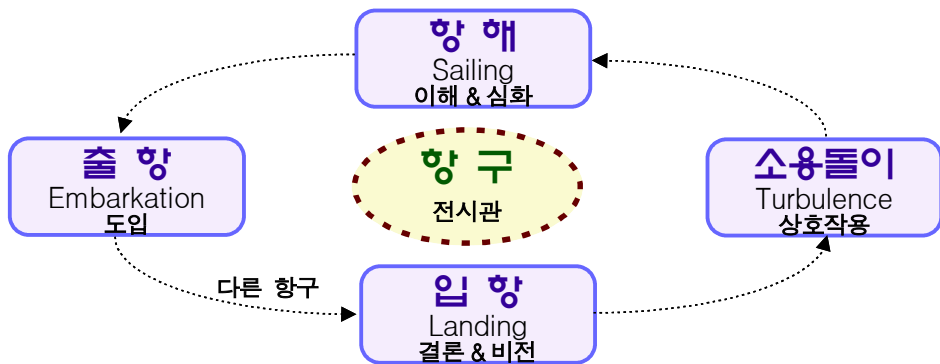
| 그림 5-2 | 전시연출을 위한 주제군의 도출

| 표 5-2 | 전시관별 전시테마

구분		전시테마
주 제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해안을 통한 인류역사의 발전 바다의 탄생, 대양 생성 및 원시생명 탄생의 흐름
한 국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해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반도국의 바다와 관련된 역사, 주변국과의 문화교류,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사와 해양문화
부 제 관	① 기후환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의 시대 환경오염, 자원고갈, 자연재해(쓰나미) 세계 해양관측 정보(가상 해양재해 상황실)
	② 해양생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이로운 세상 원시바다, 해양생물의 다양성, 먹이사슬, 서식지, 진화 수산자원의 회복, 생태계 복원
	③ 해양산업기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뗏목에서 해양탐사선까지 인류성장의 동맥, 선박과 뱃길 위그선, e-Navigation, 신재생에너지, 해양탐사와 시추
	④ 해양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와 도시의 만남 항구의 발달사, 세계 water front 재생 사례 100년 후 미래 해양도시, 해양주택
	⑤ 해양문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문명의 문명사적 전환 해양도시 원정대 : 유명 해양도시의 문화, 풍습, 어구 각국의 전통 해양먹거리, 놀이문화
	⑥ 해양예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으로부터 예술, 예술로부터 자연 바다문학, 미술, 음악, 영화 전시 바다 레포즈, Sea Artists와 관람객의 만남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61

전시연출은 각각의 전시관에서 i) 출항(Embarkation), ii) 항해(Sailing), iii) 소용돌이(Turbulence), iv) 입항(Landing) 등, 선박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과정의 흐름을 갖도록 하였다. 즉 이러한 흐름을 통해 관람객이 전시연출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일관된 메시지와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61

| 그림 5-3 | 전시연출 개념도

또 기본계획에는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제적 선언의 형태인 여수선언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여수선언을 통해 세계에 해양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여수 세계박람회가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친 이벤트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선언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UNDP, UNEP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여수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으로써 ‘여수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해양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개도국의 능력(Capacity) 배양과 선진국의 기술이

전을 위한 것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R&D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수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하여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를 실천하고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개도국의 폭넓은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여수프로젝트는 박람회 사후에도 계속 실시하여 여수 박람회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박람회 시설을 국제해양R&D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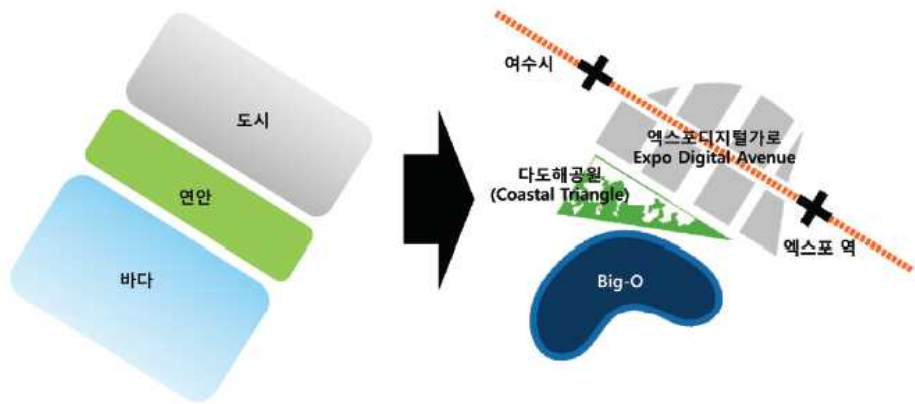
2) 박람회장 조성

박람회장은 여수신항 내에 위치하며, 바다와 인접해 조성된다. 주요 공간으로 바다에는 Big-O, 연안에는 다도해공원(Coastal Triangle), 도시에는 엑스포디지털가로(Expo Digital Gallery)를 조성하여 도시·연안·바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Big-O는 신항 부두와 파제제 사이의 해역에 조성되며, 바다의 모습을 연출하여 주제 구현을 위한 대표적 상징공간으로 계획되었다. 내부에는 오션타워, 바닷길 등이 있고, 수변데크를 경계로 하여 다도해 공원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다도해공원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1/1000로 축소한 모형으로 연안에 대한 직접체험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여수신항의 콘크리트 호안의 일부를 모래사변, 인공습지, 인공해변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엑스포디지털가로는 여수의 기존 시가지와 엑스포역을 연결하는 주 가로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가로를 구현하도록 구상하였다.

박람회장의 전시시설은 주제관, 한국관, 부제관, 국가관, 지자체관, 국제기구/NGO관, 기업관 등으로 구성된다. 엑스포디지털가로를 중심으로 국가관을 배치하였으며, 주제관과 한국관, 부제관은 관람효율을 위해 박람회장 곳곳에 분산 배치하였다.

주제관은 박람회 주제를 총괄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파제제 밖에 위치해 Big-O 등 핵심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었다. 한국관은 다목적 공연장과 인접한 수변광장에 위치해 전시·공연·연회·휴식·체험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138

| 그림 5-4 | 박람회장 주요 공간배치 구상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147

| 그림 5-5 | 박람회장의 주요 공간배치 구상

부제관의 경우 해양문명·도시관과 해양예술관은 엑스포디지털가로 주변에 위치해 있고, 그 외 3개관은 Big-O와 다도해공원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해양생물관은 아쿠아리움과 통합되어 있으며, 해양산업기술관은 박람회장의 가장 끝에 위치해 있다. 국가관은 엑스포디지털가로를 중심으로 상위에 태평양 및 대서양 클러스터를, 하위에 인도양 클러스터를 배치하였다.

3) 교통·숙박 대책

여수 세계박람회가 도서를 제외한 국토의 최남단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교통 여건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당일여행이 불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숙박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박람회 개최 전까지 전주-광양 고속국도와 목포-광양 고속국도를 신설하고, 전라선 복선화를 완료하여 KTX를 운행하게 된다. KTX 운행은 서울-여수 간 소요시간을 현재의 5시간 반에서 3시간 16분으로 크게 단축하게 된다.

광역 교통망으로부터 박람회장까지의 접근로 확충을 위해서는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박람회장 내에 국제크루즈 및 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여 해상 접근로도 확보하게 된다.

박람회장까지의 신속한 진입을 위하여 도시 외곽 주 진입부 도로변에 총 44만 400㎡ 면적의 4개소 이상의 외곽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1일 최대(계획기준일) 약 1만 2,000대의 승용차 및 700대의 버스를 수용하고, 환승주차장으로부터 박람회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권역에 소재하는 숙박시설을 모두 활용할 경우 목표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

람객이 선호하는 호텔, 콘도 등의 고급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자유치를 통해 개최지에 호텔, 콘도, 해상호텔, 리조트 등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박람회 종사자 숙소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엑스포 타운)를 조성하여 입주 전에 종사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표 5-3 | 고급숙박시설 공급계획

구 분		사 업 개 요
일 반 관람객	오션리조트	호텔 309실, 콘도미니엄 128실
	시티파크	호텔 59실
	화양지구	호텔 356실, 콘도 356실, 펜션 142실
	복산지구 등(7개)	호텔, 콘도, 펜션 등 1,300실
	해상호텔 운영	호텔 1,000실
	민간아파트 활용	아파트 3,000실
박람회 종사원	엑스포타운	빌라 900실, 아파트 3,600실
VIP	콘도	고급 콘도 200실
합 계		10,350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민박, 캠핑카 활용 등의 대체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상업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EXPO INN’ 인증제를 도입하여 위생·편의·서비스의 수준을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또 숙박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남해안권 지자체 간 공동 예약·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박람회 관람객에게 실시간 숙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4) 홍보·마케팅

관람객 및 참가국 수는 박람회의 흥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관람객은 내국인 745만 명, 외국인 55만 명 등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가국 수는 10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5개, 다국적기업 10개, NGO 5개도 유치할 계획이다.

관람객과 참가국 유치를 위해 기본계획상에는 국내외로 구분하여 단계별·대상별·매체별 홍보·마케팅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단계별로는 대략 1년 주기로 인지도 확산, 우호여론 형성, 참여열기 확산 및 참가 유도, 붐(boom)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체별로는 국내의 경우 개별적 매체를 통한 독립적 홍보를 지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복합적 통합 커뮤니케이션 홍보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 표 5-4 | 관람객 수요 예측 결과

단위 : 천 명, %

총수요	일반성인		학생단체 및 청소년		외국인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8,002	5,499	68.7	1,948	24.3	555	6.9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42

| 표 5-5 | 매체별 국내 홍보전략

구분	전략	주요 홍보 프로그램
PR	• 우호적 미디어 릴레이션 구축	• 팸투어, 미디어 자문단, 언론사 공동 캠페인 진행
온라인	• 포털사이트 및 새로운 홍보툴 적극 활용	• 블로그, 카페, UCC, 게임PPL, 동영상 뉴스포털 이용
이벤트	• 다중 참여 및 체험이 가능한 이벤트 기획 및 실행	• 공모전, 응원 및 퀴즈 이벤트, 포토 이벤트 개최
직접 홍보	• 각 지자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 전국순회 투어, 설명회 개최, 홍보 부스 운영
제작물	• 주제와 전시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홍보자료 제작 배포	• 프레스킷, 리플렛, 뉴스레터 등
광고	• 타겟 도달률이 높은 미디어 믹스 기획	• 옥외, 매체광고를 포함하고 게임 등 뉴미디어 적극 활용
홍보관	• 사전 체험을 통한 참여확대 유도	• 전국 주요 포스트에 홍보관 개설 및 이동식 홍보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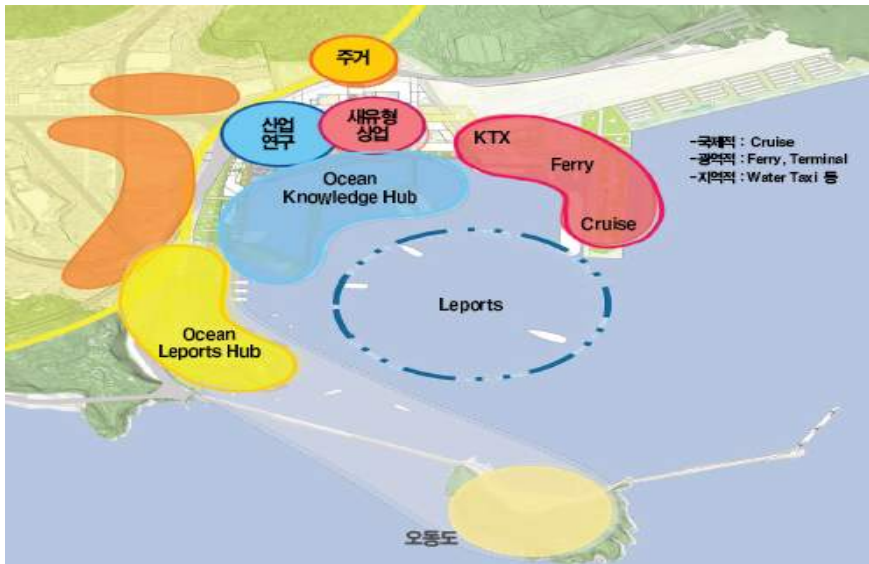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345

국외의 경우 국제 컨퍼런스/세미나, 박람회, 국제 Mega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매체활용전략과 인터넷의 영향을 분석하여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도 주변국과의 연계투어 프로그램 개발,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 활용, 각종 국제회의 지원, 한류스타 활용, 해외교민 및 지한파 외국인 활용 등을 통해 국외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5) 사후활용

기본계획에 의하면 박람회 이후에도 박람회의 주제와 효과를 활용하는 사후활용 원칙을 견지하고, 특히 박람회장 구역을 ECO-polis⁷⁵⁾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해양연구기관을 유치하여 해양관련 연구·교육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루트 개발과 해양문화 및 레포츠 기능을 부여하여 교통·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전시장 및 시설들은 실현가능한 사업화 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399

| 그림 5-6 | 박람회장 사후 활용 구상(안)

75) ECO=Economy(경제)+Ecology(환경)+Ocean(해양)

한편 주제관, 한국관, Big-O 등 박람회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은 해양 연구센터, 교육기관 및 박람회 기념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관 등은 상업업무 복합건물로 활용하고,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등의 상업시설로 유지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반면에 해양생물관을 제외한 부제관과 기업관, 지자체관, 국제기구관 등은 사후용도 및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임시건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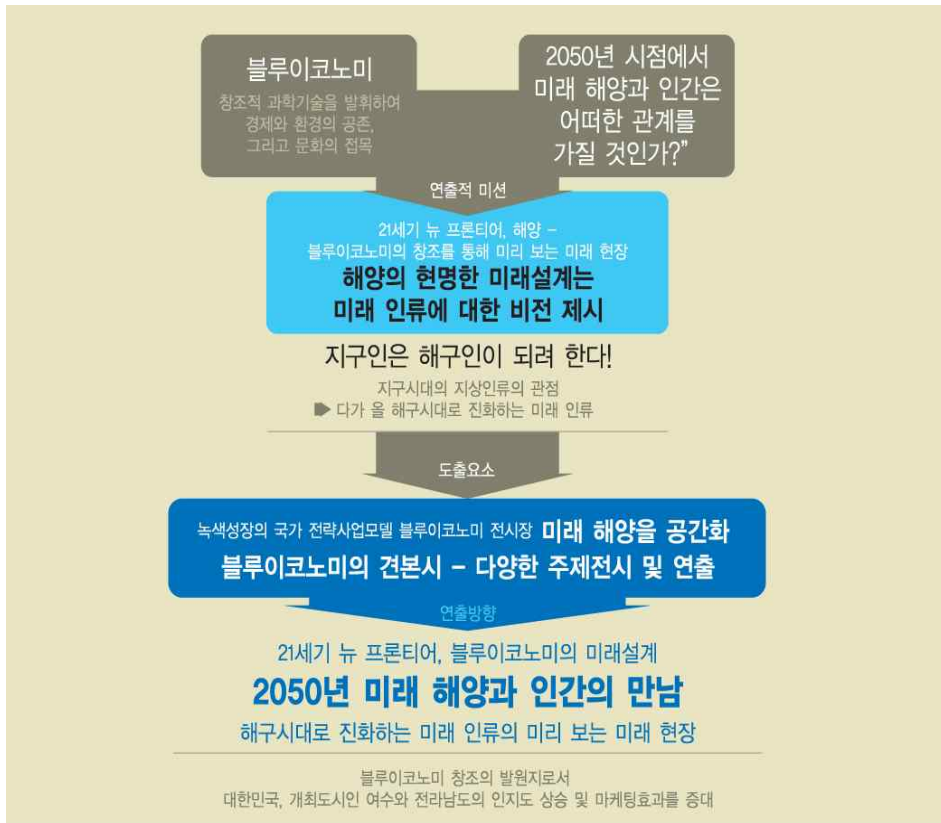
| 표 5-6 | 주요 시설별 사후활용 계획(예시)

구분	주요 시설	사후활용 용도
보존 및 활용	주제관	해양과학관 용도를 겸한 해양연구센터
	한국관	EXPO 기념관
	Big-O	해양과 관련된 Pilot 실험시설
개조 후 활용	국가관	상업·업무시설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 시설, 오피스 등)
	지원시설	가로 상업시설로 활용
	해상 레스토랑 등	해상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
	기타 상업시설	상업시설로 유지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p. 401을 토대로 재작성

3.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조직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1월 말에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현장준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부터 주제·콘텐츠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그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시연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세계에 제시할 메시지의 키워드로서 ‘Blue Economy’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시연출과 각 분야 사업계획에 영향을 주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포괄적 모티브(umbrella motif)가 되고 있다.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전시연출종합계획(안)」, p. 49

| 그림 5-7 | 여수 세계박람회 전시연출의 지향점

박람회장 조성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해상전시 공간으로 계획되었던 Big-O와 다도해 공원은 비용에 비해 상징공간으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 조성에 기술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인 국제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전시 공간은 당초의 Big-O 구역에서 여수신항에서 오동도까지의 전체 해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관은 위치

및 면적 조정과 함께 탄소제로(zero) 시범건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제관은 현상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관의 경우 영구와 임시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고, 독립기업관은 부지 면적과 배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당초 철거하기로 했던 쌍용 사일로는 여수 박람회의 상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아쿠아리움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연면적을 1만 6,500㎡로 조정하였고, 다목적 공연장은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의 상징조형물 건립 대신 주제관 등을 하나의 상징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야외공연장은 기업관 부지 확보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엑스포 타운의 면적과 토지이용계획 등도 변경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당초 기본계획상의 박람회장 조성계획이 크게 보완 및 변경될 경우 관람 동선, 상하수도·통신 등 기반시설 및 기본통신설비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박람회장의 조경·경관계획도 박람회장 조성계획과 연계되어 함께 변경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람회장 조성계획 중 보완·변경이 거론되고 있는 주요 계획들을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조직위는 박람회장 부지 및 시설의 사후활용을 박람회의 장기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조직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기능 설정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소요 및 국가정책 반영 부분에 대한 밀도있는 분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 및 중장기 사후활용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회수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0년 중에는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후활용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표 5-7 | 박람회장 조성계획 주요 보완 및 변경 계획(안)

구분	주요 내용
Big-O, 다도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O 규모 조정(파제제 내에서 오동도 앞까지 확대) • 콘텐츠 현상공모 실시 결과 반영
국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시 건물 비율 조정, 위치 조정
주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관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규모 확대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를 메인게이트 쪽으로 조정 • 부지면적은 당초 8,283㎡에서 9,245㎡로 변경 • 탄소제로 시범건축으로 계획 변경
기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및 배치 조정
아쿠아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협상대상자와 규모 조정
다목적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연면적을 10,500㎡에서 5,800㎡으로 축소
상징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조형물 건립 폐지, 주제관 등을 상징조형물로 조성 추진
야외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관 부지 확보와 연계하여 조성
엑스포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최근 중국이 여수 박람회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2009년 10월 말 현재까지 참가를 확정된 국가는 29개국, 국제기구 3개로 목표치 대비 약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⁷⁶⁾ 조직위원회는 지역별 중점 유치대상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10년까지 70개국을 유치할 계획이다.

| 표 5-8 |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확정 국가 및 국제기구 현황(2009년 10월 말 현재)

구분	참가 희망 현황
국가(29)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우크라이나, 터키, 리비아, 가이아나, 예멘, 이집트, 태국,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과테말라, 스페인, 도미니카공화국, 네팔, 알제리아, 엘살바도르, 세이셸, 코트디브와르, 바누아투, 오만, UAE, 과테말라
국제기구(3)	OECD, IPCC, PEMSEA

76) 2010년 개최되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에는 9월 현재 192개국, 49개 국제기구, 50여 개 도시 및 17개 기업관이 참가하기로 함.

지금까지 홍보·마케팅 활동은 주로 학술행사, 공모전,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모집, 관련 기관과의 협력 MOU 체결 등으로 매체를 통한 전달형 홍보보다는 참여형이 많았다. 그러나 조직위는 2010년에 개최되는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초중고 대상 수학여행단 유치와 기업관 참여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준비상황 종합평가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상황은 외형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한 BIE의 조기 승인은 주최측으로 하여금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조기 확정인 향후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각 분야 사업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라는 엄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기본계획 내용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단순한 전개는 곤란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 진척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종 세부 사업이 순차적 혹은 정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다-연안-육지의 공간을 일체화한다는 기본계획상의 공간조성계획은 토지이용 측면과 주제의 외형적 논리를 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 및 부지의 사후활용성 측면과 전시연출상의 필요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는 않다. 이는 물론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시연출과 사후활용계획의 전체적인 체계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BIE가 공인하는 세계박람회의 목적이 ‘공익’과 ‘대중의 교육’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주제와 관련된 메시지 전달 기능은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에 관한 기본 콘텐츠 설정과 핵심 메시지도출을 조기에 완료하고, 주제 구현과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각 분야 계획에 수용되어야 한다. 현재 여수 세계박람회의 사업 추진은 주제성 부각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개최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타 박람회와 비교해 볼 때 여건상의 강점도, 약점도 갖고 있다.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개최 여건상의 모든 약점을 물리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야에 따른 세부계획의 절충과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에는 박람회 개최가 지역 재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 및 부지의 사후활용 방안을 별도로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까지 박람회 부지 전체에 대한 확고한 재개발 계획은 도출되지 않았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를 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박람회장 내의 건설 사업이 진행될수록 건축물 설계에 사후 수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잠재적 투자자를 최대한 발굴하고 사후 용도를 감안해 각 분야 사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방안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가 개최국마다 다르듯이 개최 여건도 박람회마다 다르다. 파리, 런던, 뉴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도 있지만, 녹스빌, 스포캔, 사라고사, 여수 등과 같이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도 있다.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박람회에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여 개최 여건상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대한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6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을 바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의 개최 여건상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를 살펴해보았다. 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전략으로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조직위원회가 인류문명의 미래상에 관해 여수 박람회의 핵심 모티프로 제시한 ‘Blue Economy’의 개념과 주요과제 등을 정립하여 여수 박람회의 전체 콘텐츠를 체계화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여수 세계박람회의 강점과 약점 분석

여수 세계박람회의 개최 여건상의 강·약점을 제3장에서 수행한 여수 세계박람회 여건 분석과 제4장의 역대 박람회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그리고 제5장의 여수 박람회의 추진상황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제2장에서 제시한 세계박람회 성공조건에 따라 검토하였다.

1) 이벤트로서의 성공조건

제2장에서는 이벤트로서의 성공조건으로 국민과 지역 주민의 호응도, 참가범위, 관람객 만족도 등을 제시하였다.

(1) 국민과 주민의 호응도

BIE 공인을 받은 세계박람회 중에는 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박람회 개최 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⁷⁷⁾ 이를 고려할 때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국민과 개최 지역 주민의 지지와 호응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박람회 자체의 성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수 박람회의 경우에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조직위원회와 여수시에서 간헐적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지도와 참여 의사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근 조직위원회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수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여수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적인 움직임을 고려할 때, 여수 박람회가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77) 아이치 박람회의 경우 개최 예정지의 산림지역에 희귀 생물종인 참매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박람회 개최를 반대하고 지역 여론도 박람회 개최에 부정적으로 바뀌어 박람회 개최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2004년 개최 예정이던 파리 박람회는 BIE 공인을 받았음에도 국내의 반대여론에 따라 취소되었다. 이밖에도 2000년도 하노버 박람회의 경우에도 박람회 준비과정에서 반대여론이 있었다.

(2) 관람객 유치

세계박람회의 이벤트로서의 성공요인 중 ‘참가 범위’는 ‘관람객 수’와 ‘참가 국가’를 포함한다.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 여수 세계박람회는 개최 지역의 위치와 도시규모가 약점으로 작용한다. 여수는 도서를 제외하면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또 반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타 지역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이 어렵다. 이로 인한 접근성의 제약은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다.

도시 규모는 개최지의 관람객 수용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최지의 규모가 클수록 관람객 유치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최근에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다른 도시에 비해 규모가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여수는 1990년도 이후의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중 인구가 가장 작으며, 인근의 순천과 광양시를 포함한 광역 도시 인구 수에서는 스페인 사라고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6-1 |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의 인구 비교

도시명	EXPO 개최연도	EXPO 종류	도시 인구, 천 명 (메트로 인구, 천 명)	기준연도
여수	2010	인정	295(706 ¹⁾)	2008
사라고사	2008	인정	682	2008
아이치	2005	등록	2,202 ²⁾	2004
하노버	2000	등록	523(1,128)	2007
리스본	1998	인정	565(2,641)	최근
대전	1993	인정	1,191	1993
세비야	1992	등록	704(1,500)	최근

주 : 1)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의 인구를 합산한 것임

2) 박람회장이 인접한 나고야시의 인구임

자료 : 여수, 대전, 순천, 광양 등 국내 도시의 인구는 각 시·도의 통계연보, 해외 도시의 경우에는 www.wikipedia.org로부터 인용

그러나 사라고사는 광역 교통여건에 있어서 여수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라고사시는 사라고사주의 주도로서 주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르셀로나, 마드리드, 빌바오(Bilbao), 툴루즈시(Toulouse) 등의 대도시와 300km²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열차로 마드리드까지 1시간 15분, 바르셀로나까지 1시간 반 밖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여수시는 2011년에 KTX선이 개통되어도 서울에서부터 3시간 1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최지의 위치와 도시 규모로 볼 때 여수는 1990년 이후의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중 관람객 유치를 위한 물리적 여건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세계박람회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기준으로 여수보다도 더 영세한 도시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 바로 1974년에 개최된 미국의 스포캔 박람회와 1982년 미국 녹스빌 박람회로서, 모두 현재의 인정 박람회에 해당하는 전문박람회였다. 스포캔 박람회는 당시 시 인구의 28배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관람객을 모아 관람객 유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스빌 박람회 역시 예상을 뛰어 넘는 1,11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한 박람회로 기억되고 있다.

표 6-2 |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소규모 도시의 인구

도시명	EXPO 개최 연도	EXPO 종류	관람객 수 (천 명)	도시 인구, 천 명 (메트로 인구)	기준 연도
여수	2010	인정	8,000 ¹⁾	295(706 ²⁾)	2008
스포케인(미국)	1975	인정	5,200	171(580)	1980
녹스빌(미국)	1982	인정	11,128	184(682)	최근

주 : 1) 유치 목표 관람객 수입

2)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의 인구를 합산한 것임

자료 : 여수, 순천, 광양 등 국내 도시의 인구는 각 시·도의 통계연보, 해외 도시의 경우에는 www.wikipedia.org로부터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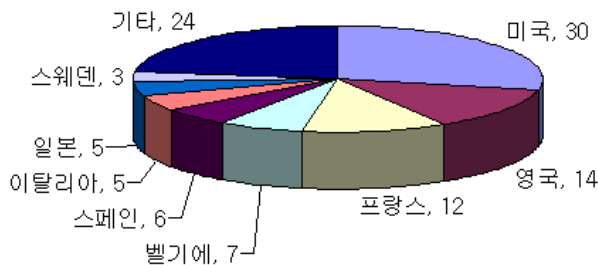
스포캔이나 녹스빌 박람회를 오늘날의 세계박람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두 도시의 사례는 세계박람회의 관람객 유치가 반드시

개최지의 도시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참가국 유치

세계박람회의 참가국 수는 세계박람회의 참가국 유치 활동이 국가 간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최국의 국력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BIE 체제 성립 이후 역대 세계박람회는 미국 30회, 영국 14회, 프랑스 12회 등 주로 강대국에서 개최되었다.⁷⁸⁾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세계박람회를 비롯하여 올림픽과 월드컵 등 글로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참가국 유치를 위한 외교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국 유치 목표의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박람회 주제를 충실하게 구현할 능력을 가진 강대국의 참가가 중요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최가 2년 반 정도 남은 10월 말 현재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28개국을 유치했으나, 영·미계와 라틴계의 주요 국가 중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식적인 참가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 그림 6-1 | 국가별 세계박람회 개최 횟수

78) BIE 체제 성립 이전의 20세기 초에는 강대국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자국의 식민지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다.

(4) 주제의 충실한 구현

세계박람회의 이벤트로서의 성공조건 중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주제에 충실한 전시연출과 축제분위기, 연계 관광상품 등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주제 구현을 위한 전시연출 능력은 개최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경제력 등 개최국의 종합적인 국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대전 세계박람회의 사례나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에 비춰볼 때, 주제 구현을 위한 전시연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적 능력은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할 때, 전시연출의 밑바탕이 되는 콘텐츠의 완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전시연출 콘텐츠는 주제와 관련된 각 분야의 담론들이 나열되어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하나의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5) 관람객 유인 요인

전라남도는 우수한 문화적 유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관광 목적지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전라남도는 2008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 목적지 점유율에 있어서 전체 16개 시·도 중 5~6위에 해당하는 7.5%를 기록하였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목적지 점유율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세계박람회 자체가 대규모 관광객의 유인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세계박람회 기간 중 특별한 이벤트나 관광상품의 개발이 없다면 여수 지역이 자체적으로 갖는 관광객 흡인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6-3 | 내국인의 순수관광 목적지별 점유율(2008)

숙박여행			당일여행		
순위	지역	점유율	순위	지역	점유율
1	강원	27.80	1	경기	22.18
2	경기	11.88	2	서울	10.07
3	충남	9.72	3	강원	9.13
4	경남	8.96	4	경남	8.85
5	전남	7.45	5	경북	8.40
6	경북	7.42	6	전남	7.47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8 순수관광 목적 방문지역별 보고서」, 2009. 7.; korean.visitkorea.or.kr

| 표 6-4 | 외국인의 순수관광 목적지별 점유율(2008)

순위	방문지	응답비율(중복응답, %)
1	서울	74.5
2	인천	20.9
3	부산	17.7
4	민속촌	13.6
5	제주도	11.0
6	에버랜드	9.8
7	휴전선/판문점	7.7
8	수원화성	7.4
9	춘천/남이섬	5.3
10	대장금테마파크	4.9
24	목포/여수	1.0
32	한려해상국립공원	0.3
33	보성차밭	0.3
35	진도/신비의 바닷길	0.2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09. 4.; korean.visitkorea.or.kr

(6) 수익성

세계박람회의 수익성은 관람료, 부대사업, 시설 및 부지 매각 등의 수입과 건설비, 보상비, 운영비 등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시설 및 부지 매각을 통한 민자 부담이 전체 예산의 3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수 세계박람회의 수익성은 민간자본 유치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전시시설 중 수족관과 VIP 숙소용 호텔, EXPO 타운에 대한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지의 협소한 시장규모와 경기부진으로 인해 민자 유치가 용이한 여건은 아니다. 부대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그리 수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정책으로서의 성공조건

정책으로서의 성공조건으로는 명확한 정책 목표의 설정과 공유, 운영 효율, 추진여건 및 가용자원 등을 제시하였다.

(1) 명확한 정책 목표

여수 박람회의 경우에는 세계박람회의 지역개발 효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여수 세계박람회가 지역개발을 한 방편으로서 고려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쓰쿠바 박람회나 하노버 박람회 등의 경우에는 세계박람회 자체가 개최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전제로 추진되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여수가 결정된 것은 1996년에 전라남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당시 해양수산부가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이후, 전라남도가 제시한 12개 개최 후보 지역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0년도에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최 지역은 여수시 소라면에서 여수신항 일대로 변경되었다. 개최지 변경 이유는 소라면 일대가 수산법상 수산자원보전구역으로, 또 인근 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으로 설

정되어 있어 박람회장을 조성할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 소라면 북정리 지역이 도시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개최지가 여수신항 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박람회 이후 도시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재개발에 관한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조사·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004년 국무회의에서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에는 박람회 개최를 전제로 한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이 수차례에 걸쳐 검토되어 현재까지 사후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도입 가능 시설 등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한 박람회장의 종합적인 사후 개발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운영효율 및 추진여건

박람회 추진의 운영효율은 현 단계에서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계박람회가 여러 측면의 복합적 목적을 가지므로, 명확한 부문별 목표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 체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추진 여건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후퇴는 자원 조달 및 민자 유치, 그리고 부지 및 시설 매각에도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이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부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시의적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세계박람회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와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

제1절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의 호응도는 박람회 개최가 2년 반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개최 시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세계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는 개최지의 위치와 수용력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관람객 수용 능력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적기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가국 유치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의 참가 의사를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른 국가의 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미계나 라틴계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제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는 콘텐츠의 도출이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박람회 공간구조를 수정·보완하고 전시시설의 차별화된 기능 설정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박람회 기간 중 커다란 집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을 통한 여수 박람회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최지의 장기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박람회장 지역의 종합적인 사후 재개발 계획을 도출하고, 시설 및 부지의 사후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람회장 전체의 공간구조와 전시관의 설계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보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 국가사업으로서 세계박람회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순서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6-5 |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 여건, 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성공조건	여건 및 추진상황 평가	과제
국민과 주민의 호응도	○ 여수 박람회에 대한 호응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적극적인 참여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필요
관람객 유치	○ 개최지의 위치와 도시규모는 관람객 유치에 불리한 조건임	-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관람객 수용 - 광역 교통망 적기 확충
참가국 유치	○ 참가국 수에 있어서는 유치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등 강대국 유치가 관건	- 주요 해양국가의 조기 참가 확정을 위한 노력 강화
주제의 충실한 구현	○ 전시연출의 기술적 능력보다는 콘텐츠의 체계화 노력이 미흡	- 충실한 콘텐츠의 도출이 시급
관람객 집객 요인	○ 개최지 자체적으로는 관람객 유인 요소가 뛰어나지 않음	-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 기획, 연계 관광상품 개발
수익성	○ 경기 부진으로 민자 유치 및 부대사업 수행에 어려움 예상	- 수익사업과 민자 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명확한 정책 목표	○ 박람회장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 재개발계획이 미흡	-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개발계획 수립 시급 - 사후활용 측면에서 박람회장 전체 공간조성계획과 시설 설계 기준 등을 수정·보완
운용효율	○ 현 단계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 성과관리체계 도입 검토

1)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콘텐츠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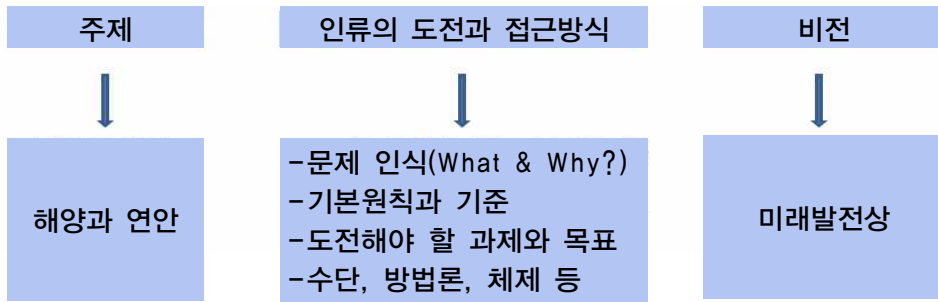
세계박람회는 ‘공중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인류문명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 있어서 인류가 이룩한 성과와 문명의 발전을 위한 수단들, 그리고 이러한 성과와 수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발전상의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⁷⁹⁾ 따라서 세계박람회의 목적과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전시연출 콘텐츠에는 인류가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발전상에 대한 규명과,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현실문제 인식, 문제 극복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 인류가 도전해야 할 과제와 목표, 그리고 과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 및 방법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고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부제어로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현명한 해양의 이용’,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 만남’등을 하위주제로 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어는 박람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시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세계박람회가 다루는 인류문명의 한 분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는 부제어와 하위주제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주제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서는 전시연출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기 이전에 부제어와 하위주제가 제시하는 박람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논리적 완결성을 갖는 콘텐츠로 상세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시연출의 스토리라인이 작성되고, 전시연출의 핵심개념과 기본방향이 도출될 수 있다. 또 각 전시별로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 주요 매체의 선정, 그리고 실내와 야외 공간의 전시연출상의 기능 분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동선체계, 전시관의 위치와 구조 등 전체적인 공간조성계획에도

79) BIE 협약 제1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주제 구현을 위한 충실한 콘텐츠의 도출은 현재로서는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6-2 |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제안

현재까지 진행된 콘텐츠 작업을 통해 각 부제관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들과 수단과 방법, 미래 전망 등은 충분히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인 논리적 완결성을 갖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 시급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장 제3절에서 현재 조직위원회가 인류문명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여수 박람회의 핵심 모티프로 제시하고 있는 ‘Blue Economy’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콘텐츠의 정립의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박람회장 지역의 사후 재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수행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이 단순히 일부 부지와 개별 시설의 처분이나 재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지역개발의 한 방편으로서 성공적인 세계박람회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개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박람회장의 종합적인 사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전제로 박람회 부지와 시설의 매각과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당초 개최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 아니므로 박람회장의 사후 개발 방안이 박람회장 조성 기본계획이나 개별 전시관 설계의 전제조건으로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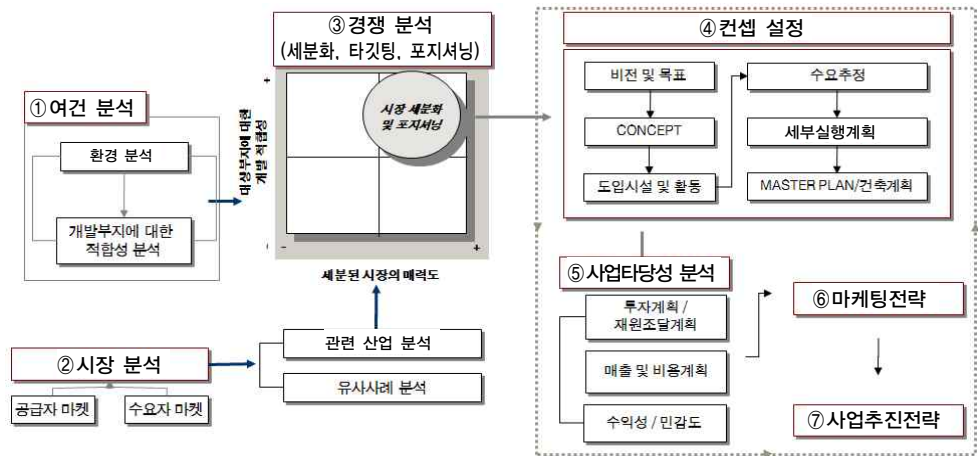
2004년 국무회의에서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에 박람회 개최를 전제로 한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이 수차례에 걸쳐 검토되어 현재, 사후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도입가능 시설 등이 제안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수 박람회장의 사후 기능으로서 크게 관광·레저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문화 기능, 교통중심 기능, 상업·업무 기능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과정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박람회장 조성과 각 시설의 설계 기준에 현실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6-6 |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사례

과제명 또는 조사연구 기관	도입비전	도입기능
KIET(2004) KDI(2005)	-	해양휴양도시 개발 국제전시 및 컨벤션센터 개발 해양 테크노파크 및 업무단지 개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기본계획(2007)	국제적 관광·레저 항만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크루즈항만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종합기본계획(2008)	Blue Ecopolis 선벨트의 거점도시	해양연구센터 기능 국제 해상·육상교통 기능 해양레포츠 기능
보완용역(2008)	국제적 해양지식·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편의기능, 상업·업무 기능 해양레포츠 기능, 해양지식기능, 국제관광 기능
여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후활용 방안 연구 (2008)	21세기 환경친화적 해양도시	해양연구기능, 해양관광기능, 해양레저기능, 교통거점기능, 배후도심기능

자료 :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여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후활용방안 연구」, 2008. 12

사업타당성 분석은 최종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가정을 전제로 관련된 모든 요소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기초적인 여건 분석과 함께 공급자 및 수요자 시장의 분석, 마케팅전략 수립, 토지이용계획, 투자 계획·재원조달계획 등 계획된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상세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료 : E&P Consulting, 내부자료, 2009. 5

| 그림 6-3 | 사업타당성 분석의 과정

이 과정에서 잠재 투자자에 대한 예비적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의 수요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계획과 각 시설의 설계기준을 수정·보완하는 환류과정(feedback)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실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전체의 공간구조와 시설 설계기준이 결정될 때, 여수 세계박람회가 사후활용에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람회장 조성에 있어서 사후활용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관람객을 일시에 수용하여야 하는 박람회장과 전시관의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박람회 사후에 시설의 매각이나 재사용이 어려워 지거나 지나치게 높은 개조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3) 국민의 참여동기 유발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박람회 개최에 우호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여수 박람회의 실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않는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여수 박람회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동기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박람회가 갖는 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킬러 콘텐츠의 개발과 관람객 유인을 위한 개최 지역의 장소 마케팅 전략과 같은 보다 근본적 수단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미디어 전략과 함께 네티즌을 통한 구전(口傳) 효과를 위해 ‘사이버 박람회’ 개최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략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대기업들과의 스폰서십 체결은 그 자체가 박람회 수익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스폰서 기업을 통한 박람회 홍보효과도 매우 크다. 특히 국내외 미디어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은 박람회에 대한 전체 홍보효과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4) 관람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 기획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세계박람회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하며, 관람객에게 주제와 관련된 체험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은 위락이나 상업적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이벤트와 뚜렷이 구별되는 세계박람회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박람회의 고유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박람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박람회의 내용 자체가 충실해야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박람회 기간 중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관람객의 주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관람객의 전체적인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객효과가 높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 여수와 인근지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국 각지로부터 관람객을 모으기 위함이다. 또 인근 지역에 박람회와 병행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관람객의 분산 수용을 도모할 수 있다.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수 박람회 관람객의 주요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단위의 도시민을 목표로 한 이벤트 개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박람회 주제와 무관하더라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수와 인근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벤트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매력을 갖겠지만, 소수의 애호가만이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홍보 측면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가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수가 즐길 수 있는 위락적 요소가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최지의 위치나 수용력으로 볼 때에는 박람회와 연계하여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준비함으로써 관람객을 분산 수용하고 관람객의 전체적인 여행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 유치의 목표 시장

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및 일본 관람객을 목표로 한 이벤트와 관광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광역 교통망의 적기 확충

여수시 자체만으로는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 숙박 관람객 수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박람회 개최 기간과 겹치는 하계 휴가기간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과 연계하는 관광경로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접근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목포 - 광양, 전주 - 광양 간 고속도로,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박람회장 내 크루즈 및 여객 터미널 등이 계획되고 있어서, 박람회장까지의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흥 - 여수 간 연육·연도교의 박람회 개최 전 완공과 박람회장까지의 연안여객 항로의 개설은 아직도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 도로망으로부터 박람회장까지의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내 연결도로의 확충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6) 주요 선진국의 조기 참가 확정을 위한 유치활동 강화

하나의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박람회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사라고사 박람회의 예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미국은 2000년 하노버 박람회에 불참하였으며, 2005년 아이치 박람회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참가하였으나 2008년 사라고사 박람회에는 다시 불참하였다. 사라고사 박람회에는 선진국 중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영·미계 국가가 모두 불참하였다. 이들 5개국은 모

두 해양 강국이거나 도서 국가로서, 미국의 영향으로 해양을 주제로 하는 여수 박람회에도 모두 불참한다면 글로벌 이벤트로서 여수 박람회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의 참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⁸⁰⁾ 참가국 유치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지만, 미국은 법률로서 국가차원의 세계박람회 참가를 위한 정부 예산 배정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불할 미국의 민간단체나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여수 세계박람회에 미국 유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⁸¹⁾ 박람회 개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유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미국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계열 국가의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온 다른 선진국이나 경제대국 중에도 미국과 같이 세계박람회의 위상 변화를 이유로 박람회 참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 부진이 세계 각국의 박람회 참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BIE 공인을 받은 후 1년 만에 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한 BIE 승인을 받음으로써 참가국 유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따라서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세계의 해양

80) 中村利雄, 「2005年 日本國際博覽會 愛・地球博回顧錄」, 財團法人 地球産業文化研究所, 2007, pp. 54~57.

81) 2009년 10월 말 현재 191개국의 참가가 확정된 상하이 박람회의 경우에도 아직 미국의 참가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해 상하이 박람회 참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국무부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박람회 참가를 공식 선언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참가국 유치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참가국 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수익사업 및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조직위원회의 여수 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수 박람회의 총 사업비 2조 389억 원은 자체수입 7,380억 원, 민간자본 유치 7,107억 원, 공공지원 5,902억 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자체수입은 입장료, 휘장, 광고, 기념주화 발행, 시설임대, 시설 유치, 부지 및 시설매각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지 및 시설매각에 따른 수입이 3,56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 휘장사업은 기업이 유·무형의 박람회 상징물을 기업 광고 또는 마케팅에 독점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금전, 물자,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으로서 총 960억 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자본 유치는 크게 민간투자자와 민간기부로 나누어지며, 민간투자자는 수족관, 콘도, 엑스포타운 등에 총 6,044억 원, 민간 기부는 독립기업관과 가목적 공연장 등에 총 1,063억 원을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으로부터 조달해야 할 자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입장료 수입과 기념주화 발행 수입을 제외하고 총 1조 2,605억 원에 이르러 전체 사업비의 62%를 차지하게 된다. 즉 민간기업으로부터 여러 형태로 조달받는 자본의 규모가 박람회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민자유치가 부진하면 중국에는 국고의 재정부담을 늘려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시장 여건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박람회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박람회를 통해 수익과 홍보·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 박람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지 및 시설매각을 통한 수입은 박람회장의 재개발계획이

민간 투자자에게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주며 또 얼마만큼의 수익기회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상황을 반영한 충실한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한 박람회장의 재개발계획이라면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모든 전략적 요소가 민간자본 유치의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표 6-7 | 여수 세계박람회 자원조달 계획

구분				금액(억 원)	구성비(%)
자 체 수 입	부 대 사 업	입장료		1,832	9.0
		회장		960	4.7
		광고		225	1.1
		기념주화		50	0.2
		시설임대		50	0.2
		시설유치		199	1.0
		부지 및 시설 매각		3,566	17.5
민 간 자 본	민 간 투 자	수족관	계	829	4.1
			민자	586	2.9
			재정	243	1.2
		콘도	계	265	1.3
			민자	265	1.3
			재정	-	-
		엑스포타운	계	5,763	28.3
			민자	5,193	25.5
			재정	570	2.8
		소계	계	6,857	33.6
			민자	6,044	29.6
			재정	813	4.0
	민 간 기 부	독립기업관	계	173	0.8
			민자	173	0.8
			재정	-	-
		U-Expo 구축	계	500	2.5
			민자	300	1.5
			재정	200	1.0
		다목적 공연장	계	553	2.7
			민자	350	1.7
			재정	203	1.0

| 표 6-7 | 여수 세계박람회 자원조달계획(계속)

구분				금액(억 원)	구성비(%)
민 간 자 본	민 간 기 부	문화행사	계	668	3.3
			민자	240	1.2
			재정	428	2.1
		소계	계	1,894	9.3
			민자	1,063	5.2
			재정	831	4.1
공공지원				5,902	28.9
합계				20,389	100.0

주 : 굵은 글자체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할 자분을 의미함

자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본계획」, 2008

3. 해양기반 경제의 미래상, ‘Blue Economy’ 개념 정립

제3절에서는 세계박람회가 구현할 인류문명의 미래상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조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Blue Economy’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해양대국의 국가 해양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요소들을 정리하여 ‘blue economy’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수 박람회의 전시연출 콘텐츠를 체계화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 Blue Economy 용어의 사용 사례

‘Blue Economy’라는 용어는 현재 각종 미디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언론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고,⁸²⁾ 인도 경영대학(IFS)의 Dipankar Dey 교수는 ‘오염원에 중

82) 사례로는 <http://www.dallasnews.com/sharedcontent/dws/bus/stories/010409dnnatgreenjobs.2124064.html>, http://www.lincolnsavingsbank.com/docs/05_08_Green.pdf 등을 참조.

독된 경제(intoxicated economy)’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⁸³⁾ ‘Blue collar’와 연관지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⁸⁴⁾

약 10년 전부터는 중국과 캐나다의 정부기관에서 Blue Economy를 ‘해양’ 혹은 ‘물’ 관련 경제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3년에 남색 경제(藍色經濟, Blue Economy)의 도래를 위한 ‘해양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⁸⁵⁾ 캐나다 퀘벡 주 정부는 1999년에 ‘The blue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St. Lawrence’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하여 St. Lawrence 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Blue Econom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⁸⁶⁾

최근 들어서는 미래학자와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경제의 의미로 Blue Economy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사설 연구단체 미래 연구소(Institute for the Future)의 Anthony Townsend 박사는 해양관련 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Blue Economy를 사용했다. 그는 2005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래 인류문명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Blue Economy를 설명하고 있는데, ‘연안으로의 인구 집중과 전통자원의 공급 한계에 따라 해양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앞으로는 해양이 신성장의 길(avenue)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IT의 Michael Joroff 교수는 Blue Economy를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한 해양의 상업적 개발’로 정의하였다. 그는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모든 해양의 상업적 개발 행위를 선별하는 기준이 되며, Blue Economy는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해양산업에 비해 해양개발과 관련된 가치사슬상에서 각 산업이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는 체제’라고 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가치 창출뿐만

83)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21675

84) <http://musea.wordpress.com/2009/09/21/musea-extra-two-new-terms-red-economy-blue-economy/>

85) http://english.peopledaily.com.cn/english/200108/17/eng20010817_77533.html

86) http://www.planstlaurent.qc.ca/centre_ref/publications/lefleuve/vol10_07/vol10_7_e.PDF

아니라 해양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까지 고려하여 해양의 상업적 개발 행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운, 수산, 관광 등 개별적인 산업 활동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개발에 앞서 해양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가 창출됨을 강조하였는데,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기존의 해양산업과 Blue Economy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는 Blue Economy를 주제로 한 포럼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the Blue Economy: Understanding the Ocean’s Role in Our Nation’s Financial Future’라는 제목의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이 포럼은 6월 9일부터 사흘간 국립해양보호구역재단(National marine Sanctuary Foundation)을 주최로 열려 해양과 미국 경제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해양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포럼에서 국가해양대기청(NOAA)의 Jane Lubchenco 청장은 Blue Economy를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해양기반의 경제’로 정의하였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의회의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the Blue Economy: the Role of the Oceans in Our Economic Future’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청문회에서 동 위원회 의장인 Maria Cantwell 의원은 Blue Economy를 ‘해양과 오대호, 그리고 연안자원으로부터 출현하는 고용과 경제적 기회’로 정의하였다. 또한 Cantwell 의장은 ‘해양경제(ocean economy)’와 구별하여 지리적 개념의 ‘연안경제(Coastal econom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연안지역에서 GDP의 60%에 이르는 부가가치와 5,000만 개 이상의 고용이 창출됨을 강조하였는데, 지리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Blue Economy를 해양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중국에서는 지난 8월 산둥성 정부가 ‘2009 Qingdao International Blue Economy Summit Forum(2009 中國・青島 藍色經濟發展國際高峰論壇)’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Jiang Daming 산둥성 성장(省長)은 Blue Economy를 Ocean Economy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해양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해양경제 체제’로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lue Economy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 분야의 전문가들마저도 Blue Economy의 의미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념상의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핵심적 가치에 있어서는 사용자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Blue Economy는 최근 해양지향형 경제를 의미하는 정책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사용자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달라 세계박람회의 주제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념정립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Blue Economy의 부정적 의미를 불식시키고, 해양지향형 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Blue Economy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lue Economy를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및 지원하거나, Blue Economy를 제명으로 하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영문 e-journal을 발간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8 |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Blue Economy에 대한 견해

발표자	발표 장소 및 시기	Blue Economy에 대한 설명(정의)
Anthony Townsend	www.blueeconomy.com (2005)	• 경제, 기후, 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양은 다시 인간 활동의 새로운 개척영역 중 선두를 차지하게 될 것 ⁸⁷⁾
Michael Joroff MIT 교수	Blue Economy 포럼, 서울 (2009. 5. 7)	•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한 해양의 상업적 개발을 의미

87) 원문은 “... a convergence of economic, climatological and technological forces will bring the oceans back to the forefront as a new frontier for human activity.”

표 6-8 | 해양 분야 전문가들의 Blue Economy에 대한 견해(계속)

발표자	발표 장소 및 시기	Blue Economy에 대한 설명(정의)
Michael Joroff MIT 교수	Blue Economy 포럼, 서울 (2009.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해양산업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각 산업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며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선별하는 기준이 됨⁸⁸⁾
Jane Lubchenco 미국 해양대기청 청장	Blue Economy 포럼, 미국 (2009. 6. 9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해양기반의 경제⁸⁹⁾
Maria Cantwell 미국 상원의원	상원 청문회 (2009. 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과 오대호, 그리고 연안자원에서부터 출현하는 고용과 경제적 기회⁹⁰⁾
Jiang Daming 중국 산둥성 성장	칭다오 Blue Economy 포럼 (2009. 8. 10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Ocean Economy와 비교할 때 더 과학적이고 심오하고 넓은 범위의 과제를 다루며, 높은 수준의 산업 발전과 해양과 육상자원 간의 조화로운 이용, 기술적 혁신과 해양생태계의 보호가 중시되는 경제체제

표 6-9 | Blue Economy에 대한 인식의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의 원칙 강조 높은 성장 가능성과 경제적 중요성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thony Townsend는 새로운 자원 공급원으로서 해양의 잠재력 중시 Michael Joroff는 해양의 자원 잠재력을 중시하나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필수적 조건으로 인식 Maria Cantwell은 Blue Economy를 설명함에 있어서 ‘연안경제’라는 지리적 개념 도입 중국의 Jiang Daming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산업의 태동과 해양산업의 혁신을 중시

88) ‘The Blue economy concept is about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oceans in a sustainable way. It is a new lens for thinking about ocean industries that are more connected to each other than they seem now but also that sustainability needs to be a filter for every use of the ocean, from tourism to resource mining to aquaculture.’

89) ‘a vibrant, ocean-based economy that is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90) ‘the jobs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at emerge from our oceans, Great lakes, and coastal resources’

2)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 동향

Blue Economy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발표한 해양 부문의 국가계획을 검토하고, 각국의 정책이 지향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Blue Economy가 미래 해양지향형 경제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일종의 정책 용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 부문의 국가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부문의 국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과 EU 등 서구국가로 확산된 것이다.

주요 해양국들의 해양정책은 공통적으로 해양 부문의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산된 해양 관련 행정 기능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해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위급으로 이루어진 해양정책 태스크포스(Ocean Policy Task Force)를 구성하였으며, EU는 2007년 10월 10일에 EU 통합해양 정책(An Integrated Maritim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의 종합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였고, 중국은 2008년 7월 국가해양국을 해양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하에서는 국가별 해양 부문 계획의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계획에 나타난 미래 해양경제의 발전상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미국 경제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해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 의회가 2000년도에 해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해양정책을 제시하도록 결의한 이후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친 현재까지 해양정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미국이 국가 해양정책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과 가치를 재인식했기 때문이다. 해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책수립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2004년 9월 미국 의회는 해양정책위원회가 제출한 해양정책 보고서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를 채택하고 부시 행정부에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 결의에 따라 2004년 12월에 ‘U.S. Ocean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경제에서 해양과 연안, 오대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해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위급으로 이루어진 해양정책 태스크포스(Ocean Policy Task Force)를 설치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90일 이내에 기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180일 이내에 실행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표 6-10 | 미국 Ocean Blueprint의 비전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관리에 의한 깨끗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해양과 연안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국가 해양정책 조직체제 구축 교육 강화와 국민의 해양의식 증진 연안의 경제적 발전과 연안자원의 보호 연안과 해양의 수질 개선 해양자원의 이용 증진과 적절한 보호 과학적 의사 결정을 위한 해양에 대한 지식 증진 국제적인 해양과학 연구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참여 실행계획

| 표 6-11 | 오바마 정부 해양정책 태스크포스의 일정별 임무

일정	정책과제
90일 이내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건전성 보호, 유지 및 회복 • 해양 및 연안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 해양문화유산 보존 • 기후변화 이해 및 대응능력 강화 • 국가 안보와 국제사회 이해 간 조화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우선순위 • 연방정부의 정책협력체제 점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협력체제 구축 • 국가차원의 이행전략
180일 이내 (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및 연안에 대한 공간계획 (보전, 경제활동, 이용자 간 갈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괄하는 종합적, 통합적, 생태계 기반의 체제)

한편 미국은 해양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과학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07년에 의회가 채택한 Ocean Blueprint에 의거하여 국가 해양과학 연구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사회와 해양의 상호관계가 커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해양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가 주도해야 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20개 우선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표 6-12 | 미국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20대 우선연구과제

구분	내용
자연적, 문화적 해양자원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현황 • 종간, 서식지/종 관련성 • 인간의 자원사용 양태 • 신지식의 적용
연안생태계의 복원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사고 예측 • 연안-해양시스템 반응 • 재해경감용 모델, 정책, 전략의 개발
해양운용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운용-환경 상호작용 • 환경인자의 적용 • 환경영향과 해양운용
기후에서 해양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후 상호작용 • 생지화학적, 생태계 연루 • 미래 기후변화 및 영향
생태계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인위적 영향 • 사회경제적 평가모델 개발 • 지표와 기준 개발
인간 건강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인위험 근원과 과정 • 해양자원의 잠재적 혜택 • 해양자원-건강위험-인간활동 관계 • 제품과 생물학적 모델의 개발

(2) 유럽연합

EU는 해양경제의 발전과 해양잠재력의 증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명 Green Paper로 불리는 ‘An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Seas’를 마련하였다. Green Paper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에 의해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수단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i) 해양개발의 주도권 유지, ii) 연안지역의 삶의 질 향상, iii) 해양관리 수단의 확보, iv) 해양 거버넌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표 6-13 | EU Green Paper의 부문별 추진방향

구분	내용
해양개발의 주도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 지식과 기술의 경쟁력 유지 • 해양기술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 증가 •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 해양산업 지원체계 구축
연안지역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연안지역 조성 • 연안재해 적응 • 해양관광 개발 • 육지와 해양의 통합관리
해양관리 수단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 해양경제성장을 위한 공간계획 • 연안지역의 재정적 지원장치 구축
해양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정책의 일관성 유지 • EEZ와 공해상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 • 국제협력 •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협력 추진

한편 EU 위원회는 Green Paper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0월 유럽 통합해양정책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인 ‘Blue Book and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통합적 접근, 생태시스템적 접근, 이해 관계자의 참여 등을 포함한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 분야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 표 6-14 | EU 통합해양정책의 5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 생태시스템적 접근(Ecosystem Approach) • 보완성(Subsidiarity) • 이해관계자의 참여(Stakeholder Participation) • 역동적인 발전(Dynamic Development)

(3) 중국

중국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전국해양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양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양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추진사업 및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후 수립된 중국의 해양정책과 기술발전계획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5년 10월에 발표된 ‘제11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해양산업 분야를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경제 전체에서 해양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어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해양권익의 수호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해양국은 2006년 제11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년) 중의 ‘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 개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11·5 기간의 중국 해양과학기술 3대 추진방향, 5대 목표와 7대 임무를 제시하였다.

표 6-15 | 중국 11·5 계획에 나타난 해양산업 발전방향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임무
해양의식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해양 기본의식 및 교육 보급 각급 지도층에 대한 해양의식 및 지식 재교육
해양권익의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해 및 EEZ 내에서의 권익보호 활동 강화 분쟁 도서에 대한 주권관리 강화 자원에 대한 권익 수호
해양생태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해, 장강입구, 주강 등의 생태악화 완화
해양자원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EZ, 대륙붕, 국제 자원 개발
해양종합관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행정의 통합관리 등

| 표 6-16 | 중국 해양과학기술발전계획 추진방향 및 목표

구분	주요 내용
3대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초와 기초응용연구의 발전 • 해양첨단기술과 응용기술의 산업화 • 신해양산업의 육성
5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초과학 연구능력과 수준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중대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며,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 개선과 독자적인 혁신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함 • 과학기술이 해양경제, 해양관리, 재해방지, 국가안전 등에 대한 지원능력을 대폭 강화함 • 해양경제에 대한 해양과학기술의 기여율이 50%를 차지하도록 함 • 해양과학기술 자원배치를 개선하고, 해양과학기술 인재를 30% 이상 증가시키며 해양과학기술을 해양산업의 급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게 함 • 2020년까지 중국 해양과학기술의 총체적인 수준을 세계 중등 수준에 도달되게 하여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함

2008년 2월에는 국가해양국이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종합적인 국가해양계획으로서 국가가 해양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해양권익 수호, 안전보장, 해양종합관리 강화, 해양자원 개발,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과학기술 창출능력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⁹¹⁾ 이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 인력 확충 및 능력 향상, 투자 확대, 해양의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계획에서 2008년 현재 GDP의 10% 수준인 해양산업 부가 가치를 2011년까지 GDP의 1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해양산업 분야에서 연평균 100만 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의한 해양산업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4) 일본

일본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통한 해양입국을 지향하고

91) http://dockdocenter.drg/dockdo_news 참조.

있다. 2007년에 제정된 해양기본법은 일본 해양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이 법은 국제법에 따라 해양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 등을 통해 해양입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양안전 확보, 전지구적 해양위협에 대비, 최대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력 구축, 해양관할권 대응, 종합적 해양정책 수립 등이다.

해양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는 2008년 3월에 법정계획인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개정되며 해양기본법이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중장기적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 표 6-17 | 일본 해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발	•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개발 등의 원활한 추진, 해양자원의 계획적 개발 등 추진
해상수송의 확보	• 외항해운업에서 국제경쟁력 및 일본적선 및 일본인 선원 확보, 선원 등의 육성·확보, 해상수송거점 정비, 해상수송의 질적 향상
해양안전의 확보	•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해양에서 기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해양조사 추진	• 해양조사 실시, 해양관리에 필요한 기초정보 수집·정비, 해양에 관한 정보의 일원적 관리·제공, 국제연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 기초연구 추진,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추진, 연구기반 정비, 연대 강화
해양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	• 경영기반 강화, 새로운 해양산업 창출, 해양산업 동향 파악
연안 종합적 관리	• 육역과 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안역 관리, 연안역에 있어 이용조정, 연안역 관리에 관한 연대체제 구축
낙도의 보전	• 낙도 보전·관리, 낙도 진흥
국제적 연대 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	• 해양 질서형성·발전, 해양에 관한 국제적 연대, 해양에 관한 국제협력
해양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인재육성	•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조치, 청소년 등의 해양에 관한 이해 증진, 새로운 해양입국을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

(5) 종합 정리

이상과 같이 세계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정책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국가 정책에 있어서 해양 부문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U와 중국이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였고, 일본은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해양정책 수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미국은 지난 10년간 연방차원의 통합적 해양정책 수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 해양 부문의 위상 제고는 모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해양을 주제로 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각국의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과제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의미와 시의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Blue Economy는 해양과 관련된 인류사회의 관심사를 함축하는 박람회의 주제어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개념은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에서 나타난 공통의 주제들을 바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해양대국의 국가 해양정책에서 나타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핵심 단어(keyword)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 표 6-18 | 4대 해양대국 해양정책의 공통 주제 및 과제

핵심어	내용	주요 과제
Increased Interaction (배경적 요소)	해양과 인류사회의 상호관계 증가	종합적 국가 해양정책 체계 확립, 국제협력 강화
sustainability (정책의 원칙)	개발과 보존의 조화	생태계 기반 관리, 해양·연안의 통합적 관리
Innovation (정책과제)	문제 극복과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의 혁신적 발전	해양 R&D 투자 제고, 해양과학기술의 산업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Response, Adaptation, and Mitigation (정책과제)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적응 및 영향경감	해양조사 및 관측, 해양기초과학 육성, 대응·적응·영향경감 기술 개발, 연안 이용의 구조조정, 해양·연안 환경 보호
International cooperation (정책과제)	거대 해양과학 연구 및 국제적인 정책결정에 있어서 리더십 확립	국제 연구개발 협력, 국제적인 정책 결정 주도
Public awareness (정책과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인재 육성

3) Blue Economy의 정의, 배경 및 조건

(1) Blue Economy의 정의 및 범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Blue Economy의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Blue economy는 ‘해양과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경제의 새로운 모형’을 의미한다.

Blue economy를 유사개념인 ‘Ocean Economy’⁹²⁾ 혹은 ‘Coastal Economy’⁹³⁾와 같이 경제체제 내 특정 산업군이나 지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Ocean Economy’나 ‘Coastal Economy’와 혼동될 소지가 높고, 해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내의 거의 모든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양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Blue Economy의 범위를 물리적으로 한정하기가 어려기 때문이다. ‘Green Economy’가 환경관련 특정산업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경제발전 모형’을 의미하듯이,⁹⁴⁾ Blue Economy의 의미도 ‘해양과 긴밀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림 6-4 | Green Economy와 Blue Economy의 의미

92) ‘Ocean Economy’는 해양과 긴밀하게 연관된 산업군을 의미하며, marine economy, maritime economy, ocean industry, marine industry 등으로 지칭되기도 함.

93) ‘Coastal Economy’는 지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해역과 육역의 환경이 교차하는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총칭.

94) www.wikipedia.com

세계의 해양대국들이 최근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을 수립한 이유도 해양과 관련된 특정 산업군이나 한정된 지리적 범위의 경제활동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과 가치를 재인식했기 때문이다.

(2) Blue Economy의 배경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통합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다음 <표 6-1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동인(動因)이 작용하였다.⁹⁵⁾

| 표 6-19 |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 강화 동인(動因)

구분	내용
지속가능성의 원칙 (sustainability)	각국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생태경제적 효율 중시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이 해양을 통해 현실화되며, 이에 대응, 적응, 혹은 경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자원 공급 (resource Supply)	전통자원의 압박과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대한 해양자원 잠재력의 개발이 가능해짐
해양과학기술 발전 (Technology push)	해양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고 해양예의 접근성이 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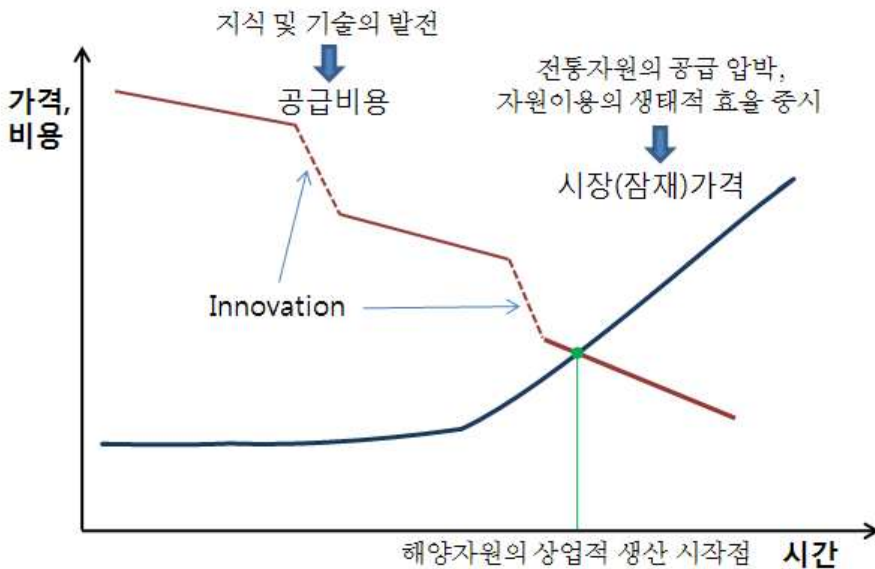
(3) Blue Economy의 조건

해양은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며 미래 인류사회는 해양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게 되었다. 해양을 통해 나타나는 위기 상황은 해수면 상승, 수온 변화, 해수 산성화, 기상 이변 등에 따라 인구 및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연안지역의 침수 및 침식, 자연재해 증가, 연안 생태계 및 해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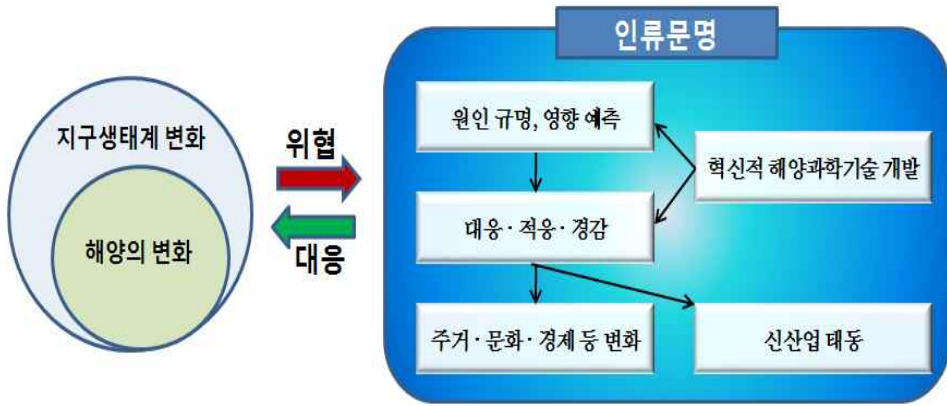
95) Shepherd, I., *Towards a future Maritime Policy for the Union: A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the Seas*, ec.europa.eu/maritimeaffairs. 2007. 9.

원 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인류사회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 측면과 위협에 대응하는 수세적 측면 모두에서 성장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공세적 측면의 기회요인으로는 해양과학 및 첨단 요소기술의 발전, 전통자원의 공급 압박, 생태적 효율 중시 경향 등으로 해양의 방대한 자원 잠재력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수세적 측면의 위협요인으로는 기후변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 변화가 주로 해양을 통해 나타나며, 인류사회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



| 그림 6-5 | Blue Economy에서의 해양자원 수급모형(공세적 측면)



| 그림 6-6 | Blue Economy에서의 해양 기인 위협의 대응 과정(수세적 측면)

한편 해양을 통한 지속적인 부(富)의 창출을 위해서는 해양자원의 유량(流量, flow)에 대한 관리 못지않게 저장(貯量, stock)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해양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양자원 잠재력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양자원의 저장에 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은 해양자원의 공급기반 자체를 훼손한다. 수산업에서와 같이 한 산업의 과도한 자원 생산이 동일 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한 산업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타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해양자원의 저장에 대한 관리의 연안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 활동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제 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각 산업마다 해양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므로, 이를 공통의 기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의 적용이 필히 요구된다.

해양을 통한 기회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신적 발전이 수반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양은 실로 다양하고 방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늘날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양자원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자원은 아직 미이용 상태

로 남아있다. 해양자원 중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이 기존 자원의 완전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잠재 자원량이 커서 전통자원에 대한 궁극기술(backstop technology)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즉 미이용 해양자원의 개발은 방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Blue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미이용 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기술의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혁신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해양의 환경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양의 변화에 대한 파악과 원인 규명,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법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과 전지구적 차원의 공조도 절실히 요구된다. 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건설에 방대한 투자와 긴 선행기간이 필요하며, 투자자는 매우 높은 재무적·기술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는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기 다른 비교우위 요소를 가진 복수의 국가가 합작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새로운 해양자원 개발사업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한 선점 혹은 독점되기보다는 다수 국가에 의한 협조적 경쟁(cooperative competition) 체제 하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양의 변화는 전지구적인 현상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과학 연구 역시 각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 공조(global collaboration) 체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lue Economy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양개발의 잠재력을 증강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과, 국가 간 협력 및 세계적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오늘날 인류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진 해양의 역할에 대해 세계인이 공감하고

Blue Economy의 전개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 호응할 때에만 가능하다. 인류사회의 공통적 관심사에 대한 다중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수 세계 박람회는 이러한 점에서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4) Blue Economy의 개념 정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Blue Economy의 개념과 배경, 조건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Blue Economy의 정의는 ‘해양과 긴밀해진 상호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의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Blue Economy는 특정 산업군이나 한정된 지리적 범위의 경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해양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그로부터 성장의 기회를 찾는 인류 경제사회의 새로운 발전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Blue Economy의 배경은 지구 생태계와 해양환경의 변화, 전통 자원의 공급 압박,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인류사회의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대량 소비를 전통적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미래 인류사회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으로부터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Blue Economy의 조건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른 해양의 개발과 보존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중심 접근방식에 의한 해양·연안의 통합적 관리체제의 확립과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세계적 공조(global collaboration)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표 6-20 | Blue Economy의 개념, 배경 및 조건

구분	내용
정의	해양과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경제의 새로운 모형 (a New Economic Development Model under the Increased Interactions between Human society and the Ocean)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의 원칙(sustainability) • 기후변화(climate change) • 자원 공급(resource Supply) • 해양과학기술 발전(Technology push)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의 개발과 보존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 실현 • 생태계 중심의 접근방식에 의한 해양 연안의 통합적 관리 • 해양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 • 해양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세계적 공조의 활성화 •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 증진

제 7 장 결 론

세계박람회는 수 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성공한 박람회의 경우에는 국가위상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의 진흥, 첨단기술개발의 촉진 등 그 파급효과가 국민경제에 지속적으로 미치게 되지만, 실패한 박람회는 당초의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사후시설의 관리 등의 사회적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민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수 박람회가 ‘해양’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 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미디어로서 오늘날의 세계박람회는 불과 수십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세계박람회가 갖는 미디어로서의 특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박람회는 현장성, 직접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송수신자 간의 일체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벤트의 일종으로서, 디지털 매체, 위성방송과 함께 제5의 미디어로 불리고 있다. 세계박람회의 위상 변화는 박람회가 갖는 미디어로서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BIE가 규정하는 세계박람회의 모형 혹은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IE 규정에 따른 세계박람회는 다른 상업적 목적의 이벤트와는 구별되는 고유성을 갖는다. 그것은 인류 공영을 위한 보편적 주제 하에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글로벌 이벤트라는 점이다.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는 필연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투자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사업이 단지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벤트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구체적 목적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세계박람회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국가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관련 산업 진흥,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도시 재생과 지역산업의 진흥 등과 같은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 개최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로서 세계박람회 자체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고,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투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을 이벤트로서의 성공요인과 정책으로서의 성공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벤트로서의 성공요인으로는 박람회 개최에 대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호응도, 관람객 유치, 참가국 유치, 주제의 충실한 구현, 관람객 집객요인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책으로서의 성공요인으로는 명확한 정책 목표의 설정과 공유, 운영효율, 사업추진 여건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공조건을 바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여건과 추진상황에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의식이 여수 박람회에 대한 실제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수 박람회에 대한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참가국 유치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의 참가 의사를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른 국가의 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제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리적 완결성을 갖는 콘텐츠의 도출이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박람회 공간구조를 수정

· 보완하고 전시시설의 차별화된 기능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박람회 기간 중 커다란 집객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여수 박람회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최지의 장기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박람회장 지역의 종합적인 사후 재개발 계획을 도출하고, 시설 및 부지의 사후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람회장 전체의 공간구조와 전시관의 설계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이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부문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시의적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세계박람회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와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목적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Big-O 장기발전구상」, 2009. 4. 30.
_____, 「2008 사라고사 박람회 개관 및 참가보
고서」.
_____,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KBS, “EXPO 성공신화의 해법”, 2008. 9. 25.
KOTRA, 「2005 아이치EXPO 한국관종합보고서」, 2005. 12. 30.
_____, 「2005 아이치EXPO 한국관종합보고서」, 2005. 12. 30.
_____, 「2008 사라고사엑스포 한국관 결과보고서」, 2008. 12.
_____, 「하노버 박람회 종합결과보고서」, 2000.
“2010 상하이의 꿈(하)”, 「광주일보」, 2008. 3. 31.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경제회복의 발판 - 아이치(상)”, 「광주일보」, 2008. 1. 21.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엑스포로 환골탈퇴 - 오키나와(상)”, 「광주일보」, 2008.
1. 18.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자치단체와 주민참여 - 아이치(하)”, 「광주일보」, 2008.
1. 28.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엑스포로 거듭난 리스본”, 「광주일보」, 2008. 3. 4.
“개최 도시에서 배운다 - 흥행실패 반면교사 하노버”, 「광주일보」, 2008. 3. 10.
“선진국 문턱에선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해사경제신문」, 2007. 11. 27.
“아이치 엑스포-21세기 첫 박람회”, 「광주일보」, 2008. 1. 21.
“여수 엑스포 - 외국사례 벤치마킹해야”, 「아시아경제」, 2008. 6. 23.
“유럽 박람회 현장보고서 - 사라고사 박람회”, 「남해안신문」, 2008. 10. 22.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성공 박람회”, 「남해안신문」, 2008. 4. 21.

- 권선아, 「일본 내의 오키나와 그 이미지의 형성과 전개과정(해양박람회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2006. 8. 22.
- 동신대학교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한국공간환경학회, 「여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사후활용방안」, 2008. 12. 15.
- 산업연구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 연구」, 2004. 3.
- _____, 「대전엑스포'93 개최 효과분석」, 1990. 12.
- 삼성경제연구소, 「Global Real Estate」, 2009. 1.
- 송종석, “세계박람회의 의의와 연혁”, 「대한건축학회지」, 34권 6호, 통권 제157호, 1990. 11.
-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의 경험공유를 위한 제언」, 2008. 3. 6.
- 요시미 순야, 「표류하는 만국박람회」.
- 우미영, 「박람회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 석사학위 논문, 2001. 6.
- 이민식, 「세계박람회와 한국 - 크리스탈궁에서 2012 유치관까지 출품퍼레이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1. 1.
- 이주연, 「도시 성장 동력의 ‘지속 가능성’-포르투갈 리스본 엑스포공원」, 2009. 5. 17.
- 이홍준, 「대전엑스포의 사후활용과 교훈」, 2009. 5. 20.
- 인천세계도시 엑스포조직위원회, 「세계 엑스포의 추세와 2006 아이치엑스포 사례 분석」.
- 전국경제인연합회, 「지구촌리포트-중국」, 2005. 11. 30.
- 최은순 · 정문수 · 하세봉, 「해항도시의 세계박람회」, 한국해양대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09. 1. 31.
- 한국개발연구원,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05. 8.
- 한국공간환경학회, 「박람회 사후활용 및 효율적인 주변개발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2009.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 EXPO '93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 1991. 2.
해양수산부·전라남도, 「2010 해양EXPO 기본계획」, 1998. 12.
황기형,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조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 4. 14.

<해외 문헌>

名古屋學院大學 綜合研究所 編, 「國際博覽會を考える：メガ・イベントの定策
學」, 晃洋書房, 2005. 2.
中村利雄, 「2005年 日本國際博覽會 愛・地球博回顧錄」, 財團法人 地球産業文化
研究所, 2007.

EXPO ZARAGOZA 2008, *All the questions, all the answers*, 2004. 2.

Japan Association for the 2005 World Exposition, *Results and Evaluation of
EXPO 2005*, Aichi, Japan(Appendix I), 2005. 9. 24.

Shanghai EXPO, *The Bureau of Shanghai World Expo Coordination*.

Shepherd, I., *Towards a future Maritime Policy for the Union: A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the Seas*, ec.europa.eu/maritimeaffairs. 2007. 9.

<온라인 자료>

세계박람회기구(BIE) 홈페이지(<http://www.bie-paris.org>)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xpozaragoza2008.es>)

상하이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en.expo2010.cn>)

아이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xpo2005.or.jp>)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xpo2012.or.kr>)

하노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expo2000.de>)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방안 연구

황기형(khhwang@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엑스포지원연구실장

자원경제학 박사

저서 및 논문

「고유가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책」 (2008. 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 (2009. 12)

박광서(kspark@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수료

저서 및 논문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9. 9)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과 Blue Economy에 관한 소고」 (2009. 12)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방안 연구

2009年 12月 29日 印刷

2009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姜	淙	熙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 한성애드컴 2266-6559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 간행물관매센터 Tel : 394 - 0337